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과 일터

- 마석가구공단을 중심으로 -

오픈소사이어티재단, 다음세대재단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과 일터

- 마석가구공단 거주자를 중심으로-

마석가구공단 미등록이주노동의 변천과 특성

마석가구공단에는 430여 개의 업체와 100여 개의 가구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가구제조 173개(40.3%), 플라스틱 사출 66개(15.3%), 철판인쇄 54개(12.5%), 기계제조 54개(12.5%), 의복제조 36개(8.4%), 유리가공 2개(0.4%) 등의 분포되어 있다.

마석가구공단의 특성은 한 공간 안에 일터와 생활공간(숙소)이 일체되어 있고, 이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이주노동자(공동체) 간에 친밀감과 유대관계가 강하다. 또한, 한 센인(건물주)과 사업주(공장)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상호 간에 협력하는 '공생'의 관계에 놓여 있다. 마석가구공단은 1990년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의 단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주노동 역사의 산실이다.

Ⅰ.삶의 역경과 변화

1. 이해관계의 충돌 : 다툼 (중재의 부재)

마석가구공단에 90년대 초반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점차 증가하면서 다수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문화, 종교, 의사소통에 있어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해 다툼이 확대되어 이주노동자들 국가 간 싸움이 일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상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공중전화 부스를 사용하면서 앞사람이 장시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겨 다툼이 벌어지거나, 숙소 내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쓰레기 방치에 따른 불편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다툼이 발생하곤 하였다. 때로는 필리핀의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자금이 없는 경우 고리대금을 하는 자국민에게 빌렸다가 이를 환원하지 않아 다툼이 있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주변 친구들이 빌려주는 관대함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등록과 미등록으로 나누어지면서 등록 체류 이주노동자의 우위적인 유치를 악용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갈등이 생길 때 이를 남용하기도 했다. 사소한 다툼에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과정에서 합의하면 종결하겠다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에 인계되기도 했다. 출입국 신고를 무마해 주고 보호 목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갈

취하는 일도 일어났다. 또한 암묵적으로 출입국과 경찰서의 정보 제공 및 통역을 담당하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인계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부터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샬롬의 집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간의 중재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자치적인 공동체 형성이 마련되었고 '경기도·인천 이주노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주노동자 리더들이 배출되어 한국 사회 이주노동 운동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2. 생활과 일터, 생활 여건의 종합적인 다면 공간

마석가구공단은 152,000평 안에 430여 개의 소규모 공장과 100여 개의 가구전시장이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다세대 숙소, 9개의 마트, 14개의 음식점이 있다. 종교시설로는 이슬람사원 1개와 성공회의 교회 1개가 있다. 마석가구공단은 밀집 지역으로 이주노동자의 생활환경 숙소와 일터가 함께 있는 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필수품 역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공단 안에 있는 마트에서 자국 식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런 여건에서 출퇴근이 편리하고, 쉽게 고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원활하여 이주노동자에게 편의 측면이 있다. 사업장에서 점심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제공되지 않을 때도 숙소가 근접하여 점심시간에 숙소에서 자국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일하는 공장은 3~4개의 규모가 큰 공장이 있지만, 대체로 소규모로 5~10인 미만 사업장이다. 경력이 오래된 이주노동자에게 작업 지시하고, 사업주는 외부 일을 보기도 한다. 숙련 장기 이주노동자가 공장장의 역할을 하면서 미숙련된 이주노동자의 작업과 공정을 조정하여 일한다. 그만큼 오래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이주노동자의 숙소는 국가 단위로 다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친밀한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국의 음식을 마련하여 타국에서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 의식이 높다. 종교적으로는 성공회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필리핀 미사가 1994년부터 행해졌고, 이슬람교와 힌두교 역시 공단 내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3. 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상

1990년 이후 자국의 정보 획득에 있어 TV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해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자국 방송을 청취하였다. 설치비와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 IT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위성기기는 소멸하였고 누구나가 쉽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자국과의 연결에서도 유선 공중전화에

서 국제전화 카드사용으로,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으로 변화되었다. 통신의 발달은 이주노동자의 자국 가족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안정적인 유대감을 갖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통사회 속에서 장손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 동생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데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부모님이 소개한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게 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결혼식'을 하게 된다. 2000년대 이전 음성(전화)과 사진에 의존하여 상대 배우자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시간과 공간이 단축되었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측면에서 통신의 발달은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본국과의 정보 및 가족과의 연결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감을 주었고,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촉매 역할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휴일의 여가생활에서도 초기에는 마석 시내의 장터가 있는 날이나 상점들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친교와 교류의 공간이 되었지만, 2010년에는 평내·호평의 신도시에 상업지구가 마련되면서 이주노동자들도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소비 이동 역시 지역사회 경제에 영향을 준다.

또한, 요즘에는 발달 된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손쉽게 택배로 식재료 및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장거리 외출할 경우도 모바일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생활의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으로부터도 해소해 주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공단 내에 교통수단은 경사로가 급격하여 오토바이를 주로 사용한다. 출퇴근 시에 이용하지만, 근교나 마석 시내에 다녀올 때 사용하기도 한다. 간혹, 사고가 발생하여 주의를 필요로 하며 헬멧 착용에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4. 안전의 위협 : 무허가 건물과 가스, 전기 등 위험 요소

마석가구공단의 건물은 1960년대 축사를 개조한 것이라 노후 되어있다. 숙소는 간이시설 형태(슬레이트, 판넬 등)로 되어있어 가스(LPG) 및 전기의 위험성이 높다. 화재가 빈번하여 숙소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숙소나 공장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의 몫이 된다. 숙소는 대체로 냉·난방 시설에 있어 취약하여 겨울에 난방은 보일러에 의존하지만, 비용이 많고, 전기장판에 의존하기도 한다. 전기로 연결된 철 집게를 활용해서 온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숙소는 1~3명 정도가 대부분 복도 형태로 양쪽에 방이 있고, 8~10평 규모에 방 1개와 부엌, 화장실로 되어있다. 환기를 위해서 한쪽에 창문이 있지만 방문을 개방할 때 바로 사생활이 공개됨으로 개방이 쉽지 않다. 숙소 옆, 밑이 공장이다 보니 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 냄새가 진동하여 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때로 피부질

환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 사업장은 100평 정도의 규모이며 작업 여건에 따라 임의로 공간 칸막이를 두었고, 천장도 일반 건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변변한 냉난방시설이 없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표면 가공과 도색작업이 이루어져 분진 미세먼지와 화학 염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에는 겨울철에 난방 시설이 없어 공장 내 폐기되는 나무를 사용함으로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근절하는 방식으로 조금 변화된 측면도 있다.

화재 일시:
1999년 7월 26일 저녁 10시경

화재 장소:
성생공단 내 기숙사 2층 건물

화재 경위:
2층 건물에서 화재를 목격한 마을 주민의 신고로 119 소방차 3대 출동
11시경 까지 소각, 새벽 1시 까지 피해 상황 조사 및 귀중품 수거
1시 30분 현장 폐쇄
3시 까지 피해자 대표자와 샬롬의 집에서 대책 회의

피해 상황:
2층(6세대13명 거주)- 전소,
1층(9세대 35명 거주)- 화재 진압 중 소방수로 인한 침수 피해
전기 및 수도 시설 사용 불가, 건물 재 사용 불가
인명 피해 : 사상자 없음. 이재민 48명
재산 피해 : 2천만원부터 3천 만원 예상

현재 상황 (7월 28일 오후) :
성생공단 내 주거 시설의 부족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됨.
이재민들의 숙소가 전소 혹은 완전 침수되었으므로 생필품 및 식품, 의류, 의약품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샬롬의 집 대책 상황:
생필품, 식품, 의류, 의약품의 빠른 보급을 위한 준비
기숙사 시설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중개
단기간 숙식할 수 있는 피난처 확보 중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화재가 발생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5.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자치적인 질서유지와 문화적 역량

1990년 초반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도 중재 역할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샬롬의 집을 통하여 국가별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공동체의 역량과 자치적인 질서유지가 마련되었다. 사업장과 일반생활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국가의 리더 그룹이 모여 의논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병원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본국 송환을 위해 모금 활동하였고, 자국의 지진 또는 태풍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도 모금하여 본국으로 송금해 주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공단 내의 무단 쓰레기 방치에 대한 홍보와 분리수거를 위한 캠페인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단 내 벽화 그리기, 숙소 환경 개선(전기 및 가스 배선,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숙소 주변 텃밭 조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자국의 국경일이나 명절 때에는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개회하여 단합을 도모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이 발생했을 때 300여 명이 참석하여 '무사 귀환을 위한 종교기도회'(성공회, 불교, 이슬람, 힌두교)를 갖고, 경춘 국도 주변에서 촛불과 피켓을 들고 이를 염원하였다. 2009년에는 방글라데시공동체가 경기문화재단에 공모하여 '빼앗긴 깃발'이라는 연극을 공연하며 내국인과 공유하기 위해 자막까지 설치하였다.

자국의 국경일(명절)에는 자체적으로 마련된 문화행사를 국가별 공동체별로 진행하고, 자조 모임으로 카피 바리스타, 전통춤, 미디어, 요리, 악기, 등으로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은 자전거 동우회를 만들어 주말에 주변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필리핀은 정기적으로 리그전(3개월)으로 필리핀농구대회를 하고, 방글라데시는 크리켓과 배드민턴대회를 통해 상호 친교를 나눈다.

6.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가족 구성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가족 구성원은 국가별 전통에 따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방글라

데시의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남성이 먼저 한국에 입국한 후 어느 정도 생활적인 안정화가 구축되면 본국에 있는 여성이 입국하여 출산과 노동을 거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개방성이 있고 이주노동의 경험이 많아 남성과 여성이 독립적으로 한국에 온다. 이후, 한국에서 만나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본국에서 결혼하였으면 남성이 먼저 들어오고 여성이 이후 들어와 결합한다. 가족의 구성원이 형성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함으로 빠른 시기에 재화 획득에 이점이 있고, 생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그런, 반면 본국과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교차 된 가족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의 결별로 인해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약한 측면도 있다. 자녀와 결별 되어있을 때는 체류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가족 간의 친밀감이 더 약화 되고, 동반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교육비 등) 등에 부담을 갖게 된다.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독신의 경우에는 고립을 탈피하고자 좋아하는 여가생활의 취향에 따라 친구 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독립적인 생활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한 준비도 마련하지만, 자칫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에 재미를 갖게 되어 저축(송금)보다는 소비가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미등록 체류가 장기화하고 한국 생활에 안주하게 된다.

7.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 (건강권, 교육권 부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중 초기에는 일부 혼자 입국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본국에서 부인과 자녀가 오거나, 입국 초기부터 부부가 함께할 때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가 출생하였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본국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귀국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성장하며 보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공공기관인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고, 사설일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강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양육과 보호에 있어 소외되거나 방치될 위험성이 크다.

이를 위해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2005년부터 취학 전 아동 보육을 위한 '무지개교실'을 마련하여 양육하고 있다(현재 무지개보육실 10명, 초등학교 재학생 8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명이 있다). 공단 내에는 한센인들 자녀를 위한 녹촌 분교가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이 이주노동자 자녀였고, 2012년에는 재학생 미달로 폐교가 되어 현재는 천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년도	사업기간	아동 수	지원금액	지원처
1차	2007.11.1.-2008.10.31	9명	45,000,00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차	2008.11.1.-2009.10.31	16명	45,000,000	
3차	2009.11.1.-2010.10.31	13명	47,000,000	
4차	2010.11.1.-2011.10.31	24명	47,000,000	
5차	2011.11.1.-2012.10.31	24명	47,000,000	
6차	2012.11.1.-2013.10.31	23명	50,000,000	
7차	2013.12.01.-2014.11.30	16명	50,000,000	
8차	2015.02.01.-2016.01.31	15명	50,000,000	
9차	2016.07.01.-2017.06.30	19명	42,300,000	
10차	2017.08.01.-2018.07.31	12명	35,000,000	
11차	2018.09.01.-2019.08.31	12명	35,000,000	
12차	2019.09.01.-2020.08.31.	13명	35,000,000	
13차	2020.09.01.-2021.08.31.	12명	35,000,000	
총 계		**208명**	**563,300,000**	

❖ 연인원 : 208명

❖ 국적별 : 필리핀(94명),한국(35명),방글라데시(35명),네팔(20명),중국(2명)
인도네시아(10명),베트남(6명),몽골(3명),인도(2명),태국(1명),

❖ 성별 : 여(122명), 남(86명)

❖ 취학아동 : 19명(여: 8명/ 남: 10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등록 자녀는 2020년 7,447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산출 통계 수치로 국내 출산 미등록 자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주 관련 단체는 최소 2~3만 명으로 추산. 이에 최근 2022년 1월 20일 법무부는'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2.2.1~2025.3.31까지 한시적으로 내놓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1.20.)

*** 대상자**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8.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입 경로의 변천

1990년 전에는 한국에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1990년 이후부터는 브로커가 개입되면서 송출 비용(1,000만 원 이상)이 크게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큰 금액(주변 가족과 일가친척에게 도움을 받음)이었으며 어느 정도 중산층에 해당하고 학력도 높은 편이었다. 브로커의 송출 비용이 큰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출입국과 관련한 공무원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브로커와 출입국 공무원의 결탁으로 밀입국의 통로가 되었다. 또한, 신분증 제도가 없었던 국가에서는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오기도 했고, 실제 나이보다 낮추어 가족 동반과 함께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중국 교포 18명을 밀입국시켰다. 여권브로커로 부터 700만원을 받고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6차례에 걸쳐 저지른 일이다. 수법은 자신이 근무할 입국심사대를 미리 알려줘 밀입국자를 통과시켜 주는 방법을 썼다. 출·입국 심사를 맡은 공무원이, 그것도 입국심사대를 밀입국 통로로 이용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각급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밀입국 브로커들과 결탁해 밀입국 비리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에는 입국심사과 직원들이 모두 5억3천여만원을 받고 무려 560명을 밀입국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2002년에는 2천600만원을 받고 22명을 밀입국시킨 직원이 구속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밀입국 비리가 마치 연례행사처럼 터지고 있다.

('또 터진 출입국사무소 직원비리', 인천일보 2004.5.17. 기사 참조)

2005년 이후부터는 출입국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송출 비용(2,000만 원 이상)이 더욱 커졌다.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제3국(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을 경위 해서 관광비자로 들어온다. 제3국을 경위 하다 보니 체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송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현지인(송출국)과 한국에 있는 초청자(브로커)가 연계되어 제3국을 경위 하는 방식으로 진화되면서 통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는 등록 이주노동자의 송출 비용(300만 원)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인원(규모)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경로인 유학생(어학연수)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노동자를 통해 유입되면서 미등록 체류의 경로가 되고 있다. 이는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다양화되면서 통로도 확대됨을 볼 수 있다.

9. 밀집 지역으로 인해 출입국 단속의 표적

마석가구공단은 특성상 밀집 지역이고, 가구를 제작하는 데도 축적된 기술이 필요한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다 보니 출입국 단속의 표적이 되어 한해에도 몇 차례씩 출입국의 단속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단은 축사 건물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형성되어 규정 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장들의 구조도 출입하는 입구부터 협소하고, 계단 및 옥상에는 난간 안전장치 등이 없어 낙상 등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내부에는 기계설비 등 장비들이 놓여 있어 단속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 큰 부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5년에는 출입국 미니버스 2대가 공단 내에 34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여 나가던 중 사업주, 주민 등 저항을 받으며 10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고용주 처지에서는 숙련된 이주노동자를 잃어버리면 영세업체로서는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니 정책 마련을 요구했고, 출입국은 법 집행 행위를 막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후,

단속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으로 인계되어 조사 후 단순 불법체류의 경우 자진 출국 조치를 조건으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단속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2008년에는 출입국 대형버스 1대, 경찰버스 2대, 25인 버스, 승합차 7대, 승용차 등의 차량이 동원되어 138명이 단속되었고, 단속과정에서 9명이 부상 당하고, 당일 3명이 수술받았다. 마석가구공단의 인력난과 출입국의 단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단속의 대표적 사례

2003년 강력단속,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농성 일지

2003년 11월 16일~30일 : 단속과 농성 3D가구공장이 밀집해 있는 남양주, 마석 지역의 7개국 100여명(방글라데시 26명, 필리핀 25명, 나이지리아 23명, 몽골 6명, 기타)의 이주노동자의 노동자가 정부의 미등록노동자 강제 단속으로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으로 피신해 와 4년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2005년 단속의 위법적인 단속에 대한 저항

2005년 10월 17일 마석가구공단내 출입국 미니버스 2대로 34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공장과 기숙사 내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의 불가피성과 부당한 절차(공장 및 기숙사의 무단 진입,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공무원 신분, 보호 명령서 등 제시, 에 대해 사업주, 공장 종사자 및 주민들이 출입국 호송차를 가로막고 10시간 동안 격렬하게 항의하며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및 보호는 사실상 체포와 구금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헌법 제12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법률 우위의 원칙(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이념, 즉 법치행정의 이념상으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헌법과 출입국관리법 상의 최소한의 단속 절차의 원칙을 무시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자의적인 저항이었다.

단속 이후 일시보호해제로 나온 미등록이주노동자 환영식

2008년 '토끼몰이식' 단속

2008년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경까지 출입국직원 93명과 경찰 115명이 동원되어 마석가구공단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126명이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방법은 일명 '토끼몰이'방식으로

가구공단의 입구에 버스와 경찰 병력을 에워싸고 공장과 기숙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진입하여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기숙사의 문을 부수고, 단속된 차량의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수갑을 채운 채 단속 버스 차량 옆에서 용변을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중상자가 4명 발생하였고, 다수 경상자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1) 피해자 1(○○○, 국적: 방글라데시)

2008. ○○. ○○. 10:00경 공장에서 작업 중 검정 조끼를 입은 단속반원 1명이 무작정 쫓아와 후문으로 도망갔고, 후문과 연결되어 있던 2m 50cm 정도 높이 축대에서 단속반원이 왼쪽 어깨를 밀쳐 떨어졌으며, 이후 바닥에 무릎 이 먼저 닿아 부상을 입었다. 당시 단속반원 4명이 축대 아래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쫓아오던 단속반원 1명은 축대를 돌아 내려왔다. 단속을 당한 이후 계속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단속 반원에게 호송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다. 이후 인천공항출입국에 보호된 지 2시간 후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진료결과 오른쪽 무릎의 신경과 인대까지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3일후에 ○○의료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2) 피해자 2(○○○, 국적: 방글라데시)

2008. ○○. ○○. 10:30경 단속반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근처 산으로 동료 직원 7명과 함께 도주하였다. 산으로 피신하였지만 이미 산에는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는 단속반원 여러 명이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이 “이리오라”고하여 도망을 가기 위해 급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다리가 접히면서 비탈쪽으로 떨어졌고, 이후 단속반원이 떨어져서 다친 본인을 보고 그냥 떠났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우측 요골 골두 분쇄골절 및 탈구가 되었고, 외측부 인대가 파열되어 약 8주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3) 피해자 3(○○○, 국적: 방글라데시)

2008. ○○. ○○. 10:30경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필리핀 출신의 직장동료 3명이 단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뒷문 쪽으로 뛰어 내리다가 발을 다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산으로 피신하였고, 당일 12:30분까지 산에 있다가 나뭇가지를 목발로 이용해서 회사로 돌아왔다. 현재 마석○○병원에입원중이며, 4번째 발가락 골절로 스프린트를 고정한 상태이며, 약 8주간의 계속적 관찰과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참고인 진술

1) ○○○(주식회사 ○○ 작업부장, 피해자 1이 근무한 작업장)

2008. ○○. ○○. 오전 10시경 단속반원들이 왔으며, 경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단속반원들이 공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참고인이 입구를 막으며, “왜그러냐”고묻고“들어오지말라”고하자, 단속 반원 한명이 허리를 잡고 밀어 뿌리쳤고, 이후 경찰 한명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후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 필리핀 여성 한명이 잡힌 상태였고, 피해자1(○○○○)이 도망가다가 1층 후문 축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높이는 2.42m정도 되었고, 떨어진 곳의 바닥이 경사가 있어 피해자 1의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다. 그 뒤에 단속반원 2명이 동시에 같이 뛰어 피해자1을 덮 쳤으며, 피해자1은 다리가 아프다고 계속 단속반원들에게 호소하였지만, 단속반원들은 이를 묵살하면서 피해자1의 팔을 잡고 단속차량으로 데려갔다. 또한 단속당한 필리핀 사람은 단속반원들이 목을 조르며 개구리 자세로 엎드리게 한 다음 수갑을 채웠다. 단속당시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단속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단속 직후 긴급보호서 등 기

타 서류를 외국인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단속반원들에게 “외국인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이라도 해야 된다.”고하자, 단속반원들은 “일단데리고가서 불법이 아니면 풀어주겠다.”고이야기하였다.

2) ○○○(○○○○ 사장)

단속당일 10시경 단속반원 10여명이 기숙사 담을 넘어왔으며 군화발로 기숙사(4호실) 문을 부셨고, 남자 단속반원들은 보호외국인 여성 2명(○○, ○○○○)의 머리채를 잡아 공장 밑까지 끌고 가 수갑을 채웠다. 당시 기숙사 뒤편에는 단속반원들이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경찰 장구를 들고 지키고 있었고, 내가 “왜 뒤지느냐 가택수색영장 가지고 왔느냐?, 공장 현장도 아니고 기숙사 아니냐?”라고 항의했지만 단속반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단속만 하였다. 당시 기숙사에 자고 있던 사람들은 7명이었고, 이중 5명이 단속되었다. 현재 우리 공장은 ○○가공공장으로 수출협력업체이지만, 직원들 모두 단속이 되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9일 마석 단속과 관련하여 과잉 단속, 환자방치, 무단침입 등에 대해 권고를 한 바 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위반은 물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한계를 넘어 직접 강제를 수반하는 조사(진입, 수사 및 단속)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배하였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보호 침해와 관련해서는 무단진입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판단>

1) 진정요지 ‘가’항과관련하여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외국인들을 단속차량까지 호송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부여잡는 등 위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외국인 등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속반원들이 시민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과관련하여

피해자 1이 무릎과 인대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이었고, 호송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묵살하였던 점과, 단속반원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조치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과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여성외국인들이 단속을 당한 후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에 대하여 단속반원들이 이를 화장실이 아닌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와, 단속 과정에서 남성 단속반원이 피해여성 외국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호송 차량

에 탑승시키는 행위는 단속을 당한 여성외국인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외국인 단속 시에는 단속반원들에 대한 사전 성희롱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Ⅱ.노동의 변천

1. 기술과 언어 미숙으로 인한 갈등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단순 작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가구 제작을 위해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도 요구된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게 되면 작업 속도의 지연으로 이에 따른 질책과 폭력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감내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게 된다. 이런 사업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기피 사업장이 되기도 한다.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의 작업 기술의 저숙련이나 언어 이해의 부족이 있었을 경우 욕과 폭력이 동반된다. 또한, 작업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 공단 내 초기 산재의 발생률이 높았던 요인이 여기에 기인한다.

이후, 기술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3D업종의 경우 내국인이 꺼리다 보니 사업주는 숙련 이주노동자를 지속 고용하기 위한 방책으로 임금 상승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재화를 습득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상호간에 상충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고용허가제 이후 등록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병행 고용

2004년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의해 사업장이 운영되었지만, 이후에는 등록과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병행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새로 유입된 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기술과 의사전달에 있어 원만한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숙련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원인으로는 단기 순환되는 고용허가제에서 등록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고, 신규인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업주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을 뿌리칠 수 없었다. 또한, 등록 이주노동자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유혹도 작용하였다. 단기 체류 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체류 기간이 도과하면 함께 일한 미등록이주노동자처럼 미등록 체류로 유인되는 성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공정 과정을 체득하고 있는 숙련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미등록 체류에 따른 제한사항이 협소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에는 사업장은 생산물량의 주문이 없다 보니, 최소 인력만으로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남겨 두고 견디어야 했다. 그러다 일감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 형태로

작업에 필요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등록 이주노동자 도입의 차단과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절(귀국) 등으로 인해 사업주는 경영난의 고충을 겪어야 했다.

3.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주노동 (가구 제작에서 인테리어로)

1990년대 전후로 세계 경제의 호조에 따라 한국의 생활 여건도 좋아, 마석가구공단 역시 가구 생산 사업장(침대, 쇼파 등)도 활발하였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나, 가구업체에서 있어서는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폐업·도산·휴업 등으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도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2010년에 들어서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9년에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국경의 차단과 함께 이주노동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임금 단가가 낮은 국가로 제조업(신발, 의류 등)이 대거 이동하고, 수입 물품들이 확대되면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더욱이 여기에 예외 없이 가중된 것은 국내 가구 생산보다 가격이 낮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들어오는 가구(재)로 인해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테리어업종으로 전환되었다. 리모델링을 하는 모텔, 식당, 백화점 등 낙찰받아 1주 이상 1달 정도 밤낮없이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1달에 400만~500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이곳에 배치되는 이주노동자는 숙련 기술과 고강도의 노동에 적합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도 단기간 안에 많은 임금을 받게 되고, 사업주도 가구 제작보다는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코로나 때에도 인테리어업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리모델링을 하는 곳이 늘었다).

4. 이주노동자의 국가별 분포도와 체류 기간의 확대

이주노동자의 분포도에 있어서는 대략 90년 후반 2,000명까지 이르렀다가 현재는 방글라데시 400여 명, 필리핀 300여 명, 태국 60여 명, 베트남 50여 명, 네팔 40여 명, 그 밖에 150여 명 정도 있다. 이주노동자의 분포도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 내에 있는 대부분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혈연관계나 국가별로 지역에 따라 형성됨을 알 수 있다(포천지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부평·부천지역 미얀마 등). 때로는 업종 군이나 종교 지형에 따라 편중되기도 한다. 이는 애초에 사업장의 정보 및 직종의 기술력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초기에 산업연수생이나 여행 비자 등을 통해 들어와서 마석가구공단에 정착한 사유는 다양하지만, 정착한 이후 이곳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소개(친족관계 및 친구)로 점차 유

입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는 다카나 둥기바리, 로호정 지역 출신으로 분포되어 있고, 필리핀은 마닐라, 바기오 지역 출신이다. 지역 출신으로 인해 친인척이거나 학교의 선후배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 친밀감과 유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

체류 기간에 있어서는 1990년 초반에 들어와서 20여 년이 넘은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많은 편이며, 또한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이곳에 온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요인은 1990년 이후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자치적인 결속력과 이주지원 단체의 편의 제공에 따른 미등록체류자의 체류에 안정감을 가져다준 측면이 있다.

2003년에 파악된 마석가구공단 내 이주노동자 현황

나라 (15개국)	공동체 리더(이름)	회원 수
나이지리아	템플	53
네팔	기란, 구릉	48
몽골	우카	27
미얀마	투, 선윈	22
방글라데시	랠린, 사파얏	623
베트남	도안	52
우즈베키스탄	슈하르트	21
이란	마지드	28
인도	고힐(제이싱)	31
인도네시아	리키	26
중국	이광호	44
카메룬	탕구와	24
태국	수카냐	33
파키스탄	임란칸	41
필리핀	로져, 벤	362
총계		**1,435**

5.경제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탄력적 고용 형태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업주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사업장에 배치한다. 그러다가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투입하여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탄력 운영을 통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진행되었지만, 코로나 이후 이는 극심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인력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불안정한 인력의 유동성이 사업주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결국 사업주는 원활한 인력의 공급과 지속적인 고용이 최우선 과제임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악화되어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신규 외국인력이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도 뒤따르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주노동의 이동이 차단되면서 사업장은 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였다. 또한 등록 체류 이주노동자가 신규 도입되지 않았고, 고용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임금 및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임금 지급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거나 임금 내에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에 따른 비용을 유동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6. 고정(월)임금제 보다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을 선호

1990년 초반에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꺾기'하기도 했다. 임금체불이 발생 시에는 꺾기 임금을 포함하여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없어진 측면이 있다. 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 자금회전이 순조롭지 않고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보니, 미등록이주노동자 중 임금체불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의 경우 보통 3~6개월 지체되기도 하고, 체류 신분상의 불합리로 인해 60% 이상이 받지 못했다. 초기보다는 많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임금체불이 증가추세였고, 3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지연되는 것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토막을 내어 조금씩 지급하여 임금체불을 회피하기도 했다.

1900년 초반 여성은 60만 원, 남성은 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고, 이후 2000년초 여성은 70~80만 원, 남성은 90~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으로 되고, 2010년대에는 여성 110~140만 원, 남성은 140~165만 원이었으며, 2020년에 들어서서는 평균 180여만 원에서 현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평균 220여만 원 정도이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고정(월) 임금보다는 숙련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임금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고정(월) 임금 250만 원을 받는 것보다 1일 15만 원(20일 경우 300만 원)을 받고 탄력적으로 일한다. 이 경우 사업주와 협의로 필요할 시에 휴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취하게 되고 언제든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사업주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상호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할 형태이지만 이 역시 고용의 탄력 운영의 한 측면이다.

7. 이주여성 노동자의 불합리한 노동의 차별

성 비율에 있어 2021년 미등록체류자는 388,700명이며 남성은 243,540명이고, 여성은 145,160명으로 여성이 37%로 나타나고 있다(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마석가구공단에도 비율적으로 7(남성):3(여성)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와

같이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할 때 평균 3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내국인 여성과의 비교에서도 경력이 짧은 내국인 여성이 이주여성과 비교하면 무려 적게는 30~60만 원 차이가 있다. 사업장에서 작업 기능(목제 제단, 표면작업, 무늬목 작업, 도색, 조립, 포장,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작업량이나 노동강도 면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 폭행이나 성희롱에도 노출이 되어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일보다도 욕설로 인해 겪는 고충이 더 크다고 하소연한다. 한 이주여성은 “샌다기(표면을 작업하는 기기)로 때려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주여성의 작업한 물량을 내국인 여성이 가로채 가기도 하고, 내국인 여성의 물량을 감당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 사업장 내에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더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사업장에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경우 미등록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협박하기도 하고, 실제로 같이 일하던 이주여성의 동료들이 출입국 신고로 단속되기도 했다.

8. 이주노동 운동의 산신 마석가구공단 이주노동자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 이주노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 사회 이주 운동에서 있어 이주노동자 당사자 운동의 시금석이 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주체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999년 추석 연휴에 이주노동자 수련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을 통해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인식과 연대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투쟁과 노동절(메이데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00년 10월에는 이노투본(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 결성되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의식화 학습과 집회 조직 활동에 함께 하였다. 또한 마석가구공단과 인연을 갖고 있던 성공회대학교 박경태 교수님의 주도하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학교’(2001.4.11. 12주 과정)가 개설되어 노동자 문화, 사회운동,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NGO 활동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주체적인 역량과 이주노동자 운동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후 2001년 5월 이후에는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주축으로 하여 평등노조 산하의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가 설립되어 노동조합원 조직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2002년 9월에 마석가구공단의 핵심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에 의해 표적 단속되면서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5년 미만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합법화하는 한시적 조

치가 시행되면서, 이에 제외된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배제와 강압적인 단속추방에 저항하여 전국적으로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마석가구공단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농성 투쟁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명동성당 농성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11월 28일까지 380일간 천막농성).

농성 투쟁 이후 2005년 4월 24일에는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이주 운동 투쟁의 전면에 나서면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주노동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게 되었다.

비두(Bidduth Khademul Islam)

비두는 1996년 국내에 입국하여 마석가구공단에서 이주노동을 시작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상황과 처우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2002년 4월 28일부터 77일간 '집회결사 자유 쟁취, 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2년 9월 2일 새벽에 기숙사에서 강제 연행되어 출입국에 인계되었지만, 출입국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단식투쟁을 계속하였다. 결국 21일간의 단식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3개월 만에 일시보호해제 조치로 풀려났다. 그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던 중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경찰에 연행되어 결국에는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국제테러리스트로 둔갑 되어 정치범으로 송환되어 재판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협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비두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확립하고 농촌 및 도시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04년 7월 1일에 BPS(Bangladesh Patriot Society)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쉑 알 마문 (Shekh al Mamun)

마문은 1998년 한국에 와서 마석가구공단에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했으며, 현재는 비영리 이주민문화예술단체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Asia media culture factory (AMC Factory)'에서 이주민들이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독립영화감독으로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삶과 현실을

영상에 담아 한국 사회에 이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마문은 어느 한 영역, 한 조직에서만 국한된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권익 활동, 이주민 권익을 위한 시민단체 및 공익법률 단체의 이사 활동, 이주민 문화예술 활동 등 이주민의 권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문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시작된 380일간의 이주노동자 명당성당 장기 농성 투쟁에서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조합의 노조설립 합법화에도 기여하였음은 물론, 많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상담과 그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어쇽 타파 (Ashok Thapa)

어쇽은 2000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후 마석가구공단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방송국(MWTV)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를 보도하는 활동을 하다, 2009년 네팔로 귀국했다.

이후 네팔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2013년 4월 21일에 제9회 알자지라 국제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영화제)의 단편 부문에서 <코리안 드림>으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아랍권 최대의 미디어 그룹인 알자지라 네트워크에서 주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정받는 영화제이다. 그 해 출품된 90개국에서 1,400여 개의 작품 중에 30개국 205개의 작품만이 본선에 초대됐고, 그중에서도 최종 17개의 작품만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코리안 드림'은 이주노동자로 스탑크랙다운의 다국적 밴드에서 활동한 미누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네팔에서 영화사상 국제영화상 첫 수상자이다.

모누 (Mohammad Minhaj Ahamed)

모누는 2000년에 한국에 왔다. 마석가구공단 내 방글라데시 공동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상담 통역을 담당했고, 공동체 소식지 발간 및 문화 활동, 지역 봉사 활동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3년에는 방글라데시로 귀국하여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하다 귀환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나눔과 자립의 봉사 활동을 실천해 오다, 2018년에 '희망의 다리'(Bridge of Hope)라는 단체를 설립하였다. 무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며 현재 1년에 300~40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모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아동에게 분유 전달, 의약품 전달, 가방이 없는 학생들에게 가방을 선물, 거리에서 노숙하는 어린이들에게 담요 전달 등 많은 봉사 활동을 해왔다. 이를 인정받아 방글라데시에서 IVD Bangladesh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이주노동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상호공생하는 사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Ⅲ.장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 (심층면담)

자만 (방글라데시)

- ❖ 공단의 이발소 아저씨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 ❖ 노령과 당뇨 등으로 힘들지만 자녀의 학비로 인해 돌아갈 수 없는….
- ❖ 코로나로 인해 알바 형태로 일하던 일자리도 사라지고, 빚더미에 기약 없는 날들의 연속

2006년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1962년생으로 현재 62세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잠시 의정부에서 있었고, 포천시에서 4년 동안 신발 끈(레이스)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석가구공단에 왔었는데, 포천에 가게 된 계기는 마석가구공단 내에 있던 이발소 아저씨(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을 한 경험이 있음)가 소개해 주어 일했습니다. 이발소 아저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이슬람 종교로 귀의하시면서 마석가구공단의 방글라데시 친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방글라데시 친구들에게는 무료로 이발해 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여행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벌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동네 여자분과 6년 연애 후에 9살 차이가 나는 분과 했습니다. 현재 3명의 자녀 딸 3명이 있으며 대학생입니다. 딸들이 다카대학(영어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딸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44세 늦은 나이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이제는 가부장제에서 많이 탈피하여 아들과 딸을 많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남자들만 대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여성들도 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딸들이 결혼해도 처가의 부모님을 많이 도와줍니다. 딸들의 장래를 위해 학비(장래와 생활)를 위해 부모님과 누나, 처가 등에 돈을 빌려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방글라데시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 학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땅도 사고, 집도 쌌지만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여행 한번 가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숙사는 28만 원 정도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활비로 50만 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부터 아르바이트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야 조금 일이 있지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매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당뇨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겼습니다(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아요! 함

께 웃음!!!).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무료 진료(코로나로 인해 중단)받아 도움을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 무료 진료하는 곳이 없어서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50~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코로나가 있던 3년 동안은 한 달에 50만 원도 벌기 힘이 들었습니다. 자녀 학비로 매월 160~2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빚을 내어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들에게 빚진 돈은 이자가 없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코란을 근간으로 한 '샤리아'Shariah(이슬람법 체계)의 원칙에 따라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도 부족한 경우에는 장인어른에게 빌리기도 합니다. 일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때에도 학비는 내야 하는 상황이라 더 힘이 들었습니다. 딸들이 다카대학에 다니고 다카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라에 가고 싶어도 빚이 있어 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졸업하기까지 2년 동안을 계속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학비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지만, 그보다 내일 일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에 더 마음이 걱정입니다. 공장에서 힘든 일보다 일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마음으로 힘이 듭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지 못할 때는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일하지 못하는 날에는 공단에 있는 기도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가구공장에서 가구 도색 하기 전에 샌다기로 표면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르바이트 일했던 공장 사장님에게 연락처를 알려 드리면서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을 꼭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전화하면서 아르바이트할 곳을 물어보고 전화를 기다립니다. 오늘 밤에도 초조한 마음으로 핸드폰이 울리기를….

이주노동자 유출국에서 유입국으로

한국은 이주노동에 대해 유출·입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인천 제물포항에서 1903년~1905년까지 64회에 걸쳐 7,415명이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에서 이주노동을 하였습니다(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1954년에 세워진 인하대학교(인천과 하와이의 첫 자)의 설립 배경에도 이주노동자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1963년~1977년까지 8,000여 명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가게 되었고, 1970년대는 중동지역의 건설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해외건설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1973년부터 시작되어 1978년 8만 4천여 명에서 1982년 17만 1천여 명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품고 미국으로 가서 세탁업, 청소 등을 하면서 이주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미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은 총 192만 6,50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대략 약 20~25만 명은 미등록 체류자로 추정됩니다).

이주노동을 유출하던 국가에서 경제의 급성장을 이룬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주자들이 유입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20~40만에 이르던 이주자가 이제 100여 개국의 200만이 넘는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2007년 100만, 2016년 200만, 2019년 250만으로 증가). 체류자의 자격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주축을 이루었지만, 이후 2000년 초부터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유학생, 난민 등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체류 이주민과 내국인의 비교를 살펴보아도, 코로나 이전 5%에 육박하던 이주민이 코로나 이후 4%대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0만~20만 이상의 이주민이 증가하다 보면, 조만간에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따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민 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채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인구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439,038
체류외국인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대비비율	4.57%	4.87%	3.93%	3.79%	4.37%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로키 하림 (방글라데시)

- ❖ 가족(부인과 자식)과 함께 있다가 홀로 이주노동으로 남음
- ❖ 공장의 이동 없이 한 공장에서 22년간 일한 성실한 숙련 노동자
- ❖ 가족의 재결합을 꿈꾸며 이어가는 이주노동의 고단함

2000년 5월 5일에 한국에 왔습니다(어린이날 왔다고 하니, 웃음!). 1973년생(51세)입니다. 7형제 중 막내입니다. 매제가 한국에서 사업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후 2010년에 갔다가, 2011년에 브로커에게 2,000만 원을 주고 관광비자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도 2002년(브로커에 1,000만 원)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고, 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 우맘(2004년생, 한국 출생)과 함께 2006년에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했고, 경기도 광주시 문형리에 있는 의자공장에서 4개월 일하고, 이후 계속 마석가구공단에서 22년 동안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는 형(셋째)과 조카가 1997년에 들어와 있었고, 2003년에 형은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사이프러스(CYPRESS, 옛 키프로스 섬)에서 인도식 식당에서 조리하며 일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왜 안 음식 만들어 줘. 웃음!!). 사이프러스에 인도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유학) 비자로 가서 일했는데, 1년 정도 있었습니다. 8개월까지 일했는데, 몸이 아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해 벌금 500만 원까지 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 식당에서 계속 일하던 중 출입국의 단속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후, 방글라데시로 돌아와 2년 연애(연애 오래 안 했어요. 웃음!)하고 나이 8년 차이가 나는 분과 결혼했습니다. 2000년에 한국에 온 것은 처남이 한국에 있었고, 추천해서 300만 원 들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다시 올 때는 가지고 있던 돈과 많은 사람에게 빌려서 2,000만 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던 친형(1997~2003), 조카 그리고 마석가구공단의 동네 사람 따신, 마이야 아빠와 같은 로하정(Lohajang) 지역 출신 사람들이 많아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한 공장에서 22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2명, 한국 사람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1~2월에 일이 별로 없었는데, 7~8월 되면서 리모델링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장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리모델링을 해서 준비하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텔 가구, 교회의 의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부산, 마산, 김해, 거제도, 창원, 통영, 울산 등 다 다녔는데, '제주도'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니면서 만든 가구(화장대, 침대, 테이블) 등을 세팅하러 다녔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가구들을 지방에 옮겨 리모델링을 하느라 지방에서 1달 정도 머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방에 다니면서 그 지방 음식도 많이 먹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무역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수염(수염은 기도하는 사람, 이슬람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염이 없으면 시력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로키씨도 수염이 있어 지금까지 작은 글씨도 보인다고 합니다!)을 기르는데, 수염을 보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럼 수염 깎으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이 친구! 나랑 20년 넘게 일했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실내장식(인테리어)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이를 다시 마석가구공단에 하청받아 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내장식 일을 하게 되면 밤부터 새벽 시간에 일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백화점 같은 경우 몇 개 업체가 함께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혼란과 충돌이 생기고, 단시간에 작업을 끝내야 하는 관계로 고강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세팅해야 할 물건(백화점에 납품되는 물건은 일체형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 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7~8층까지 계단으로 들고 옮겨야 합니다. 한번은 사무실에 1,200*3,000 테이블 배달을 갔는데,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도 할 수 없어서 건물 밖에서 줄로 묶어서 당겨서 옮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일 힘든 일로 기억합니다. 흠집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특히, 대학교나 사무실, 사택 등이 흠집에 더 민감해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가구 정품 도장도 찍혀 있어야 하고, 흠집이 생기면 무조건 반품이 됩니다). 실내장식 물건은 일반 기성 물건보다 7~8배 비싸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2년 정도 물건에 대한 보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카에 땅과 시골에 건물도 세웠습니다. 다카의 땅에는 아직 건물을 세우지 않았고, 가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본인이 있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허가받기 위해 들어가는 건축비용보다 관련 공무원에게 주어야 하는 뇌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경찰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웃음!).

2012년에 아들 우맘이 포경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여 우맘이 몇 차례 경련이 계속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이를 인해 뇌에도 이상이 생겨 머리가 아프고 열도 나서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안면에 이상이 생겨 약을 먹었지만, 계속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두 달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2022년 12월에 위층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부부가 본국으로 귀국하고 비어 있던 기숙사의 수도가 터져서 아래쪽에 살던 기숙사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어 있던 기숙사의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얼었다 녹으면서 수도관이 터져버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 배관이 부실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밤 12시, 1시, 3시)으로 다섯 군데의 수도 파이프가 터져, 기숙사 살림뿐만 아니라 전기도 끊기고 천장도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림 도구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누수로 인해 지난달 전기세가 60만 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보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하 15도가 넘는 이번 겨울에도 장기 장판에 의존해서 생활했습니다. 식사는 기숙사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밖에서 사 먹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겨우 물이 조금 새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월부터 출입국 집중단속과 공단 개발로 인해 기숙사도 구할 수 없는 처지에서 다른 곳에 가기도 어려워서 그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 20여 년 넘게 살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도 한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산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글라데시 친구들도 일이 없어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석가구공단처럼 서로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도움을 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방도 있어 종교 생활도 하고, 서로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로 변해 가지만, 마석가구공단의 이주노동자들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내고 있어 좋습니다. 공장에서도 함께 힘든 일을 하지만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식사도 같이하고 회식도 합니다. 또, 친구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는 일(병원비나 여행비를 분담)도 합니다.

20년을 회고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는데, 전(2000년 초)에는 전화 공중전화를 하면서 1만 원 카드를 사면 20분 정도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통화를 하는 동안 카드의 숫자가 떨어지면 안타까움에 발을 굴렀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공장의 일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적응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사장님이 자기 동생에게 저에게 공장 일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로키는 외국 사람 아니야! 너보다 일도 잘하고 오래됐어!” 이제 마석가구공단은 “여기가 네 동네이고, 우리 집”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말에 공단에서 함께 지내던 형(넷째)이 심장 수술 도중 사망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넷째)은 5년 전에 한국에 왔고, 이미 2년 전에 심장 스텐트(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해서 시신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고, 병원비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서울의료원에서 지원받았고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형의 죽음과 함께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공장에도 알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로키!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 가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로키는 2023년 5월 14일(일)에 이드 무바라크 행사를 마치고, 2023년 5월 15일(월)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마석 시내에 나갔다가 출입국에 단속이 되어 출국했습니다.
(*.이드 무바라크 행사 때 찍은 사진)

슈먼 (네팔)

축구선수의 꿈이 이주노동의 꿈으로 '코리안 드림'
농업 등록이주노동자로 쉬는 날 없이 작물 재배에 종사하다 미등록 체류
농어촌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등록 이주노동자의 기피 현상

E-9으로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지만,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농촌을 지원하여 빨리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제조업의 경우 대기자들이 많고, 농어촌은 지원자가 없어 조기에 입국이 가능). 이후 4년 10개월을 일하고 귀국하지 않고 마석가구공단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촌에서 일해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네팔 다단(Dharan)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부모님이 하고 계시던 돼지 키우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 축구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수트라(2002년 월드컵 열기가 식기 전 2003년 제13회 아시안컵 축구선수권대회가 치러지던 중에 입국한 네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3명이 잠적했던 선수 중 한 명인 수크라가 마석가구공단에 들어와 가구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15년에 네팔로 돌아가 청소년축구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와 함께 한국에서도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선수는 아니지만, 축구를 좋아합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오게 된 계기는 한국에 먼저 온 친구들에게 소개받았습니다. 한국어 시험공부를 위해 3개월 걸렸고, 한국어 학원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 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 후 농업에 지망하여 2개월 만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 홍천 시내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감자, 무, 고추, 호박, 토마토 등의 작물을 농사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홍천에서 2시간이면 어디냐고 물으니, '북한'이라는 농담함!!!) 농장에서는 네팔 3명과 70세가 넘은 주인 할아버지와 월 120만 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기숙사는 있었지만 형편없었습니다. 가축이 사는 '목장' 같았습니다. 하루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만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캄보디아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이 힘들어서 몇 개월 일하다가 가 버리고 해서 네팔 사람은 계속 있는 것을 보고 사장님이 고용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등록 이주노동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 없이 고용주에 의해 고용이 되면 직장이동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곳을 나온 이후 금곡동에 있는 옷 창고(중국에서 온 옷 정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정리한 옷은 동대문시장으로 보냅니다(옷을 달라고 하니, 여자 옷만 들어

오는데 입고 다니는데 괜찮냐고 묻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 출퇴근(30분 정도)하고 있습니다(센터에서 차 하나 달라고 농담함!!!). 마석가구공단의 기숙사는 2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합니다.

남동생이 1명 있습니다. 한국에 있게 되면 5년 더 있고 싶습니다. 네팔에 가면 아버지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7년 전에 했습니다. 아들 1명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1번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홍천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밥으로 감자, 옥수수만 먹었습니다. 감자만 보면 무섭습니다(농담으로 별명으로 감자로 하면 좋겠다고 하니! 다 같이 웃음!!!)

먹거리 조차도 이주노동자의 손길 없이는….

강화지역에서 청년회장으로 최연소 당선자가 60대로 축하 인사를 받았다는 웃지 못할 소문을 접했습니다. 그만큼 농촌의 일손은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2004년 시행되고 농업 분야 등록 이주노동자 신규 도입 규모는 2012년까지 5,000명대 미만이었고, 2013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약 6,000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2020년(1,388명)부터 2021년(1,841명)까지는 신규 도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 일손은 가뭄처럼 말려 버렸습니다.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보고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10.1.)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 402개 농가 가운데 2019년 이주노동자 고용은 64.2%이며, 이 중 94.9%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원도 여주지역에서 농촌 미등록이주노동자 130여 명을 단속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등록 이주노동자 중 농업 분야 외국인력은 10% 미만이며,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로 인력 수급 정책으로 작물 재배(배추, 고구마, 감자, 인삼 등) 농가는 배제되어 있어 노동 집약적인 농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농업업종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만연한 이유가 정부 정책의 부실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업종에 비해 더 열악한 노동과 생활환경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농업 이주노동자와 관련 매스컴을 통해 취약성이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6, 2009년 국제앰네스티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과도한 노동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일 및 휴게시간 미 부여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농한기의 불법파견, 수준 이하의 기숙사 내 생활환경 등이 제기되었습니

다.

특히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농업 등 일부 분야는 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일일 휴게시간과 관련한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 적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산업안전재해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근대적인 법 적용 근로기준법 63조(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를 현재도 적용)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를 내몰아 서는 안될 것입니다.

빼마 (네팔)

어린 나이에 셰르파로 어깨에 가족을 생계를 짊어짐
셰르파로 일했던 것에 비하면 한국에서의 일을 힘들지 않음
히말라야산맥이 보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다

관광비자로 2007년에 와서 16년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 2020년 7월까지 일하고 귀국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비행기가 없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미혼입니다. 43살입니다. 27세에 왔습니다. 히말라야 무스탕(Mustang) 지역 부근이 고향인데, 해외 많은 사람이 등반 (Trekking) 여행하는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비행기 추락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2022년 5월 29일 포카라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무스탕 좀솜으로 향하던 중 추락하여 22명이 사망). 어렸을 때 13살부터 22살까지 셰르파(Sherpa)로 일했습니다.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42세에 돌아가셔서 생계를 위해 셰르파로 일했습니다. 어머니도 3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여동생 2명, 누나 1명이 있어 남자인 제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셰르파 일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며 추운 날씨에도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또한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셰르파로 일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2007년 한국에 올 때 삼촌과 이자 돈을 빌려 750만 원을 주고 왔습니다. 이 돈을 갚는데 5년 조금 넘어야 갚을 수 있었습니다. 2007~2008년 미국금융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어려울 때 달러가 높아 돈을 갚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먼저 온 친구들의 소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청바지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치마처럼 통으로 된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60도가 넘는 염색을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년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면서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40명, 한국인은 3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관리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전(대전으로 가면서 교통편을 몰라 당시 35만 원 택시비를 주고 갔습니다)으로 가서 하수관을 만드는 공장에서 4년을 일했습니다. 300mm~1,500mm의 하수관을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수관 제작 공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멘트와 혼합물을 첨가해서 기계에서 만들어지면 이를 가공과 건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공정을 거쳐 가면서 무거운 하수관을 옮겨야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

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사장님이 새로운 공장을 하나 더 하게 되었고, 그곳으로 저와 함께 외국인 8명을 데리고 가셔서 여러 공정 중에 하나의 일을 책임지는 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월급도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에게 팀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팀장을 할만한 한국 사람이 없으니 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한국 사람이 오지 않아 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곳을 나와 다시 청바지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바지공장으로 갔지만, 청바지공장도 6개월이 지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청바지의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마석(차산리 맹골)에 온 지는 6년 되었습니다. 소파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파 공장에서 1년에 한 번 퇴직금을 줍니다. 코로나 때도 힘들지 않고 공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공휴일에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해서 나가면, 밥 먹고 또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사장님도 제가 성실히 일해서 그런지 함께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5년 사귀었던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혼수까지 다 보내줬는데 결혼을 앞두고 파기(사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여자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농담함. 함께 웃음!). 이제는 조금 돈을 모으면 히말라야산맥이 보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땅을 사서 농사도 하고 산양을 키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외국인력제도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주자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였으며, 이에 따른 제도로 1993년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은 말 그대로 연수생일 뿐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당해도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연수생은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50%를 상회하는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산재를 보상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산재 당한 모습을 달력으로 만들어 자국민에게 배포함으로 외교적인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산업연수생제도는 민간대행 기관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과다한 송출 비용, 미등록이주노동자 발생, 민간대행 기관의 관리부실과 비리 등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철폐되고(고용허가제와 병행 후 2007년에 폐기), 2004년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차단하고, 한국 정부(고용노동부)와 송출국가 정부가 MOU를 맺고 투명성 있는 제도로 전환한 것이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원칙에서 있어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단기・순환(최초 3년), 내국인의 노동시장(일자리)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일회성 비숙련(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이주노동자의 귀착 사유가 없는 경우는 가능:과도한 임금체불, 휴・폐업, 부당한 노동행위 등)함으로 강제 노동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행정적 절차(사업장이동 신청 및 구직활동 기간 초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이 상실되고, 일할 사업장마저 잃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손실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이제 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름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중요한 원칙인 비숙련・단기・순환 원칙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위와 같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서둘러 고용노동부는 준숙력인력(10년+α) 활용 방안을 내놓았지만, ‘α’ 의문부호처럼 의문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E-7-4비자, 계절노동자, 유학생 활용, 지역특성화 비자 등으로 외국인력 제도의 교란을 불러일으켜 도대체 외국인력 제도의 주무 부처(고용노동부)가 어디인지 의아하게 합니다.

이제 외국인력 제도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맞는 선진화 이민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여 외국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단기・비숙련・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위해서는 단기에서 장기로, 비숙련에서 숙련으로, 순환에서 영주로 가는 총체적인 외국인력 정책의 재편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있지만 2022년 통계를 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23만 명이지만, 미등록 체류자는 2배 가까운 4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의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분기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 정비하지 않는다면 증가하는 미등록 체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과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체류자의 문제를 물리적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야기되는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폭넓게 미등록 체류자를 제도권 내에 수용하는 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 사업장 및 외국인노동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조업	사업장	**40,919**	**40,461**	**39,625**	**36,718**	**34,716**	**36,945**
	외국인	182,981	182,167	181,395	146,876	130,207	164,145
건설업	사업장	**697**	**608**	**549**	**481**	**446**	**472**
	외국인	9,157	8,641	8,131	6,382	5,570	5,848
농축산업	사업장	**8,338**	**8,233**	**8,269**	**7,526**	**6,802**	**8,325**
	외국인	22,802	23,804	24,509	20,689	17,778	24,138
서비스업	사업장	**109**	**126**	**117**	**104**	**98**	**111**
	외국인	286	330	358	276	230	283
어업	사업장	**4,421**	**5,007**	**5,620**	**4,667**	**3,955**	**5,198**
	외국인	6,352	7,432	8,665	6,850	5,678	8,707
총계	사업장	**54,484**	**54,435**	**54,180**	**49,496**	**46,017**	**51,051**
	외국인	221,578	222,374	223,058	181,073	159,463	203,121

* 각 연도말 기준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수 기준

1-1 업종별 성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조업	남자	173,430	173,188	172,830	140,135	124,231	157,266
	여자	9,551	8,979	8,565	6,741	5,976	6,879
건설업	남자	9,157	8,641	8,131	6,382	5,570	5,848
	여자	0	0	0	0	0	0
농축산업	남자	14,882	15,805	16,537	14,104	11,978	15,739
	여자	7,920	7,999	7,972	6,585	5,800	8,399
서비스업	남자	282	326	354	274	228	280
	여자	4	4	4	2	2	3
어업	남자	6,350	7,431	8,663	6,849	5,677	8,701
	여자	2	1	2	1	1	6
총계	남자	204,101	205,391	206,515	167,744	147,684	187,834
	여자	17,477	16,983	16,543	13,329	11,779	15,287

* 각 연도말 기준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수 기준

사하닷 (ABUL HASANAT, 방글라데시)

비숙련에서 숙련기능으로 아르바이트로 전환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마음을 가슴에 지닌….
못내 놓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가득

1981년 3월 23일생입니다. 4남 1녀 중 첫째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 공장(플라스틱 사출)에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한국에 있는 삼촌의 소개로 브로커에게 730만 원을 주고 당시 20살에 브로커 부부의 아들(자녀)로 위장해서 학생비자로 1999년 9월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싱크대 만드는 공장(상판 알루미늄)에서 7년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후 공장장님이 공장을 그만두셨지만, 대신해서 기계를 작동(수리)할 수 있게 되어 당시 월급을 180만 원 받았습니다(당시 평균 110~130만 원). 아버지 공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덕분입니다. 한 달에 15일 일을 해도 한 달 월급을 주셨고, 연장근로 때에도 챙겨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기숙사와 중식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월급도 밀리지 않고 주셔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장에 단속반이 들어와서 4명이 단속되었고, 저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장님이 벌금이 많이 나와 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2006년에 마석가구공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랑은 지금도 가끔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결혼했습니다. 조카도 4명이 있습니다. 사하닷(장남)은 어머니가 소개해 준 여자와 작년에 (전화) 결혼하였지만, 서로 입장(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일. 그리고 송금은 본인에게 해 달라는 요구 등)이 달라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2008년에 가구공장에서 13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월급보다 아르바이트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장님들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십니다. 2008년에는 6만 원~7만 원을 받았고, 지금은 11~12만 원을 받는데 세금이라고 6천500원을 빼고 받습니다(세금 명목이 무엇인지!). 코로나 전에는 아르바이트로 260만 원을 벌었는데, 코로

나 이후 140만 원, 2022년에는 한 달에 60만 원 받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기숙사 월세는 20만 원이고 전기, 수도세를 포함하면 23만 원 정도 됩니다. 겨울철에는 더 들어갑니다. 방 2개가 있지만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한국이나 인도 드라마를 보면서 맥주를 먹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먹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술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유선으로 방송이 되었지만, 몇 년 전부터 유선은 없어지고 인터넷 보급으로 텔레비전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방송을 보지 않는 것은 가짜 뉴스가 많고 정치가 탐탁하지 않아 보지 않습니다. 한국 음식은 해장국과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어제도 쌍둥이 해장국집에서 먹었는데, 전보다 맛이 좀 달라졌습니다(쌍둥이 해장국집은 외국인노동자가 좋아하는 음식점인데, 이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맛의 변화까지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출입국 단속이 밤 9시에 와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가게 앞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단속했습니다. 그날 늦게 일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출입국 직원이 저를 보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산 쪽으로 도망을 쳤고, 어두운 산속에서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를 쫓아오던 출입국 직원도 어둠 속에서 저를 찾지 못하고 갔습니다. 벼랑에서 일어날 수 없어 센터에 연락했고, 센터 백진우 팀장님이 오셔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겨울에는 다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 오면서 몇 번 단속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번은 공장에서 출고 중인 물품을 차에 싣고 있는데, 단속반이 와서 이주노동자를 몇 명 단속했습니다. 단속이 일상화되고 저도 단속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장 큽니다. 단속에 대해 주의하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 잠에도 단속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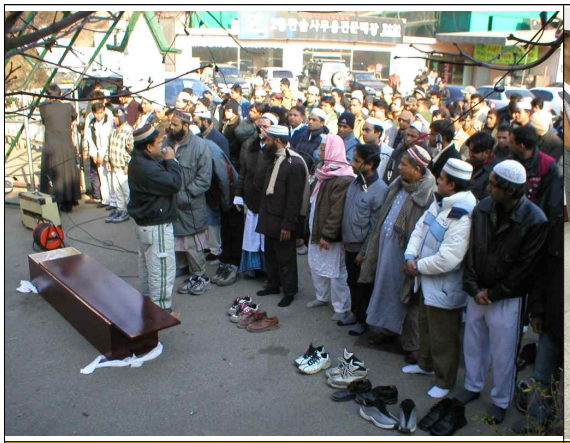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줍니다. 마석가구단지에서 방글라데시 친구들 몇 명이 죽었는데, 장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수술하고 도우미가 필요할 때 대소변을 받고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와서 힘들게 일하다가 죽거나 아픈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하루 일당 급여 10만 원 정도를 잃게 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저도 언젠가는 아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를 뵙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지만, 타국에 와서 아픈 친구들을 보면 가족처럼 돕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 적도 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5~6년 정도 교제했습니다. 두 살 많은 연상이었고, 잠깐 동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연락도 하고 식사도 하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결혼할 생각도 있었지만, 방글라데시에 가서 결혼 신고도 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여성분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

다는 신용불량자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뵙고 싶고, 어머니를 안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해 주시는 밥이 그립습니다. 가끔 스스로 음식을 만들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합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화상을 입으셔서 다리가 안 좋으신데, 최근에도 화상을 입었던 다리 상처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머니를 위해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삼촌들에게 송금을 보내서 세 명 명의로 2014년도에 땅과 건물도 세웠습니다(지금은 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글라데시에 가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한국이 좋고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하닷은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늘 항상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2004년 정부의 단속에 라마단 기간 중 병환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장례

기숙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와 심장마비로 사망한 태국 이주노동자의 추모

린다 (필리핀)

코로나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제적인 압박은 심화되는 상황
'천식 호흡기'에 의존하며 멈출 수 없는 이주노동

린다는 1965년생이면 한국에는 2000년에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17세에 결혼했고, 5년 후 1987년에 싱가포르에 가사노동을 2년 동안 하고, 필리핀에 다시 돌아왔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헤어졌습니다. 다시 홍콩으로 가사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폴)은 현재 마닐라 경찰관이며, 현재의 남편 로미오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제니)은 2018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현재 개신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다시 타이완에 가서 오전·오후에 병원에서 청소 및 의사의 집에서는 가사노동(빨래, 청소 등) 및 자녀의 영어 학습지도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편 로미오(아빠는 타이완, 엄마는 필리핀)는 다시 타이완 갔을 때 1992년에 가톨릭교회에서 만났고, 3년 노동 비자가 끝나고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은 했는지 물었더니, 못 했다고 해서 "그럼 은경축(25년)을 맞아 다음 주에 결혼식을 하자"고 하니 못내 수줍어서 웃기만 했습니다.)

이후, 여동생(벨렌) 부부와 친척 마이크 부부가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하던 중 한국에 올 것을 추천하여 1999년 남편 로미오(C-3)가 먼저 들어오고, 이후 8개 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당시 입국 비용으로는 각 150만 원. 현재는 500만 원 정도이고, 방글라데시는 1,500만 원이지만 지금은 그것도 힘들다고 함). 한국에 올 때 생후 1살의 딸(제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너무 어린 나이에 떨어져 많이 보고 싶었지만, 가족(자녀)들의 생계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에 딸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1살이었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지만, 코로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마석가구공단에 왔을 때 이미 친척들과 다른 필리핀 사람들이 많아, 많은 도움을 받고 어려움 없이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모았지만,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로 많이 들었고, 지금 딸(제니)이 4년여 년 동안 투석하고 있어 1주일에 20만 원 정도 병원비를 내야 해서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은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딸(제니) 병원비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천식과 2년 전부터 당뇨로 인해 계속 근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20~25만 원 정도 약 처방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무료 진료 시에 약을 처방받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센터에서 무료 진료가 없어 더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 로미오는 가구공장에서 무늬목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160만 원을 받고 야근하면 190만 원까지 받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할 때 7, 8만 원을 받습니다. 주로 가구 제작을 위해 샌다기, 사포 작업을 합니다. 가구공장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장 견디기 힘이 듭니다. 방진 마스크를 써도 먼지가 들어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천식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폐가 안 좋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린다씨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2만 5천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사서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의료보험 제외 대상에 대해 실감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 일자리도 많이 줄었고 본국으로 가는 이주노동자와 폐업하는 공장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병도 있고 나이가 많아 일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딸(제니) 병원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진 돈도 없고, 막상 필리핀에 가더라도 일도 없고, 필리핀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20년 일하면서 공장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절대 이주노동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xx야! 왜 이렇게 만들어. 그만 놀고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미루어 놓고, 사장이 나타나면 자신이 작업한 것처럼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주노동을 했던 싱가포르, 타이완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힘들지만 그래도 마석가구공단에 대한 친근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린다씨는 필리핀 바기오가 고향이고 공단 내에는 바기오에서 온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많은 편입니다). 조금 돈을 모으게 되면 필리핀에 가서 조그만 가게(부모님과 자식들의 생계비와 병원비 등으로 전에 있던 가게를 처분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라도 하는 것이 작은 소원입니다.

가사노동 저출산의 해법!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2022.9.28.)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5월 9일에 서울시·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범사업(100명) 계획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의 진원지는 저출산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보고서를 보면,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 낮은 순서(한국 2위·0.88명) 중에 1970년대부터 가사노동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 홍콩(1위·0.75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1990년대부터 도입한 대만(7위·1.11명)이 세계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도입한 나라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가사노동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여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의 해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불거진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도의 최저임금 내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중개업체)과 근로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와 숙박비 등이 공제되고, 제반 비용을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나 가사노동을 도입한 국가에서 인권 침해 및 강제노동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는데,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장이동이 원천적으로 불허(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용)하고 있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사노동에 있어 돌봄의 영역까지 외주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자녀의 돌봄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양육자의 돌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노동환경(노동시간의 단축, 성평등 강화 등)이 개선되어 가정생활의 균형과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외국인 가사노동제도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2023년 5월 23)도 홍콩과 싱가포르(월 38~76만

원 수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가사 노동자의 임금을 축소하여 가사노동을 고용하는 내국인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의 고용 비용은 생산성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고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내국인은 고소득층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서울시에서 시범사업). 맞벌이 부부의 서민층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빈부의 격차에 대한 박탈감과 소외감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꼴이 됩니다.

2022년 6월 16일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시행에 따라 가사 노동자도(고용노동부는 2023.8.2. 직업 호칭을 '가사 관리사'로 변경)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이라고 합니다. 불과 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은 내국인 가사 노동자의 일자리마저 잠식하고, 가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외주화시킬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함께 머무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사치일까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역시 자기 자녀는 누군가에게 맡겨 놓고 해외로 가사노동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자녀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꿈꾸며 눈물로 잠이 들고, 어머니 역시 고국에 두고 온 자녀를 그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줄까요!

테스 (필리핀)

필리핀에서 영어 선생님에서 가족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이주노동
영어 선생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꿈을 이어가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자국어인 타갈로그어 무상으로 가르침

테스씨(1969년 11월 21일생)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수술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돈을 벌기 위해 2000년에 마카오에서 2년 동안 산타로사 델리마학교(여자고등학교, 가톨릭학교)와 3년은 하얏트호텔에서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2002년 아들을 필리핀에서 데리고 나와 홍콩에서 수술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얏트호텔에서 2주 동안 대만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소개받고 대만에서 6년 동안 유치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대만에서 유치원생들을 가르칠 때 한국인 학생의 어머니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의 사업으로 대만에 잠시 있었던 것이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 영어 교육을 위해 한국에 같이 갈 것을 권유받아, 2012년 4월 22일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테스씨가 마카오와 대만에서 일할 때 여동생이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의 심장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여동생은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소개해 주신 어머니도 가족과 함께 4년 후 미국으로 이민 가셨고, 소개해 주신 어머니의 지인 친구분들의 자녀들을 새롭게 소개받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2년 전에는 가르치던 학생들이 3개월 동안 뉴질랜드로 영어 캠프를 떠나, 3개월 동안 린다(필리핀)씨와 가구공장에서 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조금 안정된 직업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이 거의 술로 버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의 근육이 너무 아파 저녁에 밥을 먹기도 쉽지 않았고,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아카데미학원장님이 다시 일하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공장일이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서, 1달만 더 쉬고 나가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함께 웃음!!!)

혜화동성당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 놀러 한번 오라고 해서 와서 보니 필리핀신앙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 곳까지 오는 것은 마석가구공단의 필리핀신앙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필리핀 사람들과 친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왠지 여기에 오면 조용하고 숨 쉬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말에는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기숙사에 옵니다. 주말에는 마석가구공단에 오면 필리핀 아이들(안드레, 지아나 등)을 모아 영어 및 타갈로그어를 무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하지만, 부모님의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단 내 기숙사는 방값이 17만 원인데 전기, 수도를 합해 27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인덕원은 전기세가 1만 원 정도 나오는 데 마석가구공단은 왜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 인덕원에 작은 원룸이 있고, 하루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직접 방문하여 1대1 또는 4명 그룹으로 인덕원, 판교에서 아이들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아카데미학원에서도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스러운 말을 듣거나 옆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차림에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차별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2명의 아들의 양육과 교육비를 위해 한 달에 70만~100만 원 정도를 송금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26, 25세가 되어 대학을 졸업하여 결혼도 하고 일하고 있어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넘는 이주 생활도 정리하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가지 소원은 두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획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서는 마닐라 북쪽에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한국 식당을 운영하려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전에 센터에서 했던 요리강좌를 배워 한국 음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 바기오(Baguio)에는 작은 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예약해야만 받고 있으며, 이용하는 손님이 많습니다. 필리핀 바기오 가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셀림 후세인 (방글라데시)

어린 나이 가족의 생계를 업고 온 이주노동자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수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겉절이김치도 좋아할 정도로 한국 생활에 적응

셀림 후세인은 2012년 5월 12일에 C-3로 입국하는데 1,500만 원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친형이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하고 있던 동네 아는 형의 소개로 18살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것까지 봐주고,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공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 18살에 들어 왔다고 하니),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수염이 없었습니다.” 세림 후세인은 3남 1녀 중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형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닌 본인이 한국에 온 것에 후회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에 당연한 듯 “우리나라는 일도 없고, 먹고 살기에 힘들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1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송금할 수 없었지만, 이후 조금씩 적응하면서 월급도 올라 가족들의 생계비를 위해 평균 매달 100~120만 원 송금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는 1,500만 원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220~230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이 많이 없어 그만큼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코로나 이후)는 아르바이트로 하루 9~11만 원을 받고 있으며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두 사람만 일하고, 바쁠 때는 더 부르고, 일이 없을 때는 다 빼버립니다.

기숙사에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한 달에 생활비로 3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일러하고 전기 6~8만 원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 비용이 20만 원 이상 됩니다. 식비로는 매월 30~40만 원이 듭니다.

공단 내에 있은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며 지금은 인테리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과 일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이 “타카(Tacker) 가져와!”했는데, 다른 거 가져가서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도 배우고 해서 말도 알아들어 괜찮습니다.

어린 나이에 와서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지만, 참고 지내고 화상으로 연락하고 있습

니다. 오늘 오기 전(인터뷰하기 전)에도 어머니와 화상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이 아니라 방글라데시는 '이모'라는 웹을 사용해서 연락합니다.(전화카드 및 인터넷을 사용하다, 휴대전화로 발전).

음식은 이제 방글라데시 음식보다 한국을 음식을 더 잘 먹고, 갈비탕을 좋아하고 김치도 잘 먹습니다. 김치도 새로 한 겉절이김치를 좋아하니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요리를 못했지만, 형들과 삼촌에게 배워 지금은 요리할 줄 압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것은 '단속'이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몇 번 단속되는 것을 보고 겁이 많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공장에 외부 사람이 오면 경계하면서 일합니다. 나이가 어려 친구들이 많이 없지만, 센터에 있는 쥬엘 삼촌이 형처럼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쥬엘 삼촌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 1시, 2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는 큰 형입니다.

젊은 나이에 와서 이제는 한국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언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달 20~30만 원 저금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위험의 이주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단위:건,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해자수	계	7,239	7,538	7,583	8,030	8,286
	사고	7,061	7,315	7,363	7,739	7,968
	질병	178	223	220	291	318
사망자수	계	136	129	118	129	108
	사고	114	104	94	102	85
	질병	22	25	24	27	23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열악합니다. 언제나 산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이주노동자는 산재에 다반사로 등장합니다. 2022년 한국 사회 취업 이민자는 843,000명(법무부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이고, 41만 미등록을 포함하면 120만 정도가 취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 평균 25~28만 명에 속하는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산재에 더 취약합니다. 더욱이 41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산재 신청조차 쉽지 않습니다. 미등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은 산재보험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

등록이주노동자의 산재 경우에는 치료 또는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산재는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국인 산재는 총 130,348명이며 이중 사고재해자는 107,214명, 질병 재해자는 23,134명, 사망자는 2,223명(사고:874명, 질병:1,3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주노동자는 같은 해 8,286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산재 현황입니다. 도표에서 특히, 내국인은 사고재해자 대비 질병 재해자가 21.6%이지만, 이주노동자는 4.0%에 불과해 이주노동자는 질병 재해보다는 사고재해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국인은 질병 사망자가 60.7%를 차지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21.3%이고, 이주노동자 사고 사망자는 78.7%(내국인은 39.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질병	
	재해자	사망자	사고 재해자	사고 사망자	질병 재해자	질병 사망자
내국인	130,348 (94.0)	2,223 (95.1)	107,214 (93.1)	874 (91.1)	23,134 (98.6)	1,349 (98.3)
외국인	8,286 (6.0)	108 (4.9)	7,968 (6.9)	85 (8.9)	318 (1.4)	23 (1.7)
전체	138,634 (100)	2,331 (100)	115,182	959 (100)	23,452 (100)	1,372 (100)

또한, 최근 한 조사(정연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2022) 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률이 성별, 연령을 망라하고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종별에서도 건설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OECD국가 내에서도 한국은 산재율이 높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율이 내국인 노동자의 산재율보다 높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농축산업, 어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적용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에 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2024년 1월 26일까지는 법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72%인데, 이주노동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넘어 이제는 '위험의 이주화'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아불 하산 (방글라데시)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한국에 언제 왔냐는 학생에 물음에 “학생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한국에 있었어요.”

1980년생으로 3남 4녀 중 6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을 못 하던 중에 고향 선배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일하셨는데, 한국에서 돈을 벌어 집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 2000년 6월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동생도 2007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안산 원단공장에서 비자가 끝나기 5년 동안 일했습니다. 3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휴일근무수당(4만 원)을 받으면 7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 20살에 와서 힘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주야간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해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형들(6명)이 알고 배려해 주어 주간에만 일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슬픔 마음에 일하기가 힘들었지만,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의 몫이 저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2005년 마석가구공단으로 오게 되어 그동안 8~9개 정도 가구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옮기게 된 이유는 월급 지체, 임금체불,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월 220만 원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 10만 원을 받는데, 월급은 지체되거나 임금체불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는 당일 받을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더 선호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는 작업량이 많지 않아 사업주들도 아르바이트를 더 원했습니다.

처음 일할 때 말없이 화장실을 갔는데, 책임자에게 말을 하고 가라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안산에서 일할 때 컨테이너에서 5명이 생활했는데, 주야간 교대 때문에 이불이 늘 펼쳐있고, 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깃불을 켜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모두 씻고 밥 먹고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세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다 같이 웃음!!!).

한번은 회사에서 강원도로 갔는데, 설악산에 올라간다고 회사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놀러 간 줄 알았지, 산에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방글라데시는 험준한 산이 별로 없고, 강이 많아 수영은 잘하지만, 산에 오르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려와서 맛있는 음식과 술도 먹어 조금은 기분이 풀어졌습니다.

처음에 한국 음식이 먹기 힘들어 빵과 과자만 먹었는데, 지금은 1주일에 한 번은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갈비탕, 추어탕입니다. 기숙사는 월세로 17만 원을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포함해서 23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2~3회 정도 송금하는데 목돈을 만들어서 환율 시세에 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방글라데시에 3층 건물을 주어 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는 4,000만 원 정도이고, 방글라데시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하시던 쌀가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 방글라데시로 가려고 자진 출국 신고했는데, 코로나로 가지 못했습니다. 마석가구공단 내에서는 주로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데, 2009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있어 지금은 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났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친구랑 누가 빨리 가는지 내기"했다고 합니다. 웃음!)

하산은 2014 EBS 대기획 9부작 가족 쇼크 3부 '마석, 집으로 가는 길'에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을 하면서의 애환과 그리움을 보여 주었습니다. 20년의 이주노동을 회상하면서 20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한 학생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라고 묻기에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묻기에 "학생은 몇 살이지요?", "저는 18살입니다."라고 대답해서 "학생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한국에 있었어요. 학생보다 먼저 한국에 있었어요." 하산에게 있어 한국은 몸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규제 장벽이 부른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사업장이동 초과자)

고용허가제의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이동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고법 제25조에 따르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통계는 이를 초과한 이주노동자의 현황입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과 구직 기간 초과자

업종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초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신청자 중 구직기간(3개월) 초과 외국인근로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조업	4,875	5,867	4,321	8,690	6,123	7,809	1,731	2,046	2,202	2,842	957	955
건설업	390	329	461	647	677	827	224	307	338	271	181	151
농축산업	853	904	983	1,670	2,368	1,917	514	897	630	535	328	357
어업	285	395	506	814	1,191	1,541	172	180	376	418	159	180
서비스업	35	15	11	20	20	14	13	10	16	16	9	5
총 계	**6,438**	**7,510**	**6,282**	**11,841**	**10,379**	**12,108**	**2,654**	**3,440**	**3,562**	**4,082**	**1,652**	**1,648**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1개월) 초과자는 54,558명이며, 구직기간(3개월) 초과자는 17,038명으로 총 71,596명입니다. 이는 한 해 평균 5만 명 정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규모를 넘고, 매해 초과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발생하니, 매년 신규 도입의 1/5을 잃고 있습니다. 초과한 이주노동자는 외고법에 정한 대로 출국을 강제하고 있지만, 실상은 미등록으로 전락할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기간(신청 기간과 변경 기간)에서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여지없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직된 행정적 규제가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미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권고를 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변변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허가제하에서 기간 제한적이고 경직된 체류 허가 및 비자 제도의 결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자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향유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8.)

"2012년 고용허가제 제도에 대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a)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b) 체약국 영토 내에서의 최장 허가체류기간의 제한, (c) 가족재결합 가능성의 결여, (d)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기거주 또는 영주 허가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접근을 막고 비정규 체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a) 가족재결합을 용이하게 하고, (b)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을 철폐하고, (c) 체장체류기간을 연장하고 (d)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다른 비자 종류로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 12.)

따라서 이주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업장의 이동은 원천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변경 신청 기간(1개월)과 구직활동 기간(3개월) 제한으로 불필요한 정신적 부담과 불안한 생활을 이주노동자가 감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최소한의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과 이동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의 과다 발생으로 철폐되었습니다. 그런 산업연수생제도에서도 사업장 변경 기간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허가제에서 오히려 사업장 변경 기간 설정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문제에 대해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나(필리핀)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보내 아들을 품에 안아 보고 싶다
욕설이 제일 싫어요

안나씨(1975년 3월 26일생)의 아버지는 14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2004년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남 3녀 중 언니는 10년, 여동생은 7년 동안 홍콩에서 가사노동을 하였습니다. 남동생은 필리핀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씨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야간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2년 반만 다녔습니다. 이후 작은 회사의 비서로 일하다가 23살 되던 1997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습니다. 처음 서울 성수동에서 전기선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일하던 중 너무 힘들어서 8개월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했고, 매운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김, 달걀, 생선만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40만 원이었습니다.

1998년도에 마석가구공단으로 와서 노트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MF로 인해 1년 7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금 370만도 받지 못했고, 사장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월산리의 사출 공장에서 일하던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고 만나게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금곡에 있던 개신교 목사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필리핀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공장에서 한국말을 하지 못해 접했던 것은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욕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술을 먹고, 욕을 하면 위협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했던 필리핀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마다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샌더기'(사포를 끼워 목재의 표면을 다듬는 데 쓰는 공구)로 때려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인쇄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공장 운영도 잘 되었는데, 그때도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중국으로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일하는 공장은 6년이 되었고, 같이 일하는 필리핀 동료 마일린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에 숙련이 되었지만, 이와는 달리 2년이 된 마일린은 아직도 작업에 서툴러 사장님에게 늘 책망당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마일린이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일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한국 아줌마들은 마일린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일린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전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보다도 더 힘든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욕설이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한 번도 보너스나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들 다 불러 놓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명절 보너스와 선물을 주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는 월급에서 지급되던 점심값 10만 원도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전에는 주던 점심값을 왜 공제하냐고 물었더니 공장 사모님이 '세금'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오후에만 일하고, 월급도 50%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출입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을 때 남편과 함께 점심시간에 기숙사에 있다가 단속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단속 이후 3일 후 자진 출국을 조건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장에서 스프레이, 렌딩, 페인팅, 신발공장의 사출 등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65만 원, 75만 원, 100만 원, 160만 원 등을 받다가 지금은 액자공장에서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700만 원이고, 그동안의 임금체불액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0년에 챠스틴(딸)이 태어났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딸에게 어렸을 때부터 필리핀 타갈로그어를 잊지 않도록 신경 써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고, 이제는 저 보다는 아버지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버지의 술도 많이 줄어서 좋습니다.

(행복한 날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행복했지만, IMF 때 일도 없었고, 남편도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힘이 들었던 상황에서 아들이 태어나기 4일 전에 기숙사에 불이 나서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층 공장에서 불이 시작되어 불이 옮겨붙어 기숙사가 전소되어 옷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남편의 형수님이 키워 주셨고, 지금은 23살이며 대학교 4학년입니다. 어렸을 때 "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왜 엄마는 함께 있지 않냐?"라고 아들이 말할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들을 품에 안아 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커 갈수록 마음도 조금씩 멀어져가는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챠스틴(딸)은 법무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벌금으로 1,900만 원을 냈습니다. 1,000만 원은 그동안 모아 둔 돈이 있었고, 900만 원은 공장 사장님이 빌려주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필리핀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태어난 지 1달도

안 되어 보낸 아들이 올해 대학교를 졸업합니다(안나씨는 못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랑스럽게 자란 아들을 안아 주고 싶습니다. 챠스틴도 화상으로만 봐, 오빠와 지금까지도 서먹서먹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총 체류 외국인 감소 대비 미등록 증가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미등록 체류자는 2022년에는 411,270명으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증가의 원인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무사증 입국과 관광비자 발급의 확대를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체류 외국인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미등록 체류	251,041	355,126	390,281	392,196	388,700	411,270
사증면제 (B-1)	85,196	162,083	176,244	171,805	175,747	164,523
관광통과 (B-2)	20,662	30,028	30,272	26,111	20,864	19,133
단기방문 (C-3)	56,331	61,157	81,723	78,934	78,455	79,67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19년 말 코로나 이후 2020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년대비 2,036,075명으로 50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미등록 체류자는 전년 대비 392,196명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미등록 체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만 명이 축소되었어도 미등록 체류자는 요지부동으로 오히려 2022년에는 41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2019년까지 매년 3만 명 이상이 출입국에 단속되어 강제퇴거를 당했지만, 코로나에서는 단속이 2020년 1/5, 2021년 1/1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	강제퇴거	출국명령
2017년	26,694	6,282
2018년	31,811	4,770
2019년	34,557	5,852
2020년	5,867	2,062
2021년	3,115	1,560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다른 하나는 1997년의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미등록 체류자가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어느 나라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예방접종과 방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더욱 불안감이 커서 본국으로의 귀국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의 온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위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기 체류 미등록 체류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 추세였지만, 등록체류자는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측면의 시사점과 요인입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한국 생활의 적응도가 부족하고, 사업장에도 숙련도가 높지 않아 구인·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등록체류자가 미등록 체류한 것은 취업 상태에 있었으며 최소한 숙련도와 생활 적응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 외국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등록체류자가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근한 예로 농가에서는 작물 재배를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농가의 90% 이상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서 호황을 누린 업종도 있었습니다. 방역용품과 인테리어업종 등에서는 인력이 없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총 체류 외국인이 50만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외국인력이 공급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시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한국 산업현장을 지탱하는데 일정 부분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 도	총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불 법 체류율
		소 계	등 록	거 소	단 기	
2013년	1,576,034	183,106	95,637	1,533	85,936	11.6%
2014년	1,797,618	208,778	93,924	2,066	112,788	11.6%
2015년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년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년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년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2019년	2,524,656	390,281	95,815	1,316	293,150	15.5%
2020년	2,036,075	392,196	108,665	1,674	281,857	19.3%
2021년	1,956,781	388,700	125,022	1,427	262,251	19.9%
2022년	2,245,912	411,270	138,013	3,725	269,532	18.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언주 (네팔)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의 임종을 뵙지 못한 한 맺힌 눈물
여성 이주노동자의 험난한 삶의 여정
공장에서 일은 제일 많이 하지만, 월급은 제일 적요요

언주씨는 네팔 포카라 출신으로 1984년생이고, 20살에 결혼했습니다. 1남 1녀를 두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생활 능력이 없었고,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결국은 이혼하였고, 아들은 남편이 딸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분들이 전남편이 아들을 술 먹고 때리고 집 밖으로 던졌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생계를 위해 건물을 지키는 경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일이라 무섭고 두려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정도 일했을 때 건물에 계시는 분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을 결심하고 어머니와 주변 친척분들에게 1,200만 원의 돈을 빌려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8살이었고, 딸은 5살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갔는데, 딸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집을 나서는 저에게 “엄마! 오늘 일하러 가지 마!”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잠결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아이들과 통화를 하면 언제나 묻는 것이 “엄마 언제 와?”, 그러면 저는 “이번 명절에 갈 거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벌써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고 있어야 해. 너희가 공부 잘하고 있어야 엄마도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할 때 귀여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세탁업이었습니다. 모텔 등에서 나오는 세탁물들을 세탁하는 작업이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이 75만 원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너무 고된 일과 네팔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생각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네팔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악착같이 마음을 추스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한국 아주머니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20만 원의 월급을 더 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 작업을 숙지하고 능숙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냄새가 참기 힘들어서 한국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귤하고 사이다만

먹었습니다. 청국장이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양말'냄새가 났습니다(웃음!). 젓가락 사용도 힘들어 포크를 사용했습니다. 네팔에는 젓갈류의 음식이 없는 반면 한국에는 발효음식이 많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치도 청국장도 좋아하고, '시래기국밥'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말 못하고 일을 잘하지 못할 때 매일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욕을 들으면 웃으면서 "아저씨 저 불렀어요."하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아니야 저리 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예. 예."하고 지나갑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농담도 많이 하고 잘 지냅니다. 삶의 지혜라고 할까요!

마석성생공단에 오빠의 친구가 있어 소개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세탁 일은 깨끗하지만, 마석공단의 가구공장은 먼지가 많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월급은 90만 원이고, 기숙사도 없지만, 가구 기술은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구공장에서 일하면서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을 잘해서인 지 4개월이 지나 20만 원을 더 받았고, 지금은 1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작업량이 남자들보다 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보다 일을 적게 하고, 경력도 늦은 한국 아주머니들은 200~240만 원을 받습니다. 가구공장에서 가구 제작을 위해 목제 제단, 사포, 무늬목 작업, 포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힘든 일은 저에게 다 미루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지만, 월급은 제일 적어요."

8년 동안 4개의 공장을 옮기면 일했습니다. 옮긴 것은 열심히 일해도 임금체불이 생겨서입니다. 4년 전에 임금체불 400만 원을 1년이 지난 후에야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 했다면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기숙사는 2명이 사용하고 월세로 30만 원이고, 겨울에는 난방비(보일러)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이라 난방도 잘되지 않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와 약으로 5만 원이 들어갑니다. 가구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공장의 화학 염료(신나 등)로 인해 지금은 천식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공장으로 출입국 단속반이 왔는데,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오빠와 함께 산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오후 7시까지 있느라고 손발이 얼었습니다. 추위도 참기 힘들었지만, 단속되면 아프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니 두려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속은 저의 삶의 절망 끝입니다.

한국 온 후 아버지가 심장이 아프셔서 1주일에 두 번 투석을 9년 동안 받으셔야 했습니다.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몸이 부었습니다. 네팔은 의료비가 비싸서 한 달에 50만의 병원비가 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언주는

돈도 없고, 아빠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딸이 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네팔로 돌아가려고 짐도 싸고 항공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임종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물품을 정리하시다가 아버지의 지갑에 언주의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지갑 속에 언주의 사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언주씨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언주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언주! 내일 비행기 타고 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던 오늘이 바로 언주씨 아버지의 기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니도 지금은 매우 아프십니다. 병원에서 5개(혈압, 폐, 관절염, 갑상선, 소화장애)의 병명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네팔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는 5년 더 있어야 합니다. 네팔에 계신 어머니와 자식들의 모습이 겹치지만 내일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터뷰 후 몇 달 지난 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네팔분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부평에서 일하다가 남양주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만 알고 지냈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다고 말했고, 상대방 네팔분은 아직 미혼이라 결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팔분이 네팔에 있는 저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결혼을 승낙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귀게 되어 함께 생활하며 네팔에 돌아가면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함께 사는 집이 개발로 인해 5월 말까지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둥지를 찾아야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모처럼 꿈같은 작은 행복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이크 (필리핀)

7남매의 장남으로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14년 동안 일했지만 오르지 않는 월급에 욕만 듣는
유일하게 쉬는 날에도 이주노동자를 돕기 위한 발걸음

마이크(1977년 10월 8일생)는 필리필 딸락 출신이고 2005년 6월 1일에 관광비자로 왔고, 부인은 2002년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쌀) 일했습니다. 7남매 중에 첫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3명, 어머니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어 재혼하신 분입니다. 쌀농사만으로는 가족 생계를 하기 어려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 둘째 여동생이 먼저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신당동의 신발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여동생의 친구 소개로 마석가구공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동생은 이태원에서 만난 미군과 결혼해서 하와이에 있고, 부모님도 함께 하와이에서 함께 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 처음 신발공장에서 8개월 일했고, 이후 2년 가구공장, 지금 가구공장에서 14년 동안 샌다기 작업(표면작업)만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5명 외국인이 일했는데, 코로나 이후 8명이 일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3년간 공장에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에 월급에서 7만 원 공제를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공제하지 않고 일하는 외국 사람만 공제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기관지가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일하고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저는 1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250만 원입니다. 사장님에게 14년 일했는데,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더니, “XX”라고 욕을 했습니다. “5만 원 더 줄게 일해!”라고 했지만,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을 옮겼는데, 공장에서 가구에 오일(oil) 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나 화학약품 냄새가 나지 않고 향이 좋습니다(함께 웃음!!!). 가구공장에서 2005년에 처음 일할 때 85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2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아내도 아르바이트로 하루 일당 7만 원에 가구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6년 공단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필리핀농구대회가 있었는데 선수로 농구를 했고, 그때 아내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의 아들(현재 24세)이 있었고, 2018년 한국에 와서 현재는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신발공장에서 야간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출입국 단속이 있었던 공장이라 야간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난 태국 여성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이크)와 아내 사이에는 지무엘(2008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들은 부모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 농구

도 별도로 배웠습니다. 수학을 잘합니다. 중3이 되고 나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어 새벽 1, 2시까지 공부합니다. 온라인으로 타갈로그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단이 개발된다고 해서 집주인이 기숙사를 5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공단은 개발로 인해 기숙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건설사에서 토지와 건물을 60% 정도 매입한 상태). 최대한 공단 내에서 구고자 하지만 없습니다. 여의찮으면 인근지역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보증금(1,000만 원 이상)과 월세(50만 원 이상)가 너무 높고 미등록 신분으로는 임대계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올해 공단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의 많은 이주노동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기숙사동에는 11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가구만 남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기숙사는 우리 가족이 18년 동안 생활했던 곳입니다.

2018년에는 기숙사 아래 2층 공장에서 불이 나서 아들 지무엘이 급히 대피하던 중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있던 기숙사동은 불이 붙지 않았지만, 2층 공장 내부와 기숙사 앞에 있던 필리핀 기숙사는 전소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늘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당뇨를 앓고 있어서 시내 내과에서 2달 약 처방을 받으면서 15만 원 상당의 의료비와 피검사로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큰 비용을 부담).

아들(지무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족도 필리핀으로 가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돌아가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전에 땅을 팔았지만, 조금 사둔 땅이 있습니다. 쌀, 채소 등 농사하려고 합니다(“나이가 좀 있어 이제 힘들 텐데?”, 마이크는 “사람 구해서 하면 된다.” 다 함께 웃음!!)

필리핀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요일 하루 쉬지만 쉬지도 못하고 필리핀 행사나 필리핀공동체의 대소사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이주노동자 두 명이 암으로 판정받아 필리핀으로 귀국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바자회 및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국적과 상관없이 긴급한 수술로 병원비가 없었던 네팔 이주노동자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을 하여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등록외국인의 신규 미등록 체류 증가는 외국인력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에 있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E로 시작되는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H-2) 외에도 단기취업(C-4), 유학(D-2),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아래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나듯 신규 발생하는 취업 자격의 미등록 체류자 중 D-2(유학생), D-4(어학연수), E-9(비숙련취업) E-10(선원취업), F-6(결혼이민), G-1(인도적), H-2(재외동포방문취업)를 살펴보더라도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등록 체류자 중 매년 3만 명 이상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만 보더라도 비숙련취업(E-9)과 E-10(선원취업)에서 1만 명 이상이 미등록 체류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신규 도입 규모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외국인력의 수요에 따른 공급에만 치중함으로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학생(D-2)과 어학연수(D-4)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등록 체류자가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급인력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유학생(D-2)과 어학연수(D-4)를 받았지만, 이와는 무색하게 실제로 대학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이탈률이 높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G-1(인도적)에서 5천 명 이상, H-2(재외동포방문취업) 1천5백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중에 상당수가 미등록 체류자로 전환되면서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공급과 수요에만 치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에 따른 원활한 선순환 체계와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신규 미등록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23,010	26,178	28,108	27,583	33,181	34,682	31,926
D-2(유학생)	419	520	940	2,063	3,001	3,103	3,809
D-4(어학연수)	1,630	3,426	7,012	8,759	6,263	3,490	2,906
E-9(비숙련취업)	10,786	9,455	9,494	8,025	7,875	9,295	9,804
E-10(선원취업)	1,239	1,355	1,280	1,127	1,019	1,630	2,068
F-6(결혼이민)	1,433	1,334	1,161	923	1,336	1,204	1.136
G-1(인도적)	2,277	4,608	3,449	2,700	3,657	5,297	3,079
H-2(동포방문취업)	1,341	1,267	1,189	1,005	2,188	1,833	1,546

※ 위 표의 "F-6"는 F-6-1~F-6-3 및 F-2-1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며, G-1(기타)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단기(B-1, B-2, C-3) 등의 자격에서 난민신청, 체불임금 중재, 산재보상 등의 목적으로 변경한 자격임.

VERGIE M. DIMAILIG (여:JAN. 24. 1979) / JESSIE B TUAZON (남:OCT. 24. 1972)
알리아 소위 부모 (필리핀)

한 공장에서 만나 가정을 이룬 이주노동자
10년 후에 갖기로 한 소중한 딸을 얻은
오랜 용접으로 시야를 잃어가지만

저(제시)는 대만에서 3년 동안 이주노동(백화점에서 포장하는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버지(아내)는 필리핀에서 일이 찾지 못하던 중에 TV에서 고용허가제 광고를 보고 한국에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제시)는 2005년 12월, 버지(아내)는 2006년 3월 15일에 합법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였습니다. 처음에 저와 아내는 수원의 사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하고 일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님은 화를 내고, 불량이 나오면 월급에서 공제하여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주었습니다. 작업은 주야간 막 교대로 12시간 일했습니다. 부당한 노동조건(월급, 노동시간 등)과 모욕적인 인격 대우로 인해 결국에는 6개월만 일하고 저와 아내는 함께 공장에서 나왔습니다(공장에서 일하던 6명 모두 공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공장을 나온 후 필리핀 다른 분에게 소개받고 부천, 천안, 인천으로 다니며 일했습니다. 부천에 있었을 때는 기숙사에 출입국 직원이 기숙사 문을 부수며 단속하고 있었는데 함께 도망 나왔습니다. 단속 이후 두려워서 기숙사로 돌아갈 수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으로 알고 지내던 필리핀 친구가 소개해 주어 마석가구공단에 온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용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 지금은 눈이 매우 아픕니다. 시력도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안경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에 가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월급은 처음에 110만 원에서 현재는 24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신발공장에서 7개월 일했었고, 이후 액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아내는 현재 20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까지 주 5일 일했고, 지금은 토요일도 일하는데 수당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는 40만 원(월세 19만 원, 전기 및 수도, LPG 포함)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첫 공장에서 함께 나온 후 동거했고, 10년 지나서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딸 소위(현재 7살)를 늦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석가구공단에 계속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딸 소위를 출산하고, 돌봐 줄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의 무지개보육실이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가정적이라서 소위를 돌봐주고, 가정의 일(요리, 빨래 등)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월급)는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은 한국의 도덕의식을 높은 평가를 합니다. 음식점에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한참 후에 가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필리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딸 소위는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의사 표현도 잘합니다. 자신의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린 소위는 저와 아내가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저와 아내의 소원은 소위가 한국에서 더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비자가 생기면 가족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의 부모님에게 딸 소위를 보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족이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는 날을 손꼽아 기대해 봅니다.

파티마 (필리핀)

이주노동으로 이산가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공장의 주변 환경(화학 염료 등)으로 알레르기와 감기
“나는 남자예요.” 씩씩하고 당찬 여성 이주노동자

파티마(1979년생)는 남편 리키(1977년생)와 대학교에서 만나 2,000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들을 2명(2001년, 2002년) 출산했습니다. 2004년~2007년까지 중국에 있는 음식점(빠)에서 남편은 바텐더로 일하고, 파티마는 서빙 일했습니다. 월급은 600달러를 받았고, 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고 필리핀으로 돌아왔고, 2008년에 한국에 있던 남편의 친척이 마석가구공단을 소개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깨끗한 곳에서 일했는데, 마석가구공단에서는 일하는 공장은 먼지도 많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처음에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파티마와 리키는 4개월 전부터 한 가구 판매장에서 일하는데 남편은 가구 배달을 하면서 200~240만 원, 저(파티마)는 매장의 창고정리 등을 하면서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장 사장님이 저에게 가구 판매도 해 보라고 제안해서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도 매 주일에 나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사장님의 배려로 사장님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무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공단에 있는 일가친척과 지인이 있는 기숙사에 옵니다. 함께 어울려 음식과 대화를 나누고 파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호평동에 있는 시네마에 가고, 넷플릭스에서 영어 자막이 나오는 한국 드라마(펜트하우스 등)를 즐겨 봅니다. 한국 배우 중에는 탤런트 이민우, 현빈 등 좋아하고, 연아는 방탄소년단 (BTS) 좋아합니다.

딸 연아(2010년)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주변 환경(컨테이너 기숙사)이 좋지 않아 알레르기 및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치킨을 좋아하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조금 먹고 있습니다. 연아는 짜장면, 갈비탕, 해장국, 감자탕 등 필리핀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는 해장국, 짬뽕, 삼겹살에 소주를 좋아합니다(웃음!!!). 연아의 장래 희망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연아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지개보육실에서 성장하여 지금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필리핀에 시어머니에게 맡겨 두었던 아들 2명은 2016년에 한국에 1달간 머물면서 온 가족이 잠시나마 함께 모였었습니다. 두 아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매들이었지만 어색함 없이 잘 지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아는 오빠들이 또 언제 오냐고 묻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큰아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고 지금도 아들들의 학비와 생계비를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리키)는 10명의 형제 중 둘째입니다. 저는 2녀 중 장녀이며,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관광 숙소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인터뷰하고 불과 며칠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구 판매장이나 필리핀식당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당뇨, 혈압이 있어 많이 힘들어하고, 연아도 사춘기라 요즘 민감합니다(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웃음!). 한국에서 일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에서 계속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아가 태어난 지 7개월 때 구두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한국 아줌마와 필리핀 친구가 다투었는데, 한국 아줌마가 출입국에 신고해서 일하던 10명(파티마 포함)이 단속되었습니다. 연아가 있어 일시보호 해제를 통해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일하던 공장에 출입국 단속이 나왔었고 그때는 공장 창문을 통해 도망했습니다. 또한, 4년 전에는 12명이 거주하던 기숙사(판넬 형식으로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6~7평 규모의 기숙사)에서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살림 도구가 모두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서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은 파티마가 제일 일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파티마는 “나는 남자예요.”하고 말합니다. 다 함께 웃음!!!). 내일이면 또 다른 해가 떠오른다는 희망을 품고….

연아(현재 중1)는 법무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늘 항상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번도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나라를 가 보지도 못했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오빠들도 만날 수 있어 좋아합니다. 올해 연아가 방학하게 되면 필리핀에 가려고 합니다.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의 묘소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보라카이로 가족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니, “다음에는 비싸요!” 다 함께 웃음!!!)

다시마 아빠 (방글라데시)

IMF 때가 힘들었고, 지금은 E마트가 있지만 그때는 밭이었요.
초기에는 서로 돕고 친하게 진했는데, 세월이 변해
한국인 식당 아주머니에게 곗돈을 사기당함

1994년도에 마석가구공단에 왔는데, IMF 때 어려움이 많아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습니다. IMF 때 많은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이 없다 보니 생활도 기숙사비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호평동에 있는 밭에서도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E마트와 아파트가 있지만 그때는 그냥 거름, 비닐하우스가 있는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IMF로 돈을 벌 수 없어 방글라데시로 다시 돌아갔지만, 1999년에 브로커를 통해 4,000달러 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퇴직하셨습니다. 형제는 형 2명, 누나 1명, 남동생 1명, 여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이주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에 한시적 합법화 조치(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로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5년 미만자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를 통해 다시 1개월 동안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결혼을 하고 1년 비자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조금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는 경찰이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여권 위조 협의로 단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기숙사의 창틀을 뜯고 들어가 이주여성을 단속). 아내도 그때 단속되어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가, 2009년에 다시 브로커를 통해 1,000만 원 넘게 주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0년에 딸(다시마)을 출산했습니다. 아내는 임신해서 딸과 함께 2016년에 방글라데시로 들어갔습니다.

1994년도에는 마석가구공단에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1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1999년에 왔을 때는 마석가구공단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많이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공장에도 활기가 넘쳤고, 일할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공장도 많아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단에는 모두가 미등록이주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합법과 미등록으로 나누어지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 단속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공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공단에서 방글라데시 자카리아가 아픈데 병원

에 가지 못하고, 단속이 두려워 기숙사에서 심장마비로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지키지 못했던 날을 채우려고, 금식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던 친구였습니다. 방글라데시 행사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재미있는 유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친구를 잃어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사람이 좋았습니다. 청량리 갔다가 버스 타고 오면서 서로 인사하고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 집으로 오고 가면서 함께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함께 모여 음식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기숙사에 모여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IMF 때처럼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7년 만에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나이도 많고 열심히 일해 방글라데시에 2층 건물도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마석가구공단이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비부씨가 센터에 최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거래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아주머니가 계를 들면 나중에 목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를 믿고 곗돈을 3년 동안 1,500만 원 정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주머니는 식당에서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 돌아가서 작은 가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희망마저 한국에 놓고 2023년 1월 26일에 비부씨는 방글라데시로 떠났습니다.

로즈 (필리핀)

한국에 필리핀 산업연수생으로 첫발을 디든 1991년 12월 15일 오후 5시 40분 도착
흐릿한 조명 아래 소음 나는 기계 소리 앞에 밤새 작업을 했던 고단 이주여성 노동자의 여정의 끝자락

로즈는 1991년 12월 15일 오후 5시 40분에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선발된 6명과 함께 산업연수생으로 김포공항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필리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친구의 소개로 송출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한국의 산업연수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3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을 2회 일하고 6개월 연장하는 형태로 일하고, 원하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일한 곳은 방직공장이었습니다. 주야간 교대로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습니다. 1개월 일하고 사장님에게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영어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장님의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 결국은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항공권을 준비해서 공항으로 가서 출국하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가기 전에 자신을 꼭 만나고 가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한국에 왔는데 그냥 가지 말고, 자신이 좋은 사업장을 소개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는데 공항 안내 방송에서 저의 이름과 탑승을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많은 갈등 속에 친구를 서울역서 만나, 친구의 사촌을 통해 혜화동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을 소개받고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의 결정으로 이제 3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필리핀 여자만 있어 안심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일할 때 송출업체에서 알게 되어, 다시 친구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에 있는 돼지농장을 소개해 주어 일했습니다. 사육하는 돼지가 많아 매일 같이 출산하는 새끼 돼지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10~12마리씩 새끼를 낳는데 출산 시간을 확인하여 출산하면 탯줄을 정리해 주고, 새끼의 꼬리와 송곳니를 자르는 일 등을 했습니다. 아픈 새끼돼지는 인큐베이터에 넣어 돌보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한 달에 이틀만 쉬면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돼지농장에서 일했고, 이후 친구의 소개로 하남에 있는 종이컵 공장, 구리시의 가방공장에서 1년 정도 일했습니다. IMF로 인해 가방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다음으로 마석으로 와서 17년이 되었습니다. 마석에서도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2년 정도 일하다가 유치원보다는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월급이 더 많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보다 특별한 기술이 없

어 가구공장에서 사출 공장에서 야간에 혼자 일하는 일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동안 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에 일하던 신발공장 사장님에게 부탁을 드려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월급은 145만 원입니다. 혈압이 있어 7~8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있으며, 오늘 무료 진료받았는데 당뇨도 있다고 해서 처방받았습니다.

로즈씨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결혼하였지만 혼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조금 늦은 나이 30세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IMF 때는 젊기도 해서 견딜 만했지만, 코로나19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나이도 많아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식당에서 1달에서 3달 정도 2군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거지,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1시간에 만 원을 받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13년 1월 7일(토) 울면서 다급하게 로즈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일러가 터져서 기숙사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 밤새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기숙사에 가서 필요한 옷가지를 챙겨서 센터 쉼터로 왔습니다. 그 후, 알게 된 이야기는 7년 동안 기숙사 생활했는데, 3년 전부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왜 다른 기숙사로 옮기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로즈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장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분노에 찬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즈씨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필리핀에 돌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로즈씨를 만난 것은 2013년 흐릿한 조명 아래 소음 소리가 나는 작은 기계 앞에서 야간에 밤새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애처로운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로즈씨 역시를 그날의 방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오후 10시 50분에 로즈씨는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올 때 언니와 오빠가 있었지만, 두 분 모두 돌아가셔서 필리핀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합니다. 필리핀 한적한 고향 마을 바닷가로 돌아가서 잠시나마 쉬고 싶다고 합니다. 고향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을 거닐며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고 싶어 합니다. 이주여성 노동자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30여 년의 이주여성노동자 로즈씨.

이주여성노동자 췌장암 판정을 받고 함께 필리핀으로 귀국

알롬 (방글라데시)

원단 판배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하고 이주노동을 하게 됨
오너에서 이주노동자가 되었지만, 내일을 희망을 향해
휴일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이 유일한 낙

알롬은 1979년 5월 20일생으로 2008년에 결혼하여 딸 2명(8세, 6세)을 두고 있습니다. 알롬씨는 2016년 2월에 관광비자로 브로커에게 1,700만 원을 주고 한국에 왔습니다. 브로커 비용을 빌려서 왔지만,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원단 판매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중국에서 원단이 오지 않고 시멘트가 와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 명이 돈을 모아 중국과 계약을 맺고 한 사업이었는데, 사기를 당해 3~4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저 역시 8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은행에도 빚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신고하여 중국에서 사기범을 잡아 사기범은 12년 형을 받았지만, 결국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으로부터 핸드폰도 많이 수입해서 들어오지만, 몇 번은 잘 들어오다가, 많은 돈을 요구한 후 많은 돈을 보내 주면 사라져 버리는 수법으로 사기를 당합니다.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빚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은행 빚과 브로커 비용을 갚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아내도 가지고 있던 금(결혼할 때 받은 패물)을 내놓아 은행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입는 것 없이 악착같이 노력해서 겨우 갚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안양에 있다가 인천에서 1주일을 지낸 후 친구의 소개로 마석가구공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처음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금으로는 200만 원 정도 보내고, 두 명이 방 2개로 30만 원 월세를 내고 나머지 20만 원 정도로 최소한의 적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2017~2018년 동안에는 조금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2019년에 다리가 부러져 다쳤습니다. 가구를 옮기다가 발 위로 물건이 떨어지면서 다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4개월 정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통증이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병원비와 방세, 생활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2022년 8월 말에 또 불행하게도 발목 부위가 골절되어 수술받았습니다. 병원비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빌렸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통증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있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다쳐 6개월 동안 방글라데시에 송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구공장에서는 샌다기, 도색 등을 했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한국 식당에서 먹는데 처음부터 김치도 쉽게 먹었고, 한국 음식은 잘 먹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다른 나라에 가기 쉽지 않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태국, 중국 등을 다녀본 경험이 있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친구들에게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국가로 소개받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사업이 잘되어 가다가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생각은 매일매일 떠오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주인 역할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니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날에 대한 과오를 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잘 견디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힘든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욕할 때가 가장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족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오늘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야근 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까지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편도염으로 앓기도 하고, 감기로 많이 고생했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 참고 일하며 견디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돌아갈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보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빚은 갚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고 돈을 모을 수 없어 생활은 더 힘들고 지쳤지만, 방글라데시에 있는 자녀들과 영상 통화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방글라데시에 다시 가면 전기, 원단 제품 사업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휴일에는 5명 정도의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탑니다. 춘천, 양평까지 5시간 거리를 갑니다. 자전거 길로 서울까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모든 것을 날려 버리고,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내 월급만은 돌려주세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9년 1,216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측면도 있지만,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3D업종의 영세사업체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의 원활치 않은 자금 융통과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신분상의 취약성으로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업장에서 판매 대금이 회전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과다한 송출 비용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소해야 하는 의욕이 있고, 송금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을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연장 노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부정확한 근로 시간, 부당한 비용공제, 정기 불원칙 임금 지급 등에 모든 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산정조차 해놓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제출했을 때도 사업주와 미등록이주노동자 간에 견해 차이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불리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땀 흘린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스탑크랙다운(다국적 밴드)의 '월급날'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월급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 한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돌려준데요
나의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 이제는 나의 손으로 행복하게 해줄게요.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사모님 내 월급을 주세요.
나의 꿈과 희망이 담긴 조그맣고 소중한 내 월급 (이하 생략)

연도	신고건수 (근로자수)	금 액 (백만)	지 도 해 결		사 법 처 리		처 리 중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액
2016	11,759	68,685	6,805	29,547	4,459	35,140	495	3,997
년	21,482		10,661		9,687		1,134	
2017	14,656	78,370	9,469	39,387	4,610	35,044	577	3,939
년	23,885		13,790		9,031		1,064	
2018	16,951	97,227	10,569	45,830	5,780	45,548	602	5,849
년	28,021		15,253		11,327		1,441	
2019	18,988	121,682	11,821	58,932	6,718	58,612	449	4,138
년	31,904		17,131		13,810		963	
2020	18,721	128,771	11,979	67,816	6,335	57,562	407	3,393
년	31,998		18,300		12,864		834	
2021	17,214	118,351	11,539	67,838	5,404	47,056	271	3,457
년	29,376		18,126		10,655		595	
2022	16,075	122,324	11,734	76,700	4,140	42,936	201	2,688
년	28,030		18,662		8,808		560	

고용노동부

알리 (방글라데시)

힘들었던 순간들을 나름의 젊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며 한국말을 배우게 됨
여러 번의 단속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버티어 옴

알리 (까우살)씨는 1985년 3월 2일생(현재 37살)으로 2000년(입국 당시 16세)에 여행 비자로 브로커에게 600만 원을 주고 한국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이셨지만 1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6명의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힘이 드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누나가 도움을 주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매형 동생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형 동생 집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마석가구공단에 온 지는 5년 되었습니다.

주로 화성시 정남면 병점에서 택시로 1만 원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만 10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사람 3명, 한국 사람, 7명이 일했는데, 나중에는 3명만 남았습니다(핸드폰 부품공장들이 베트남, 중국으로 빠져나가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장 일을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오후 7시에서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혼자 야간에만 일했습니다. 혼자 도맡아서 일을 다 해야 하고, 너무 많이 힘들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참고 참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년을 일 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 안산에 있는 친구 소개로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하여 2,000만 원 넘게 받아야 하는데, 결국은 사장님과의 오랜 인연과 퇴직금을 줄 의사가 없어 보여서 사장님과 대화로 800만 원 받고 종결했습니다. 노무사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 넘게 주었습니다. 그 후 수원과 오산에 있는 플라스틱(3년), 비누(3년)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오산, 수원여자대학 앞에서 일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마석가구단지로 온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상봉역 부근에서 2년 동안 다녔고, 현재는 남양주시 읍사무소 옆에 300만 원에 30만 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있을 때 너무 힘들게 생활해서 나만의 생활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는 일하는데 인테리어 일합니다. 이제는 기성 가구 만드는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가구들이 들어와서 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쪽으로 더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공장에서 도장 일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처음 270만 원에서 2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해

져서 금방 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 와서 가구 일은 처음이었지만, 한국어를 잘하다 보니 일도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장장님도 제가 몇 년은 넘어야 배울 수 있는 일을 빨리 배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말도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은 10년 동안 일했던 곳이 전부 한국 사람이었고, 저만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안 배우려고 해도 한국말을 안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면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지금 본 드라마 중에 '천국의 계단' 드라마를 가장 좋아합니다(지금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함께 웃음!!!).

처음에 어린 나이에 와서 엄마가 보고 싶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누나들도 결혼하고 살만하다 보니, 지금은 방글라데시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라고 해도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10, 20, 30대를 한국에서 보냈고 이곳이 좋습니다. 공장에서 혼자 일하면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만 재밌게 살려고 했습니다. 10대 젊은 나이에 왔기에 홍대, 강남, 이태원 클럽에도 간혹 친구들과 가기도 했고, 혼자서도 갔다가 새벽에 오기도 했습니다. 술 먹고 춤추는 것보다는 클럽의 분위기가 좋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젊은 만큼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체류 비자(신분증)가 없어서 친구가 들어가고 다시 받아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비자만 있으면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자 친구를 몇 명 만난 적도 있었고, 좋은 형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클럽에는 갈 수도 없고 나이도 있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단의 형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헬스를 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헬스는 10개월에 38만 원입니다. 활동하기를 좋아해서 여행도 좋아하는데, 제주도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에 핸드폰 없던 때는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 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보느라고 보지 못합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방글라데시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집 안에 있으려고만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의 생각과 의식도 많이 달라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서 일자리 찾기 그룹에 있고,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가족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옛날 학교 친구들과도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방글라데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부모님과 연락하려면 동네 시장에 국제전화가 가능한 상점이 있어 하루 전에 약속을 미리 해 놓아야 전화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전화 카드를 사용하여 1~1만5천 원으로 200분 정도 통화했었습니다.

내년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1달 전)에 부모님의 소개로 화상결혼식(부인은 98년생)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낯설지만, 점점 적응하고 있습니다("마음에 드냐?"라고 물으니,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라고 해서 함께 웃음!). 아직 여성

을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좀 서툰 면이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화상 통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아는 여성이었는지?" 물음에 "아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태어난 것 같다." 함께 웃음!!!). 제가 방글라데시로 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화상결혼식이라도 해서 빨리 오도록 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일이 없어서 베트남 3명, 한국 사람 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시행된다고 다 보내고, 일이 있을 때만 아르바이트로 한국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단속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 일은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먼저, 기계 50대의 작동 여부 상태와 불량품을 검사하는 데 보통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또한, 생전 처음으로 일한 지 1시간 만에 배고파서 공장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있는 개가 짖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문을 열고 보니, 회사 문 앞에 이상한 버스가 있었고 "잡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한 명이 단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식당의 테이블 밑에 숨었습니다. 출입국 직원 한 사람이 식당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등불을 켜려고 했는데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스위치는 고장이 나 있었고 우리만 알고 있는 곳에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하고 출입국 직원이 그냥 갔습니다. 10분 늦었어도 단속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천안역에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단 쪽에서 출입국이 올라온다는 소리가 났고, 중국 교포들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소리를 듣고 뛰었습니다. 아마 계단에 계속 앉아 있었으면 단속되었습니다. 화성시 병점에서도 일하고 있었는데, 1, 2층은 이미 출입국 직원에 의해 단속이 되고 있었고, 저는 3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 직원이 빨리 기계에 숨으로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 기계 안에 숨어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6형제(형 1명, 누나 3명, 여동생 1명)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7,0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매형이 하는 의류 사업을 같이하려고 합니다.

물리적 수단인 강제 추방만이 해법인가!

1991년~2023년(현재)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현재)는 50여 회가 넘게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연 2회 합동단속이 진행되었고, 2004년에도 연 5회 걸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영세업체 밀집 지역, 유흥업소 주변, 밀입국자 등의 미등록이주노동자였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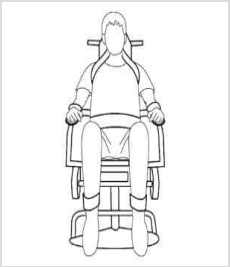
자진신고와 자진 출국에 대해서도 40여 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체류 연장과 사업주의 처벌을 면제해준 적이 2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2년 6월부터 1994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시행한 배경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을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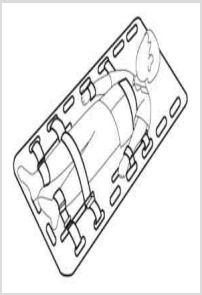
1992년에 1차:6월 10일부터 7월 31일, 2차:12월 31일까지, 3차:1993년 6월 30일까지, 4차:199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신고한 고용주는 10,796명이었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61,126명입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 역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축소하기보다는 산업연수생의 편법적인 활용으로 산업연수생의 50% 이상이 사업장을 이탈함으로써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체류를 주게 되었습니다.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미만 미등록 체류한 22만 7천여 명에 대해 국내 취업 자격을 부여하였고, 4년 이상 미등록 체류한 8만 6천여 명에 대해서는 귀국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 한 예입니다.

두 차례의 체류 연장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임시 방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 함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의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면제, 미등록 체류자의 범칙금 면제, 재입국 허용 등 계속 시행하였지만, 이 역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감소하는 한시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물리적인 강압 수단에 의한 단속과 추방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2월 11일 있었던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로 10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던 참사입니다.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 내에서 쇠창살에 갇혀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구금된 미등록이주노동자





(2022.5.25. 외국인보호규칙의 입법개정령 추진 중 논란으로 철회)

△수갑 3종(양손, 일회용, 한 손) △포승 2종(벨트형, 조끼형)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2종(양 발목, 한 발목) △보호대 2종(금속, 벨트)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대 등 13가지 장비가 추가될 예정

들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노동행위가 해소되지 않아 장기 구금 상태에 놓여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로코 국적의 한 이주자는 난민 신청을 위해 2017년에 입국하였으나, 체류 기간 연장을 놓쳐 지난 2021년 4월에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4개월 기간의 1/3 이상을 징벌적 독방 생활을 하면서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불법적인 장비로 가혹 행위에 시달렸고, 장기간 손발이 등 뒤로 묶이는 일명 ‘새우꺾기’라는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수단인 단속과 강제 추방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 추방정책은 깊은 수렁으로 빠지면서 국가 이미지도 손상되었고, 인권 침해로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부상과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강제·추방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속한 외국인을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소는 형벌이 아닌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자체는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감옥)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외국인보호소는 국제인권 기준에 준하는 ‘비구금화원칙’을 준수하고,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구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호’에 걸맞게 밀폐형 구금시설이 아닌 개방형 생활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장기 구금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2020헌가1)을 내렸습니다.

1.과잉금지원칙 위반 관련 판단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

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 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함에 있어 그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는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적법절차 위반 관련 판단

"행정절차상 강제처부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루시 (필리핀)

1996년부터 28년간 성생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
2003년 한국에서 결혼하고 대학생 자녀 길러내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건강하게 생활

루시씨는 1963년 7월 6일(60세)생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종이 제조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사장은 대만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는 관리직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고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에는 1996년 11월 6일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처음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구미의 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34만 원에 연금을 공제하면 3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공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도 먼저 1995년에 산업연수생 비자로 부산에 왔다가 1년 후에 마석가구공단에 있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같이 기숙사에 있다가 IMF 때 동생은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IMF 때에 일주일에 1일~2일 정도밖에 일하지 못했고, 1일 1만5천 원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달걀과 라면 정도 먹으면서 겨우겨우 지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자식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IMF 이후 30만 원씩 필리핀으로 송금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방문비자로 한국에 와서 현재 아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딸은 2015년에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2003년까지 한국에서 8년 동안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마석가구공단 침대공장에서 일할 때 필리핀 나이 드신 분과 같이 생활했는데, 혹시 “한국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하고 묻길래 그냥 농담으로 “그럼 좋지요.”라고 했습니다. 이후 나이 드신 필리핀 분이 제 사진을 사장님에게 건네주었고, 사장님이 아시는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시 소개받은 분은 영어를 할 줄 몰라 인사말 정도였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조금 배웠고 읽기, 듣기는 드라마로 배웠지만 익숙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에 소개받은 지금의 남편이 빨리 일을 끝내고 나오라고 해서 일을 마치고 나오니 자동차를 준비해서 어디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3~4시간쯤 걸려 갔는데 신랑의 고향인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신랑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눈 후 큰형님이 2003년 당시 정부의 합동단속이 심해서 미등록으로 체류는 위험하니, 먼저 필리핀으로 들어가면 남편이 필리핀으로 들어

가서 합법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에 저 먼저 필리핀으로 갔고, 이후 남편이 들어와서 결혼식을 하고 한 달 후 비자가 나와 한국에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결혼은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 정도 소득만 확인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결혼 자격에 한국어 능력 1급이 및 면접 등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들어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을 따기 전에는 남편이 일하면서 6개월씩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이후 2006년에 서류를 준비해서 5월 6일에 국적을 받았습니다.

집은 인천시 갈산동에 집에 있었고, 자녀인 효민이는 2004년 12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해 왔는데 집에만 있는 것이 불편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5년 3월에 마석가구공단으로 돌아와서 일했습니다. 아들은 기숙사 근처 근로자 여성센터에 맡기고 1년간 일했습니다. 남편은 인천에서 마석까지 1주일에 한 번씩 오가며 지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건설에서 일하는 남편의 급여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일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는 처음에 신발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이 잘 안 나왔고, 실 공장 등 다른 공장으로 일터를 옮기며 2013년까지 일했습니다. 신발공장에서는 60만 원을 받았고, 2012년 즈음해서는 다른 가구공장에서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야근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비닐 공장, 마스크 공장, 청소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주로 인력 사무소에서 일을 소개받아서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준비하고 있으면 인력 사무소에서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빌라 벽 청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하남 마스크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며 일당 8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호평동에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차량을 하루에 5,000원씩 내고 카풀로 함께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힘들었던 일은 가구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공장에 먼지가 너무 많았고. 점심 먹을 때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빨리빨리' 일하라 했을 때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몸에 땀이 가득했으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힘들었습니다. 야간근무가 있으면 11~12시까지 일했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60살이 넘어가면서 공장에서 일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공장 사장님한테 아직 힘이 있고 나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어필(appeal)해 봐도 사장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는 필리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가며 물건을 가져 와 장사하고 있습니다. 남동생의 아내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큰 박스(box)는 배로 옮기고, 60kg의 짐은 항공으로 직접 옮깁니다. 아직은 수입이 조금입니다.

이번(2023년) 5월에는 가정부로 미국으로 일하는 것도 계획 중입니다. 한국 여권으로 인터뷰를 신청했고, 미국에 필리핀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가정부 일을 구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3개월씩 두 번 갈 계획입니다. 아들 효민이의 대학교 학비 및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서 아직 수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는 2021년까지 살았고 2022년에는 근처 천마산 묵현리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인천에 집이 있고, 효민이는 올해 대학을 갔고 남양주 집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7월달에 한 달 정도 필리핀을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요리, 청소, 아르바이트도 잘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비타민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서 쉬는 날이면 병원에 자주 다닙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베트남)

2014년 입국해 9년간 성실하게 한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해
미등록 신분인 아내와 함께 살며 출생한 딸은 베트남에 보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준비하고 주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

따오반 타이씨는 2014년 8월 4일 한국에 왔습니다. 1992년생인 타이씨는 23살에 한국에 들어와 어느덧 32살이 되었습니다. E-9 비자로 들어왔고 지금도 E-9 비자인데 코로나로 인해 비자가 1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처음 4년 8개월이 끝난 뒤 성실 근로(4년 개월 동안 사업장이동이 없이 한 공장에서 일한 이주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의 자격으로 다시 한국에 재취업 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 기계 프레스, 전기, 용접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월급이 많지 않았고, 어머니께 받은 월급을 다 드렸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25만 원 안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국의 고용허가제 제도(EPS)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EPS에 등록해서 한국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아들도 2006년에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휴대전화가 없어서 사촌과 자주 연락 못했고, 사촌은 일이 끝나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2살 어린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베트남에 갔고, 그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친구와 약혼했습니다. 아내는 2017년에 한국에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처음 2년간 유학생 비자로 있었고, 현재는 미등록 상태로 수동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가족과 친척이 없기에 아직 결혼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2019년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1년 후, 2020년에 딸을 베트남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출산할 때 수술했는데 300만 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

니다. 그때 월급을 받고 남은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딸은 지금 베트남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진 출국 기간에 여행사를 통해 200만 원 비용(항공료와 동반)을 들여 딸을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아내와 둘만 있습니다. 딸은 현재 4살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갔다 왔지만 아내는 미등록 신분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 두 분이 암으로 병환 중에 있어 그동안 치료비를 보내야 해야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어머니가, 2017년에 아버지가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 왔고, 딸을 맡아서 키워주는 장모님 댁에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2021년까지 5천만 원 정도를 모아 베트남 다낭지역에 땅을 사두었습니다. 아직 집은 못 지었고 집을 마련하려면 7천만 원의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장은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한 공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9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끔 눈이 아프지만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 사람 7명, 외국 사람은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3명은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공장을 오래 다닌 캄보디아 직원 한 명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준비해서 4월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장은 용접, 도장 등 힘든 일이 많아서 아내가 일하기 힘들고 대신 꽃을 포장하는 할 때 쓰는 끈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장 기숙사가 아닌 다가구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는 33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스(LPG)요금까지 더해 3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공장의 일은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월급은 기본급 109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200여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숙식비 3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잘 받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점심을 제공해 줍니다. 한국 음식은 김치가 많이 나오는데 김치찌개도 잘 먹습니다.

현재 비자는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꾸기 위해 일요일마다 복지센터에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비자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또한, 평일에 공장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아르바이트 일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 근처에서 집주인이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상추와 고추 심는 아르바이트 일 했습니

다. 일당은 9만 원입니다. 일이 바쁘면 일찍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10시쯤 나갔습니다. 명절 때에도 집주인이 농장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는 토요일도 출근해야 해서 농장 아르바이트 일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토요일만 농장에서 일하고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없이 힘이 들지만, 가족의 행복한 앞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3명이 있습니다.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모두 결혼했습니다. 여동생은 결혼해서 아이가 3명인데, 2019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여동생은 시어머니와 함께 자녀를 키우고 있고 식당일, 사무실 잡일 등 여러 가지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자녀들을 위해 학비와 생활비로 1년에 세 번 3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돈은 아내가 관리하고 용돈을 받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주로 아내에게 경제권이 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는 하지는 않습니다. E-7-4 비자를 받게 되면 아내의 거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출국 기간 때 아내가 베트남으로 돌아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유학생 비자 신분일 때는 남산과 남이섬 등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행을 다니기보다는 휴가나 명절 기간에도 일만 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바뀌면서 성격상 내성적이기도 해서 여행 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무서워해합니다. 빨리 체류 허가받아 자유롭게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개편에 대한 문제점

아래는 2004년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력 제도 고용허가제의 변화입니다. 비숙련・단기・순환이 원칙이었으나, 시행 2004년 3년에서 만료 시점인 2005년에 3년+3년으로, 2009년에는 3년+1년 10개월, 2012년에는 3년+1년 10개월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9년 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처음 설계와는 다르게 비숙련・단기・순환 원칙이 무색하게 붕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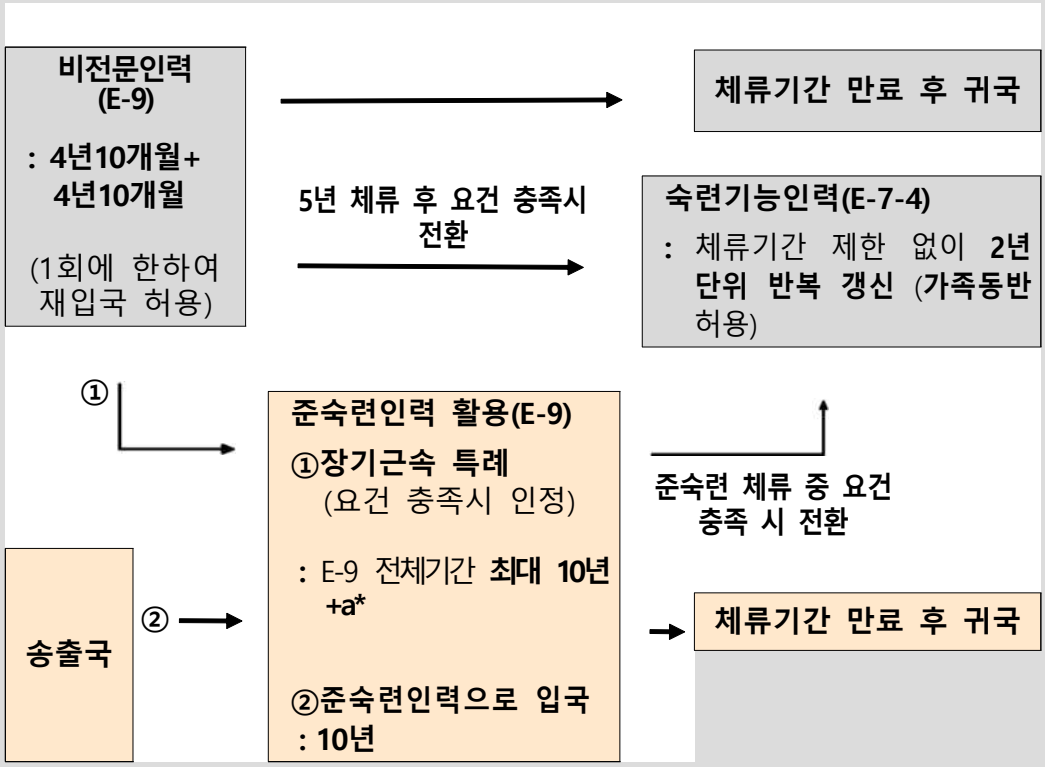
'04.8월	'05.5월	'09.12월	'12.7월 ~
3년	3년+3년 [중간에 1개월	4년 10개월 [3년+1년 10개월]	4년 10개월 + 요건 충족 시 4년 10개월 추가[중간에 3개월 출국]

	출국]		★ 요건: 사업장변경 없이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

고용허가제가 20년이 되어가면서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커졌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022.12.28.)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골자는 장기근속 이주노동자(E-9)와 송출국에서 준숙련인력 요건을 갖춘 이를 우대하여 최대 10년+α 보장하여 준숙련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는 비숙련에서 준숙련 활용과 이에 따른 체류 기간을 확대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노동의 연속성과 이주노동자에 체류를 장기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준숙련인력 활용 운영방안>



하지만 10년+α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α'가 의미는 무엇인가? 체류 기간이 10년을 넘어서도 준 숙련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국적법(제5조)에 따르면 5년 이상 체류 시에 일반귀화 요건이 되는데, 왜 여전히 준숙련인력으로 남아야 하는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는 10년+α이지만, 송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10년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은 영주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력만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현행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가족의 결합

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장기간 외국인력을 활용하면서 가족의 결합권을 간과하는 것은 더욱 퇴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E-7-4)의 경우 4년 체류 후 자격요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가 제안하는 준숙련 인력보다 더 좋은 노동환경과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도 허용이 됩니다. 지름길인 숙련기능인력(E-7-4)을 두고 왜 고용노동부는 굳이 준숙련인력을 설정했을까? 오히려 현행의 고용허가제(E-9)의 4년 10개월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까다로운 요건(점수제)을 대폭 완화하여 연계하는 방안이 더 타당합니다.

다른 하나의 의문은 고용허가제 4년 10개월 취업 활동 이후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적용 요건을 충족할 시 출국 후 1개월 후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로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진 출국한 이주노동자가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6개월) 후 특별한국어시험제도로 재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특례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제도가 중첩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준숙련인력 제도까지 더해지면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경로가 다양하고 개방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겠지만 혼재된 외국인력 제도가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조건도 없이 고용허가제 개편의 10+α와 같이 준숙련 인력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체류 기간만 확대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더 장기화할 여지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가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재고용 제도인 취업특례제도, 특별한국어시험제도, 준숙련인력제도 등 '용어' 자체만 변용되었을 뿐 모두 외국인력을 비숙련 '기간제 비정규직'에 근거하여 체류 기간만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력 정책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체류 기간 확대에만 치중하여 '덧씌우기' 정책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외국인력 제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외국인력 정책이 비숙련제도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탈피하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력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라 (필리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숙련 인력이 됨
가구 매장과 공장일을 겸해서 할 정도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식당을 하고 싶어요

아이라(1972년 1월 22일생)는 2002년 10월 22일에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필리핀에서 함께 온 3명과 태국 미등록 10명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공장에서 3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때 60만 원 받았습니다. 3년 후에는 함께 일한 한국분의 소개로 미등록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공장이 있는 울산에서 3년, 김포에서 2년 일을 했습니다. 김포는 4층 규모에 건물에서 500명 정도가 새벽부터 일을 했습니다. 저는 8시 30분부터 10시 넘어까지 일했습니다. 연장근로 적용 없이 월급으로 240만 원 받았습니다. 작업은 컨베이어 벨트의 플라스틱, 캔, 병 등을 색깔별로, 제조회사별로 따로 분류했습니다. 분류하는 작업 중에 철 재료 와이어(wire)와 깨진 캔, 병을 다루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 후 2년 동안은 안산에 빌라를 구한 후 일은 군포에 있는 컴퓨터 외관에 도색하는 일을 했습니다. 2008년에 친구 소개로 마석가구공단에 왔는데, 6개월 일하다가 군포에 사장님이 다시 와서 일해 달라고 하면서 기숙사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군포에서 일했지만, 주말마다 마석가구공단에는 왔습니다. 여기에 오면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1년에 마석가구공단으로 와서 지금까지 한 공장에서 일한 지 12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구공장 일을 처음 하면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어와 작업이 수월하지 않았고, 같이 일하는 공장장이 맨날 하는 욕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했고, 살도 빠졌습니다. 공장을 옮기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믿고 일할 사람이 저라면서 월급을 올려 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욕설하던 한국 사람이 공장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저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가끔 나쁜 말 할 때 지금은 사장님에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라 마음이 아파요.”하고 말합니다. 지금은 공장과 가구 판매장을 하는 사장님이 없을 때 저를 믿고, 가구 판매장을 맡기기도 합니다. 손님이 오면 가구 설명도 해 드리고, 필요한 가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장님과 함께 일하지만, 가구공장 일도 저 혼자 가구 제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롱, 옷장, 서랍장 등 다 만들고 있습니다. 가구는 편백 나무로만 만들어 가격도 비쌉니다. 이제는 저도 기술자입니다. 월급은 2011년에는 160만 원, 지금은 2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쌀과 담배 농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깨에 물통을 지고 새벽부터 물을 주었습니다. 형제는 8형제 중에 넷째였습니다. 필리핀에 조그만 땅을 사두었고, 돌아가면 삼겹살이나 닭볶음탕을 하는 한국 식당을 하고 싶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생계 보존을 위한 퇴직금만큼은 손대지 마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료 후에 출국을 대비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이 있고 사망과 질병에 따른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 4대 보험을 외국인 전용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중 퇴직금 대비 출국만기보험은 그동안 외고법에서 퇴직금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와 같이 이주노동자도 '퇴직 후 14일 이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체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1월 28일 외고법 개정을 통해 '출국 이후 14일 이내'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개정된 해당 외고법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 이는 국가가 강제 저금 또는 퇴직금을 압류하는 위법적인 조치이며, 퇴직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계 보전이라는 목적과 기능을 가진 퇴직금의 본질적인 규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체류 중 퇴직한 이주노동자는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없어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수급권(수급시기)을 제한받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수단이 불법체류 의사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합헌 결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결정)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이후 14일 이내'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또 다른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납부 금액이 통상 임금의 8.3%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으로 70~80%가량을 받지만,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출국한 이후라면 사용자에게 청구해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주노동자 역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받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출국만기보험 역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떠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땀 흘려 일하며 귀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끝까지 차별의 끈을 놓지 않는 한국. 이주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마저 끝까지 볼모로 삼는 한국. 이들이 한국을 떠나면서도 마음 편하게 떠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떠날까요! 이주노동자들이 떠나면서 그나마 환하게 웃으며 떠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원반 홉(베트남)

한국에서 일하고 온 분들은 한결같이 “빨리, 빨리” 주의사항
가끔은 주말에 한국분의 소개로 백화점 등에 가구 배달 아르바이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알레르기 눈병으로 건강에 주의하고 있음

원반 홉(1985년 2월 20일생)은 2017년 10월 19일에 살고 있던 동네(하노이) 안내 방송을 듣고, 인터넷(베트남 노동부)을 통해 정보를 얻어 고용허가제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도 한국어 학원이 3개가 있어 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에는 5개 반이 있었고, 우리 반에 40명 정도 있었는데 5명만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학원에서는 한국 결혼비자나 유학생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학원비는 3개월에 15만 원이었고, 지금은 40만 원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하고 온 분들도 만나서 한국에서 일할 때 주의사항도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일하면 불량품이 나오니, 차근히 일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이탈율이 높아 미등록 체류 방지를 위해 베트남 정부에 보증금으로 500만 원 내고 왔습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 베트남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500만 원 받아서 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일도 힘들었지만, 겨울 날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제공한 기숙사를 몇 번이고 이사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장 옆에 기숙사가 있어서 편합니다. 공장은 수동에 있는 소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하나의 작업을 하지만, 저는 소파의 전 작업공정을 알고 있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소파가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서 포장하는 일까지 합니다. 공장에는 20명이 일하는데, 이주노동자는 2명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4년 10개월 일했고, 코로나로 인해 1년을 연장받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연장이 끝납니다. 연장이 끝나면 다시 지금 공장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일이 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30일 중 8일이 휴일인데 4일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고, 4일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23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30만 원이 빠지고 200만 원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분에게 소개받아 백화점 등 택배하는 아르바이트를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8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변에 배달하는데 먼 곳은 새벽 1시가 넘어 올 때도 있습니다.

받은 월급은 2~3개월에 300만 원 정도 송금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아직 집이 없어 월세와 생활비(교육비 등)로 쓰고, 남은 돈은 적금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 자녀 한 명당 2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 부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기름기 많은 음식이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계절(환절기)의 변화 때문인지 알르레기로 눈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동지역에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없지만,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가곡리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을 알게 되어 가끔 만나서 음식도 먹고 친교를 나눕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용접 일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결혼했고 12살, 5살 딸이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에는 2번 갔다 왔습니다. 3년 전에부터는 코로나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형제는 4남매에 막내입니다. 바로 위에 있던 형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일을 했었고, 올해 5월에 다시 특별한국어시험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일하면서 땅은 샀지만, 앞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5년을 더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면 오기 전에 일했던 용접 일을 하려고 합니다.

솔라이만(방글라데시)

한국에 오기 전에 혼자 노력했지만, 브로커는 가능
브로커(송출비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들어와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솔라이만(1984년 생)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4~5일 정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인도를 거쳐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형이 아는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브로커는 비자 받기 전에 한국에서 미등록 체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저 혼자 몇 나라를 더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다녀왔고, 여행 경비로 1,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후, 브로커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한국대사관에 브로커가 준비한 초청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니, 단기 초청(C-3) 비자가 나와 2019년 7월 1일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 혼자서는 되지 않던 비자 발급이 브로커 통해서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방글라데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초청하는 브로커가 있고, 방글라데시에는 한국대사관과 연계된 브로커가 있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면 초청한 사람이 미등록 체류하는 사실을 출입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초청 브로커가 초청자를 사전에 먼저 미등록체류자로 신고하고 책임을 모면합니다.

혼자 다닐 때의 여행 경비는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충당되었지만, 브로커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빚도 졌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브로커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는 비자 발급이 까다롭게 되면서 브로커 비용이 커져 웬만한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기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친구를 통해 마석가구공단에 왔습니다. 2주 동안 있다가 친구가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산 근교에 있는 원단

공장을 소개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단 공장은 12시간 막 교대로 낮에는 11시간, 밤에는 13시간 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천의 염색과 세탁 등의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 20여 명과 이주노동자 10명이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관리직 또는 이주노동자가 하는 일을 감독하면서 3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원단 공장은 주야간으로 근무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오래 일하지 않는 곳입니다.

원단 공장에서 기숙사에서 4명이 생활하면서 기숙사비로 30만 원을 내고 전기 및 가스비는 별도로 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빠짐없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해서 빚부터 먼저 다 갚고, 여행 경비도 다 해결했습니다. 주야간 일도 너무 힘들고 빌린 돈을 갚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주간에만 일하고 싶어서 마석가구공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구 일도 처음이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친구들이 일하는 공장에 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밤에도 친구에게 부탁해서 가구 제작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하루에 12만 원을 받고 일합니다. 코로나 때 와서 코로나 전과 후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정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단이 개발된다고 해서 기숙사를 옮겼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과 공장 트럭을 빌려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2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아내와 9살 큰아들, 5살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5년만 일하다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숙련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

1990년대 초는 이주노동자의 유입 초기 단계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부터 10년 이상이 고착되면서 2020년대에는 20년 이상의 장기체류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이주노동자 역시 본격적인 장기체류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입국 초기 과다한 송출 비용(브로커)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 원인이 있으며, 이후 재화 획득을 위한 기간과 사회·문화적 적응, 기술력의 확보로 임금의 상승 등을 요인으로 장기체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비숙련·단기 순환을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업현장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의사소통 및 기술 인력으로 활용할 가치가 배양되면 출국(3년+1년 10개월)해야 하고, 새로운 신규 이주노동자의 신속한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언어능력과 기술력이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장기 미등록 체류자 추이 통계를 보면 5~10년의 미등록 체류자는 2010년을 기점으로 3만 명대와 10년 초과 미등록 체류자는 2015년대부터 3만 명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미등록 체류 체류자 중에 장기 미등록 체류자는 평균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비숙련 이주노동자가 30만 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지만, 숙련된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6만 명대로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 제도권에 수용하는 양성화 조치와 외국인력 제도의 보완(비숙련에서 숙련으로, 단기순환에서 정주화 이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숙련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동생산성도 높여 한국의 기업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 추이 (단위:명, %)

	5~10년(A)	10년 초과(B)	(A+B)/전체 미등록 체류자 수
2005	49,106	8,969	28.5
2006	37,083	14,849	24.7
2007	26,967	20,692	21.5
2008	25,467	20,787	23.1
2009	28,860	24,307	29.9
2010	34,367	26,526	36.1
2011	36,333	22,686	35.2
2012	39,174	22,068	34.4
2013	39,488	23,812	34.6
2014	35,937	27,938	30.6
2015	30,575	31,935	29.2
2016	26,508	27,560	25.9
2017	31,762	28,717	24.1
2018	33,822	29,784	17.9
2019	44,368	30,362	19.1
2020	50,296	31,557	20.9
2021	60,512	34,579	24.5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카이(베트남)

철재로 탁자와 의자 만들는 공장에서 용접 등 완성품을 만드는 기술자
용접 과정에서 집중하느라고 이마에 주름살이 많이 생겼어요
아들을 다시 베트남에서 만났는데, 낯설어하네요
아내는 대만으로 가사 노동자로 일하기도

카이(1988년 9월 20일생)는 2019년 4월 23일에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왔습니다. 생일이랑 가까운 날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 일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해서 체류 기간이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는 삼촌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지역주민 중에 한국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사는 모습과 베트남 관공서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되어 한국어 시험공부를 해서 합격 6개월 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공장은 철재로 탁자(테이블)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철제 제단에서부터 용접 등 완성품이 되는 모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은 기술이 필요한데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용접 작업 과정이 제일 힘이 듭니다.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하느라 이마에 주림이 많이 생겼습니다(다 함께 웃음!!!). 이제는 사장님이 도면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공장에 베트남 3명이 일했지만, 1명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베트남을 갔고, 1명은 사업장이동으로 다른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로 새로운 이주노동자가 들어오지 않아 현재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3명이 있었을 때는 방 하나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숙사 비용을 1인당 7만 5천 원을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방 하나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같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해서 심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이었고, 식비는 일이 많으면 10만 원을 더 주시기도 했고, 일이 적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일하고 혼자 기숙사를 쓰고 있어 일감이 있으면 일하고,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는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일이 끝나고 기숙사에서 노래방으로 노래하고, 혼자 술 한잔하면서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틀어 놓고 보면서 같이 건배를 했습니다(다 함께 웃음!!!).

요리를 좋아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식재료는 인터넷의 페이스북에서 베트남 식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주문해서 구합니다. 급할 때는 마석 시내

에 있는 외국인 가게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통해 간단한 베트남 쌀국수, 소스 등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9살 막내는 6살입니다. 3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아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아 아버지를 낯설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학교에 아침에 데려다주면서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최대한 아들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송금한 돈으로 조그만큼 땅을 샀지만, 아직은 목표한 만큼 벌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일하고 싶습니다. 아내도 2017년에 2년 동안 대만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슈퍼마켓을 하고 싶습니다.

파이(베트남)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수리 가게를 10년 동안 일함
성실히 일해서 베트남에 집도 장만
낚시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

파이(1985년 8월 6일생)는 고용허가제로 3년 일하고, 코로나로 자동 연장되었는데 올해 10월에 끝납니다. 소파 만드는 공장에서 공장에 한국인 20명, 베트남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에서 안내 대만 일본 등도 안내. 베트남에서 다낭 쪽에서 살고 있는데 여행, 일하러 온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일을 완성품을 검사하고 불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공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 전기세만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혼자서 작은 오토바이 수리하는 가게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두 자녀(아들 8세, 딸 6세)를 양육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2~3개월에 베트남으로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을 보재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보증금으로 500만 원과 경비 350만 원도 다 갚았고, 집도 장만을 했습니다. 아내도 베트남에서는 유치원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 더 일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다시 가면 오토바이 수리하는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과 달리 한국에서의 수리 기술이 좋아 자동차 만드는 학원에서 4년 동안 배웠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서 오래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낚시를 좋아해서 주말에는 낚시하러 다닙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도 낚시하러 다녔는데, 아내가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좋습니다(함께 웃음!!!). 그런데 코로나 때는 낚시를 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아놀로 (필리핀)

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서 밴드 드럼 활동에서 이주노동으로
유리공장에서 일을 하며 힘들면 사장님과 함께 물리 치료를 받기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

아놀드(1977년생)는 한국에 오기 전 필리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미네럴 워터(생수)와 양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수 판매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양식장도 태풍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어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에 E-6 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후 2003년 한시적 합법화 조치의 대상이 되어 필리핀에 1달간 다녀온 후 2년 일했고, 2005년에 필리핀으로 갔다가 2006년 다시 고용허가제로 와서 등록 이주노동자로 2012까지 일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까지 미등록으로 일하고 있다.

처음 오산·송탄에서 E-6 비자로 밴드에서 드럼을 담당했고, 40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밴드 활동을 한 형들은 필리핀을 돌아갔지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형들은 아직도 필리핀에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 고향인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마석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석가구공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 공장에서 12시간 주야간 막 교대 일했는데. 2개월 동안 일하고 75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리장 유리 제단, 배달 등 일 했습니다. 유리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처음 유리공장에서 10년 일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비자가 없으니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공장에서 일하던 과장님이 새로 유리공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일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유리공장에서는 처음 11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265만 원 받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과 같이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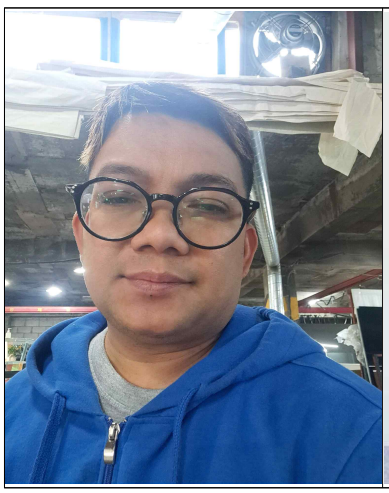
유리 작업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무거워서 힘듭니다. 백화점이나 신축아파트에 제작한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러 가면,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어야 일이 끝납니다. 일하다 보면 허리가 제일 아픕니다. 밤에도 새벽 2, 3시에 통증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아프다고 하셔서 사장님과 같이 한의원에서 가서 침 맞으러 자주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정도 보내지 못했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필리핀에는 150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1,3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기숙사 비용으로는

25만 원이고, 겨울에는 난방비 포함 3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1994년 4월에 결혼했고, 아들 1명과 딸 1명을 입양했습니다. 현재 아들은 23살이고, 딸은 25살로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2022년 10월(아들), 12월(딸)에 결혼했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딸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입장하는데, 저 대신에 저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으로만 보았습니다. 못내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딸이 딸을 낳아서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녀도 많이 보고 싶고 안아 주고 싶습니다.

2년 전에는 사촌 부부가 마석가구공단으로 오게 되어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촌 부부는 한국에 오기 위해 일본, 홍콩을 경위 해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동안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장님을 통해서 가족 초청했는데, 비자 신청이 6번이나 거부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전에 비자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남이섬과 롯데월드를 구경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이 오면 한국에 와서 한번 같이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한 달만 함께 있다가 필리핀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끝내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놀드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필리핀에 가게 되면, 형들과 함께 다시 좋아하는 음악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드럼을 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드럼을 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이 '코리안 드림'은 아니다.

현재 비숙련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로 올 수 있는 국가는 16개 국가(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입니다. 이들 국가의 비숙련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구사 능력,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여 제조업의 경우는 200점 만점에 110점, 소수업종(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80점, 어업 특례는 60점으로 최저 하한 점수 이상 합격이고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에서 (사설)한국어 학원에 다니는데, 국가별로 편차가 있지만, 고액의 수강료(3개월 수강료로 평균 30만 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송출국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난립하여 경쟁도 과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사교육 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2022년(6년) 동안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205,409명이고, 그중에서 합격자는 346,337명으로 불과 28.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합격한 후에도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는 사업장의 선택은 이주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입국 초기부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시험 응시자와 합격인원 통계

연도	응시인원	합격인원
계	1,205,409	346,337
2022	228,279	88,497
2021	41,013	17,200
2020	51,977	20,493
2019	277,870	64,025
2018	323,367	88,350
2017	282,903	67,772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을 신청한 사업주는 3배수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정부로부터 알선받고, 선택한 외국인의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이주노동자는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이상을 선택받기만을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주의 선택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한국어능력시험 유효기간인 2년 동안 기다려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선택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와 업종별

고용허가제 도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17년~2022년 6년 동안 85,079(24.5%)명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지만, 고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코리안 드림'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업종에도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선호하다 보니, 입국이 지체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축산·어업 업종을 직행(빨리)으로 선택 아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은 이처럼 망망대해에 나침판 없이 나선 것처럼 험난한 난관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업종별 고용허가제 도입현황

업종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59,822	50,837	53,855	51,365	6,688	10,501	88,012
제조업	47,425	39,415	43,695	40,208	4,806	7,455	68,350
건설업	2,593	1,846	1,405	1,651	207	595	1,657
농축산업	7,018	6,855	5,820	5,887	1,388	1,841	11,664
서비스업	68	100	90	99	1	18	125
어업	2,718	2,621	2,845	3,520	286	592	6,216

고용노동부

마리 베델 (필리핀)

남편은 단속으로 홀로 남아
늦둥이 딸이 너무나 그리워
그래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손을 놓지 못함

마리 베델은 1979년 10월 22일생으로 2008년 5월 7일에 고용허가제(E-9)로 왔습니다. 마리 베델은 한국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자동차 베어링 부품공장에서 9년 9개월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보세 의류를 분류하는 사업장으로 왔습니다. 그곳에는 필리핀 7명, 몽골 4명, 한국 사람 13명이 일했습니다. 월급은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세 의류가 들어오면 남·녀, 계절별로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옮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분류하는 작업을 한 후 30kg이 넘는 자루를 들어서 일정한 장소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후 남자들은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여성들이 다 힘든 일을 했습니다. 결국 7개월 일하고 차산리에 있는 장신구(악세사리)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던 처음 보세 의류 공장 사장님이 쉬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다시 갔지만,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내리에 있는 식품공장(칼국수 면)으로 옮겨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등록 비자가 있는 동안 일했습니다. 등록 체류 기간이 끝나자, 사장님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특별한국어시험을 보고 다시 재고용 절차를 밟으라고 했지만, 다시 돌아가면 한국에 다시 올 수 없다고 생각해 마석가구공단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 온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에 처음 15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지금 공장은 3년 되었는데 2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마리 베델은 형제가 2남 4여 인데 언니와 남동생이 고용허가제로 왔습니다. 언니는 2012년에 온 후 임신해서 3년 후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남동생은 2020년에 와서 지금 충청남도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필리핀 친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동거하면서, 2013년에 딸 안젤라 조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16일에 남편이 번호판이 없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마석 시내에 나갔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출입국에 인계되어 출국하였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하여 딸도 남편과 함께 가기로 하고 저는 한국에 남아서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딸을 함께 보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딸에게도 엄마는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통화할 때마다 딸은 울면서 “엄마! 빨리 와요!”라고 말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은 현재 필리핀에서 택시(지프니) 기사로 일하면서 누나와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는 혼자 생활하면서 22만 원에 수도·전기세로 8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딸을 위해 적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가정에서 여자와 자녀가 본국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혼자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자 혼자서 일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행사가 있어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과 딸아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는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딸을 낳아 품에 두고 키우지 못해 밤마다 저 혼자 눈물을 흘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일이 힘들었던 날은 더 슬퍼서 지쳐 스러져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공장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딸의 생일이 있습니다. 딸에게 예쁜 옷을 선물로 보내 주고 싶습니다. 애교가 많은 예쁜 딸이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바블 (방글라데시)

가족을 위해 조금 더 일하고 싶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지 못한 아쉬움
한국인들의 거친 말투에 상처만 남아

바블(1978년생)은 일본 지바현에서 1998년에서 2002년까지 4년 동안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있다가 단속되어 방글라데시로 돌아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있던 14년 동안은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도 있었고,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닌 적이 있어서 2016년 5월 19일에 C-3 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G-1 비자를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동안 나름 비민주적인 정부에 비판적이었고, 정당 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비자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는 친구의 소개로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고철 표면 작업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루 8만 원에 4개월 일했는데, 4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4년 동안 있는 동안 임금체불이 없었습니다. 이후 마석가구공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구공장에서 3개월 일하고 14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공장에서는 도색작업을 하기 전에 표면작업(샌딩기)을 하는 하도 작업을 1년 정도 일하고 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로 9~10만 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일을 찾기 쉽지 않아 아는 조카의 소개로 충청북도 청주로 일하러 갔습니다. 유리를 제단하고 배달하는 일을 18개월 동안 했습니다. 유리공장에서는 등록 이주노동자들만 고용하고 있었고, 저의 G-1 비자 연장 기간도 끝나, 2020년 9월에 다시 마석가구공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했고 자녀는 큰딸 13살, 작은딸 7살입니다. 막내딸은 2016년 5월 2일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보고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G-1 비자가 있을 때는 방글라데시에 가서 가족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가족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모바일 웹이 있어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일본에 있을 때는 편지를 써서 1달이 지나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같은 나라 사람들도 없어서 외롭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쉽지 않아,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부모님과 가족사진만 매일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또 힘든 것은 처음에는 한국말을 몰라 답답했지만,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반말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야! 야!”라고 하고 욕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반말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공단도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공장들도 점점 빈 공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다른 곳으로 일하는 공장을 옮기든가 아니면 방글라데시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친구도 마석 시내에 나갔다가 출입국에 단속되었습니다. 늘 항상 말이 많고 재미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데, 방글라데시 음식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기숙사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나니 저도 이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저녁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다 보면 가족들을 위해 좀 더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바닷물처럼 밀렸다가 밀려오는 생각으로 잠이 듭니다.

엘렌 (필리핀)

피아노를 치던 손으로 이제는 거친 이주노동을
살림을 도와주는 남편이 힘이 됩니다.
신발공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이주노동의 서글픔

엘렌(1969년생)은 2007년 7월에 E-6 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일본에서 6개월(3번), 말레이시아 1년 6개월, 홍콩 2년 2개월 동안 밴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 부산역 근처에서 필리핀 바(남편이 한국 사람, 부인이 필리핀 사람)에서 50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 엔젤(1964년생)은 등록 이주노동자로 조선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에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 2008년 2월에 임신하게 되어 5월까지 일하고, 2008년 5월 23일에 남편과 함께 마석가구공단으로 왔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 온 것은 남편(엔젤)의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의 초청으로 1997년에 마석가구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미등록 한시적 합법화 조치로 1년 체류 허가를 받고 일하다가,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 2005년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으로 와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2년 동안은 일하지 않고, 남편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이후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에 딸(엔젤리)을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부터 밴드 활동을 하면서 피아노만 치다가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 공장에서 13년이 되었습니다. 신발공장에서 제가 제일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 사람 15명, 외국 사람 15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필리핀 3명, 한국 사람 3명만 일합니다. 신발공장들이 많이 없어져서 일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작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공정을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오히려 일은 더 많아져서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출입국에 의해 6명이 단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공장에 잠근 장치도 만들고 야간에 일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85만 원 받았고, 저는 13년 일했는데 지금 월급은 145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쉽게 다른 일로 바꾸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국 남자는 5년 일했는데 19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구공장에서 2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엘렌은 큰딸 2남 2녀 중 첫째입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활동했지만, 동생들의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촌 동생의 아들을 1997년에 입양해서 키워 왔습니다. 당시 9개월 된 아들을 입양했는데, 지금은 27살이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2008년 11월에 돌아가셔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한 적이 없지만, 남편은 한국에 오기 전에 결혼했고 자녀가 7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을 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남편의 부인도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는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젤리를 위해서도 내년(2024년)에 혼인 서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생과 입양한 아들을 위해 돈을 보내주었고, 남편 역시도 필리핀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돈을 보내주느라고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조금 보낸 돈과 빌린 돈을 갚다 보니 모은 돈은 없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월급을 서로 각자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집세 등은 남편이 책임을 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음식을 잘 요리합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요리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요리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함께 웃음!!!).

39살에 늦게 임신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한국에서 태어난 딸(엔젤리)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사춘기라 그런지 많이 예민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소한 다툼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장래 희망이 비행기 승무원인데, 요즘은 요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통합기구 ‘이민청’은 누가 할 것인가!

이민자의 사회통합 기능인 ‘이민청’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에 대해 취임사(2022.05.17.)에서 이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이후 국회(2022.10)에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이민청의 신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먼저 ‘이민청’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특별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8.16.), 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5.1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등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이민자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처별 이주민 지원체계의 파편화 및 사업의 중복성, 이에 따른 예산 낭비(내국인 역차별 논란) 및 칸막이 행정으로 사회통합의 부작용 등이 초래된다는 비판을 그동안 받아 왔습니다. 또한 지방 지자체를 배제한 중앙부처의 이주민지원정책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운영으로 파급효과의 분절 현상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주민)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위임	⇩위임	⇩위탁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산업인력공단	지자체
⇩위탁	⇩직접/위탁	⇩위탁	⇩직접/위탁
이민통합 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29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1개)	외국인력지원센터 (9개)/36개(소지역)	외국인복지센터, 글로벌센터 등
일반예산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지자체 자체 예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주민의 종합적인 통합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민청의 설립으로 각 부처 간 이주민 사업의 조율과 균형 및 견제로 사회통합의 극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지원체계의 원스톱 구축으로 총체적 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이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적 구성원으로도 자리매김하여 사회적 통합 도모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에 근본적인 취지에 동의하면서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에 귀결됩니다. 내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승격하여 이민청으로 가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 업무는 출입국 관리, 출입국외국인 정책, 외국인 보호, 외국인 지원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부장 이하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 기획과, 심사과, 관리과, 이민조사과, 정보빅데이터과)과 국적·통합정책단장(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

심의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기관으로 6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 14개의 지방출입국사무소, 23개 지방출장소, 2개의 보호소가 있습니다. 소관 기관까지 포함하여 2022년 기준 총 2,701명(본청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이민청' 계획(안)으로 청장, 차장 중심으로 1관 4개국(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출입국심사국, 체류관리국, 인재유치국)을 두는 계획(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조직이 확대되면 이에 따르는 예산과 인력도 보강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체류 비자에 따른 '통제와 관리'가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2022.10.06)에도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우수외국인을 유치하고, 들어온 외국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되 중요한 건 불법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하는 등 기본적인 걸 해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에 따른 계층화와 서열화를 강화하고, 이에 배제된 이주민은 강압적인 정책으로 선회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취약한 이주민의 인권의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이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 업무는 출입국 관리업무입니다. 체류 외국인의 실질적인 체류 지원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사회통합사업 역시 민간 위탁사업). 이주민의 실생활과 민원 업무(대행기관에 위탁) 등에 밀접한 도움을 주는 업무가 없습니다. 체류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이주민에게는 지역사회에서 맞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실생활(주거, 교육, 의료, 교통 등)에서 겪는 문제의 해소에 있어서 지자체의 행정적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를 전달하기에도 지자체가 적합합니다. 지자체가 지닌 복지시스템(기관)과 민원 행정 등이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민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 벤 (필리핀)

클럽 바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
남편과 함께 필리핀공동체의 리더로 활동 중
이제는 나이가 들어 가면서 힘든 이주노동

남편은 1996년에 입국했고, 저는 2007년에 입국했습니다. 남편은 관광비자로 브로커에게 당시 8만 페소(당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33세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마닐라에서 버스로 8시간 거리의 가양발리에서 쌀농사를 했는데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장남(남동생 1명, 여동생 2명)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18살 때부터 클럽 바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중국 브로커 만나서 말레이시아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받는 급여와 비슷했지만, 이혼 후 외국에 가 볼 기회와 경험해 보고 싶어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호텔 클럽에서 가수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후 아부다비, 두바이, 바레인, 중국, 태국, 브루나이 등을 다니며 클럽에서 노래했습니다. 한국에도 브로커를 통해 예술흥행 비자(E-6)로 들어왔습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동두천, 의정부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술 1병을 만 원에 팔면 2,000원을 받았습니다. 술을 먹지 못해 돈을 벌지도 못 했지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술을 먹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원하지 않는 요구를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함께 온 필리핀 6명과 함께 모두 도망을 나왔습니다. 함께 나온 필리핀 여성 중에 한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가산동에 있는 실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1달 일했는데, 일이 없다고 해서 다시 가족이 하는 양말공장에서 한 달에 90만 원 받고 4~5개월 일했습니다. 이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 도시락 만드는 공장 등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필리핀 친구 소개로 마석가구공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중 2012년 12월 21일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안쪽에서 일하다 화재에 대한 알림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바람에 대피가 늦어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고, 사장님도 저의 부주의를 탓하며 병원 치료만 해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직도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2차 치료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수술비도 없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어 앞머리로 가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1996년부터 마석가구공단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잠깐, 캐나다로 가려고 서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7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1,000달러가 있는 통장과 비행기표가 있어야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다시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합니다. 지금은 캐나다에 가려고 한 7개월을 빼고 침대 만드는 공장에서 27년째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마석가구공단에 왔을 때는 숲도 있고, 나무들도 많았습니다. 미등록 신분이라 외부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 공단 옆에 있는 개울에 발을 담그고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노래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도로가 생기면서 옛 추억의 장소도 사라졌습니다. 마석가구공단 내에는 쉴 공간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잠시라도 앉아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1998년 이후~2000년대 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사장님들이 일할 외국인 노동자를 찾아다니며 구애할 정도였습니다. 공단 내 좁은 골목에는 아침 출근길이 분주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가구를 사려고 공단으로 오는 한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기숙사로 가는 이주노동자들의 발걸음이 있었고, 골목거리에는 생필품을 파는 자판과 간식시간에는 순대와 떡볶이를 차량으로 파는 분이 계셨습니다. 퇴근길에는 공단 초입에 포장마차가 있어 국수 한 그릇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2010년 만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의 외곽에 있는 침대공장에서 일하며 남편은 210만 원, 저는 190만 원(수당 포함해서)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 옆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숙사비, 전기, 수도세를 포함해서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등록 필리핀 이주노동자 3명, 베트남 2명과 미등록 필리핀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이 가수라 남양주시에 행사에 참석하여 대상을 받기도 했으며, 이주민 행사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필리핀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리더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독립기념행사, 필리핀 농구대회 등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한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세 명을 양육했습니다. 큰아들은 현재 한

국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일하고 있고, 3년 후 끝나면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은 필리핀에서 상품을 배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만 결혼해서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필리핀의 아내가 4명의 딸을 양육하고 있어 양육비와 생활비를 매월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딸 모두 결혼해서 손자가 7명이나 있습니다. 둘째 딸은 캐나다에 있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도 이제 나이 60세가 되어 공장에서 일이 다소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경제 발전이 안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딱히, 필리핀에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 보낸 추억도 있고, 필리핀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더 일하다가 갔으면 합니다. 남편은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생수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딸이 필리핀에서 생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롬길 (방글라데시)

고국에 있었으면 크리켓 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16세에 한국에 와 이주노동으로 청춘을 보냄
비둘기를 키우며 자유롭게 돌아갈 날을 꿈꾸다

알롬길은 1980년 생입니다. 2007년 10월 C-3비자로 왔습니다. 큰형이 한국과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삼 형제인데 친형 한 명도 미등록으로 있다가 2008년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을 때 단속되어 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이라 기숙사에 있었고, 비자 체류 기간이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정치적인 불안으로 시위가 많아 경찰들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았지만, 한국에 와서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미등록체류자의 단속에 대한 공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장 다섯 군데 옮기며 일했지만, 마석가구공단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만 일했습니다. 현재 공장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구공장에서 도장 작업을 합니다. 월급으로 410만 원을 받습니다. 공장에서 혼자 도장 작업 일을 하는데, 일감이 많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로 다른 외국인들을 불러 일합니다. 한국 사람 목수로 5명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편입니다. 사장님이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백화점 등에 인테리어 가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문서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형태와 크기가 다 달라 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장 작업을 할 때 역시 염료의 색깔이 다르고 혼합하는 비율이 중요하기에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목수보다는 도장 작업이 임금이 높다는 것을 알고, 쉬는 날에는 형들과 작업 반장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도장 작업을 배우고 처음 1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다른 작업을 하는 친구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10년 넘게 도장 작업만 해서 공장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장 일을 잘하다 보니 지금 공장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도 다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도장 기술이 있다 보니 일이 많은 공장에서 야근에도 일이 있어 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야근하면 야근수당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공장에서 야근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시간당 아르바이트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1년 정도 낮과 밤에 일하면서 7~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1~2시까지 하던 야근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에도 무리가 많이 왔고,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니 마음에 여유도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 실제 나이는 16살에 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같은 나이보다 성장이 빨라 몸이 컸습니다. 브로커가 1980년생으로 여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여권이 있고, 방글라데시에도 신분증이 생겨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 발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와 달라 방글라데시로 갈 때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서 실제 나이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2016년에 난민 신청을 해서 G-1 비자 받고 방글라데시에 두 번(일주일, 한 달) 다녀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변호사를 통해 80만~90만 원을 주고 난민(G-1) 신청을 했지만, 저는 혼자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 난민(G-1) 신청하는 정보를 얻어 방글라데시에서 복잡한 자료는 받고,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받았습니다. 미등록 체류 기간 8년에 대한 벌금으로 490만 원을 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아이디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글라데시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영상전화로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의 소개로 아는 친척 20살 된 여자입니다. 너무 어려서 본적이 있지만, 하도 어릴 적에 보아서 지금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전화로 결혼하면서 많은 친구를 초대하지 못했는데, 얼마 있으면 결혼 1주년이 되고, 부인도 빨리 오라고 재촉해서 이제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송별회 겸 결혼 축하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친구들과 기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석가구공단이라는 한 공장에서 만나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만나기 쉽지 않고, 가장 젊은 시절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이기에 우정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간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에 돌아가면 집 짓는 것을 마무리하고 월세 받으며 지내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신 땅이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다카에서 벗어나 있는 로호정 지역 근처에 있는데 큰 도로도 생겨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를 처분해서 장인어른이 하고 계시는 음식점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별 어려움 없이 공장에 일이 있어 일했지만, 공장에서 매일 검사를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감기 증세가 조금 있으면 쉬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려 1주일 쉬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 오면서 나름 잘 지내 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도 다툰 일도 없고, 욕먹을 만한 일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장님들이 돈을 더 준다고 오라고 했지만, 저는 이곳이 좋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명절 전에 일이 많아 돈이 들어오면 명절 보너스로 50만 원, 30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주셔서 아내에게 줄 화장품 몇 개를 샀는데 40만 원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함께 웃음!!!).

저는 크리켓을 좋아합니다. 주말에 쉬는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초등학교 분교 운동장에서 크리켓을 합니다. 2022년에는 수도권지역에 있는 방글라데시 22팀이 모여 대회를 했는데 마석가구공단팀이 우승했고, 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저는 MVP로 선정되어 메달을 받았습니다. 경기 때마다 40~50만 원씩 교통비, 식비 등이 들어 부담되지만, 크리켓 경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2022년 경기 때마다 비용이 발생해 예선에서 지라고 했는데, 결승에서 우승까지 함. 2023년에도 대회에 나갔는데, 결승에 가면 50만 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함. 내심 예선 탈락하기를 바라고 있음). 지금까지 한국에서 크리켓 경기에서 받은 메달이 50개가 넘습니다. 우승 트로피는 방글라데시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나면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마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크리켓 선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서 한국에 온 이유는 집안이 정부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당 활동을 쫓아다녔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 친구와 함께하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고 못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성장해서 정치활동에 깊이 빠지기 전에 막을 방법으로 한국과 장사를 하는 큰형과 상의해서 저를 한국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한국에 가는 막내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가족과 친척 모두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형이 지금은 슬프지만, 한국에 가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저의 손을 이끌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 아버지나 큰형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잘 적응했습니다. 남들은 김치가 냄새난다고 먹지 못했지만, 저는 김치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매운탕입니다.

취미생활로 비둘기장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알을 낳고 한때는 50마리가 넘기도 했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 집에서 비둘기를 키운 적이 있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힘든 한국 생활을 위로받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날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날고 싶습니다.

무스타파 (방글라데시)

도장 기술을 배워 일하는 숙련 노동자
후배들에게 밤에만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조언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전화결혼식을 한 아내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처음에는 일본 가려고 두바이, 바레인을 300만 원을 주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비자가 나오지 않아 이탈리아와 한국 비자 신청했고, 한국 C-3 비자가 먼저 나와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달 지나서 이탈리아 비자도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비자는 포기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큰 사업을 하거나 부자들에게만 해외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브로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도 브로커에게 1,200만 원을 주고 왔습니다. 한국에 올 때 여권은 1989년생으로 34살이었지만, 실제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옷 가게를 하는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는데, 장사가 잘 안됐습니다. 아버지가 남들에게 빌린 돈으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온 사촌 형이나 고향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겨울에 볼 수 없는 눈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사촌 형이 있는 화성시에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3개월간 일했습니다. 그 후, 마석가구공단으로 왔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하면서 8곳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소파 공장에서 일했는데, 소파조립을 하면서 소파에 씌우는 천을 팽팽하게 당겨 타카(못총) 작업을 해야 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당겨서 하지 않으면 불량품이 나오게 됩니다. 95만 원 월급을 받고 힘들게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장 작업을 배웠습니다. 도장 작업이 훨씬 수월했지만, 마스크를 써도 염료 냄새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름에는 도장 작업을 하면서도 선풍기나 냉방 장치를 쓸 수가 없어서 땀으로 옷이 젖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겨울에는 난방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도장 기술을 배우고 난 후에는 36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더 임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월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는 일이 없이 받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구 제작을 하는 한국 사람 12명이 있지만, 도장 작업은 저 혼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일이 없어서 다른 공장에서 일당

14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만 받아 생활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래도 일이 좀 있는 편입니다.

공단이 개발된다고 해서 기숙사를 옮긴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전에는 3명이 생활했는데, 지금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개발되어 사라지면 다른 곳 옮겨 가서 일하지 않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생활한 곳이라 고향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새로 오는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오게 되면 마석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발이 된다고 하니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처음부터 밤에만 일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해 줍니다. 밤에 일하게 되면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남의 기회가 없어 고향과 가족 생각에 외로움으로 향수병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말해 줍니다.

휴일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한국에 오기 전 방글라데시에서 받은 고향 사람들 연락처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방글라데시 음식도 나누고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도 합니다. 가구 일만 하다 보니 다른 직종(기계 조립, 선반 작업, 가공식품업, 건설 등)에서 일하는 공정과 임금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2명과 여동생이 있는데, 3년 전에 누나는 돌아가셨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 위해 두세 달 모은 돈을 120만 원~150만 원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낸 돈으로 가게를 두 개 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아버지의 소개로 전화결혼식을 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처가에 있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정식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이해하고 아내에게는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한국 비자를 받고 오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아내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만큼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차 마음도 식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비자’의 전제 조건과 그에 따른 모순

2021년 1월 27일「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외국인력 부족 문제 대응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7월 7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 정책으로 외국인 정책반에서 27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주요 과제 중에 '지역 특성화 비자'의 신설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21년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지역 특성화 비자'를 시범(2022.10.4.~2023.10.3.)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시범사업 선정 지역입니다.

○광역지자체 :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라남도(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경상북도(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기초지자체 :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기본요건>

-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21년 2,833만원)이거나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 **(취업)**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
- **(기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사람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21개 고시국가) 국민, 출국기간연장·출국기한유예 중인 사람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 발급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우선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단골 메뉴가 우수인력의 유치에 있었습니다. 단연 우수인력의 유치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때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항공료와 체류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역 특성화 비자도 우수 인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화 비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력난과 인구감소에 따른 불가항력적 대안이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외국인력 정책에 혼선만 초래하게 됩니다.

첫째, 지자체의 욕구에 충족하는 우수 인재의 매칭 체계, 즉 적합한 우수 인재를 적절하게 선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수 인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자체 내에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지역 특성화 비자 대상에서 제외된 인력난이 부족한 제조업 및 농축산업, 어업 등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의 고용허가제와 지역 특성화 비자의 연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수 인재의 정착하는 곳에 생활 만족도에 상응하는 생활 기반(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 신기루와 같은 '옥상옥(屋上屋)' 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지역 특성화 비자'의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수 인재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가 과연 인구감소지역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이나 중·소 대도시이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산업과 생활환경 기반이 취약한 곳입니다. 이곳에 정작 필요한 인력은 1차산업(농축산업, 어업 등)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특성화 비자'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고, 지역 간 균형발전보다는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더욱 조장할 소지가 농후합니다.

슈닐 (네팔)

태권도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잘하면 더 일을 시켜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더 일하고 싶어요

저는 1976년생(47세)입니다. 2009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E-9(고용허가제) 비자를 받고 와서 일했습니다. 이후 네팔로 가서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해서 2014년 12월에 다시 한국에 E-9 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2019년에 E-9 체류 비자가 끝나고 지금은 미등록 체류 중입니다.

2009년 처음 왔을 때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주야간 교대로 일했지만, 저는 주간에만 일했습니다. 3개월 일했는데 너무 일이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도 잘하지 못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섬유공장에 큰 차가 들어오면 60kg이 넘는 원단을 혼자서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빨리, 빨리”라는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다 허리에 무리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더는 일할 수 없어서 포천시 내촌면 나사 제조공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월급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아, 5개월 정도 일하고 융단 재활용공장을 소개받아 갔는데 그곳에서는 반장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 욕만 하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야단을 쳤습니다. 재활용을 위해 융단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기계에 넣어 분쇄한 것을 다시 20kg의 자루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1분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야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했습니다. 6개월 일하고 허리 디스크에 다시 이상이 생겨 그만두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사업장을 구할 때까지는 기숙사도 없고 의료보험도 되지 않습니다. 1달 반 동안 치료받느라 병원비와 잘 곳이 없어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네팔에서도 농사짓는 일을 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잘할수록 더 일을 시켰습니다.

그곳을 나와서 2012년부터 가평에 있는 식품회사로 가게 되어 일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무말랭이 말린 것을 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1시간 30분 넘게 걸리면 저는 30분 만에 건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회장님이 다른 사람 모르게 월급에서 10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체류 기간이 끝나고 네팔에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일하면서 생긴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에게 이에 관해 물었더니, 출퇴근 시에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동안에는 연당 수당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여러 이유를 둘러대며 거부했습니다. 제가 연장 근로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하는 작업장에 앞으로 저는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공지 사항으로 적어 붙여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온 후 저는 3층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층에는 회장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출근하면 다리가 불편한 회장님을 등에 업고 차에서부터 2층까지 모셔다드렸습니다. 몸무게가 85~90kg이 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연락이 오면 해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과 완도로 여행을 가신 적도 있었는데, 산비탈을 종일 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배탈(설사 등)이 나서 도무지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게 도착하자, 회장님은 제가 일하지 않는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험담했습니다.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업고 다니며 모셔드렸고, 공장에서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작업하기 전에 작업 준비했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고, 네팔에서 온 지 3개월 만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알고 실장으로 있던 회장님 아들과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후 저는 네팔로 간 후 받지 못했던 출국만기보험의 차액분과 그동안 회사를 출퇴근할 때마다 출퇴근 기록기에 등록하면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노동부에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진정해서 2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회사로 옮기게 되어 그곳에서 2019년 말에 체류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금씩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 그동안 벌었던 돈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전부터는 아는 분의 소개로 휴게소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주일에 6일 동안 12시간 일하면서 290만 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침 6시에 가서 저녁에 9시 되어야 집에 도착합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씻고 쓰려져서 잠자기 바쁩니다.

저는 인도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네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후 네팔에서 생활하다 1995년에 19살의 나이로 카타르에 가서 건설업에서 4년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서 힘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고 건축 감리사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일했습니다. 카타르를 다녀온 후 벨기에로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서비스업종으로 네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어렸을 때 기억으로 태권도

를 배워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도장의 사범님은 네팔분이셨는데, 태권도를 배워서 한국에 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태권도 사범님을 알게 된 계기가 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그럼 태권도를 얼마 동안 배웠고 품새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1년 정도 배웠고, 빨간색이었다고 해서…. 함께 웃음!!!).

한국에서 일하면서 안 좋은 점은 과장님이 잘못했는데 반장님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안 좋은 일이나 잘못된 일은 바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점점 위 사람으로 올라갈수록 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위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아래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직장생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체류 기간이 끝나고 아직 네팔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인 딸은 공학 대학을 다니고, 최근 아들이 경제학 대학을 올해 입학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졸업할 때까지 2년 정도 일하고 네팔로 가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보고 싶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오해와 편견'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광고를 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지원자가 없어 파격적인 조건(월급에 3년 동안 분기별로 10만 원을 더 준다)으로 다시 광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직원을 구하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산직도 아닌 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3D업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말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70%)이 대부분입니다. 내국인 피보험자 1명만 있어도 이주노동자를 5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영세사업장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매년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인력이 부족한 업종별로 도입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일자리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조건에서 이주노동자는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호봉도 적용받지 않고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산업의 주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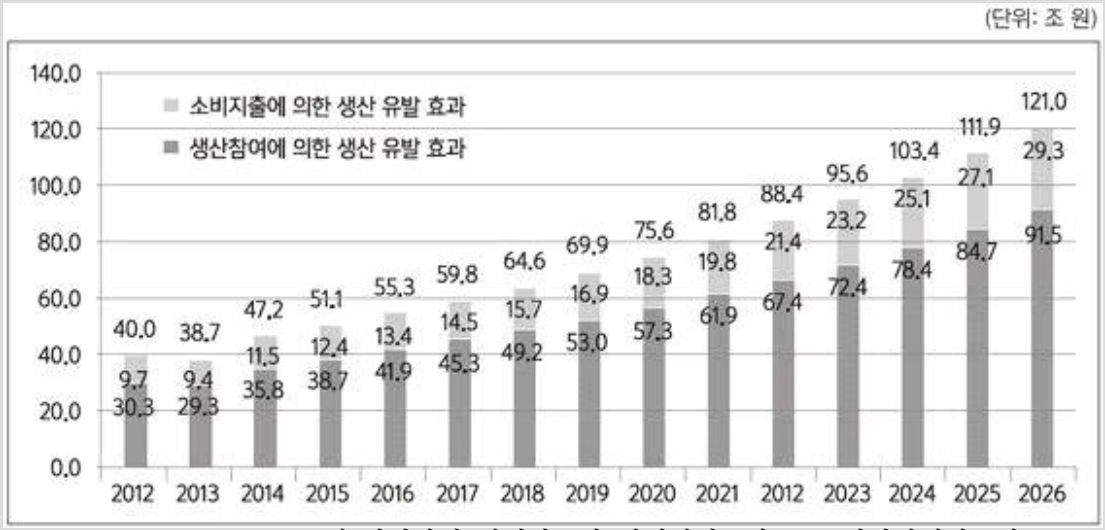
돌 역할을 하며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IOM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는 이주민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산한 경제적 효과가 2012년 53.7조 원, 2016년 74.17조 원으로 추정하고, 2026년에는 16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한 돈을 송금만 하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라는 것은 '편견과 오해'일 뿐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상공업 상권이 형성된 곳이나 재래시장에서 소비의 주체는 이주민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2023년)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1%가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어들고, 대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 시에는 GDP 약 0.17%가 줄어들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22년 대비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약 34.75% 감소하고, 피부양 인구는 44.67%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이주민과 관련된 법과 인력 제도의 선진화 시스템 구축)되어야 하겠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력은 이주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대신 일을 해주는 노동자이며 이웃입니다.

이민자에 대한 경제적 유발효과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2016

락시리 (스리랑카)

단속을 피하려고 12시간 심야에 일해요
단속이 죽음보다 더 두렵워요
등록에서 미등록으로 바뀌면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975년 1월 14일생) 2007년~2011년, 2015년~2020년까지 E-9(고용허가제)로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체류 기간이 끝나고 미등록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한국 사람 7명 중 남자 1명만 생산직에 있고, 6명의 여성은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스리랑카 5명 중 4명은 주간에 생산직 일하고, 저는 미등록이라 단속을 피하려고 야간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등록으로 있다가 미등록이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것이 싫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낮에 다른 일이 있거나 잠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야간에 피로도가 크게 느껴져 낮에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미등록이 된 이후에는 또한 임금의 차이도 생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등록된 친구들은 연장 수당을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저는 미등록이 된 이후 270만 원을 받고 토요일에도 일하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미등록이 되면서 월급도 적어졌습니다. (미등록이 되면서 퇴직금으로 적립된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은 출국해야 받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공장에서 차액에 대한 퇴직금을 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등록이 되고부터는 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외출했다가 단속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으로 있었을 때는 주말에 시내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 음식을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휴가라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바닷가에도 갔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스리랑카에도 몇 번 갔었는데 이제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친인척들의 결혼식이나 경조사가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스리랑카에 가지 못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미등록으로 3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숙사에서도 주말이면 음식을 해놓고 노래도 들으면서 휴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기숙사에서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고 큰 소리로 대화도 하지 못합니다. 기숙사 옆쪽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계셔 작은 소리가 들려도 시끄럽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운 마음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요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친구들

이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만 받고 나왔는데 35만 원을 병원비로 냈습니다. 특별한 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는데 미등록이 되면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큰 비용이 나왔습니다. 전부터 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일을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지 못해 약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 가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숙사에 있는 혈압측정기로 체크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등록이 되어 이제는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작은 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영업 사원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주노동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19세로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딸은 12세입니다.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라도 미등록이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단속되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단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미등록이 되면서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니 돈 쓸 일이 없어졌습니다(함께 웃음!!!). 지금은 스리랑카로 230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는 결혼할 때 아내가 땅이 있어서 제가 보낸 돈으로 이층집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락시리씨는 인터뷰하는 중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토요일에도 야근하고 인터뷰하는 일요일 아침 일찍 센터에 오느라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센터에서 무료 진료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진료 대상자 신청하고 서둘러 센터를 떠났습니다.)

가나 (몽골)

미등록으로 일하고 싶지 않은데 사업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공장 내 형편없는 기숙사를 제공하고는 월급에서 공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아

저(1981년 12월 11일생)는 코로나로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지만, 코로나로 연장이 되어 늦은 나이에 2022년 10월 25일에 E-9(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공장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숯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일했습니다. 몽골 사람 2명과 중국 교포 1명이 일했습니다. 중국 교포가 일을 시켰는데, 자신은 기계로 하는 일만 하고 우리 몽골 사람들은 힘을 써야 하는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숯 만드는 작업은 먼저가 많아 숨쉬기도 힘들고 눈이 아팠습니다. 사장님이 중국 교포에게 몽골 사람들도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1주일 후에 사장님이 저희에게 배웠는지 물으셨지만, 저희는 배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중국 교포에게 화를 내셨고, 중국 교포는 더 저희를 더 힘들게 했고, 갈등도 더 커졌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면서 월급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과 연장 근로 수당도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들은 소식으로는 공장의 기계가 터지면서 불이 나서 공장은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일했던 몽골 사람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오면서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나올 때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던 저에게는 화가 나서 최저임금도 아닌 월급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광주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동대문 몽골타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와서 고용지원센터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한 달 동안 문자를 받지 못하다가 일산에 있는 식품회사를 소개받고 들어갔습니다. 식품회사에서 한 24일 정도 일했는데, 사업주가 E-9 이주노동자를 처음 고용해 보고 경험이 없어 미안하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은 곳은 화성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였습니다. 그곳은 이주노동자가 100여 명이 되고 일하는 사람의 70~80%가 이주노동자였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2교대로 일했습니다. 기숙사가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2시간 전에 준비해서 회사의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공장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몽골은 저와 나이가 젊은 20대 사람 1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 후 얼마 지나 3명이 더 왔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공장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하는 일이 조금 서툴렀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많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빨리빨리 일을 잘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과 일할 때 작업 시간을 재면서 재미있게 웃기

도 하고, 몽골 사람들을 놀리기도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한국 사람들도 미얀마 사람들처럼 일하지 못하는 저희를 보고 소리치면서 빨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전에 알고 있던 일산에서도 알아보고 다니다가 일산 공원 벤치에서 놓여 있던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연락처를 보고 도움을 받고자 의정부로 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느라 찜질방 등에서 자면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 건물의 빈 곳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소개로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의 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달이 넘는 동안 구직 사업장 문자를 4개 받았습니다. 사업주와 면접했는데 한군데는 이미 구했다고 했고, 다른 두 군데는 구직이 안 되었고, 한군데는 돈도 없어 차비가 없어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업장 변경 기간이 20일 남았습니다. 사업장 이동 제한 횟수도 마지막이라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언제 사업장을 구할지 기약도 없습니다. 미등록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업장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업장 문자도 주지 않고, 그나마 주더러도 사업장에서 어떤 일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찾아가서 일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공장 한쪽에 만들어 놓은 좋지 않은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최저임금의 월급에서 20만 원~25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의 모색에 대한 제언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단기순환에서 정주화로

현행의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로써 노동허가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주노동 운동진영과 정부(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개인적인)의 제안인 만큼 양해를 구하며, 더 큰 논의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 사업장이동제한: 협소한 사유제한으로 강제노동 요인제공 및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 헌법이 적용하는 '직장자유원칙'에 따른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
• 최저임금에서 숙박비 공제 : 최저임금법 및 임금지금4대원칙 위배	• 최저임금 내 숙박비 공제 원천 검토 및 공제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 정보제공(알선장) 없이 3월 구직활동 : 동	• 사업장변경 시 알선장 제공으로 자유로운

등한 근로계약 결정권 차단으로 이주노동자의 알 권리(부당한 노동조건 암묵적 방치)침해	근로계약의 보장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구직활동 기간 중 실업급여 대상 포함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점 '출국 이후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귀국비용보험의 불필요 문제	•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 '출국 이후 14일 이내'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고, 귀국비용보험은 강제사항으로 개선. 출국만기보험의 차액 보존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 산재보험(5인 미만) 미적용 및 기숙사 문제 •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휴게시간 등 적용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 6항) 개정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업체에만 외국인력 배치, 기숙사 기준(안) 감독 및 위반 시 고용허가 취소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개정
• 과도한 행정조치 : 사업장 변경기간(외고법 제25 3항 변경신청 도과 시 출국 조치)	•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예외규정 및 3개월 구직기간 이후 신고 시 과태료 부과로 구제(미등록 전락 요인)
• 근로계약 3년 자율계약: 불평등한 근로계약	• 근로계약 3년에서 1년으로 전환 (사업장이동 보장)
• 계절노동자: 4대 보험 제외 대상으로 노동권 침해	• 법무부 계절노동자를 고용허가제에 편입 : 8개월 단위로 4년 8개월 보장 및 4대보험 의무
• 과도한 법무부 E-7 체류자격 요건	• 법무부 E-7 체류자격 변경요건의 완화로 숙련인력 확보

노동허가제(안)

	일반노동허가제	특별노동허가제	영주권
기간	현행 4년 10개월 노동허가(영주권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라면 굳이 3+2는 의미가 없음. 또한 재고용으로 인한 행정적 소모나 폐단도 소멸시킬 수 있음)	4년 10개월	특별노동허가 제 이 후 부여
업종	제한	제한	없음
사업장이동	신고제	신고제	
근로계약	자율 (고용허가제처럼 종속관계의 근로계약이 아닌 상황에서 노동허가제에서 근로계약 기간은 무의미)	자율	
가족동반	불허	허용	허용

아난다 (스리랑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선택받지 못하면 2년 지나 자동 취소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건강 이슈가 끊이지 않아요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슈퍼마켓을 확대해 장사하고 싶다

저(1977년생)는 20011년에 E-9(고용허가제)로 와서 재고용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8일까지 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했습니다(코로나로 1년 연장도 받음). 이후에는 미등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스리랑카에서 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급여가 적었고,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한국에 오려고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을 내고 두 달 다녀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한국에 사업장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이라 10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스리랑카 고용부의 전산시스템에 합격자 명단이 올라가고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3명을 추천받으면 그중 1명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게 올 수 있었지만, 2년 동안 기다리다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2년이 넘으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한국에 올 때 비행기에는 한국으로 가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E-9) 205명이 탑승해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항공료는 본인 부담인데, 스리랑카 정부에 편도가 아닌 왕복 항공료의 비용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후에는 귀국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귀국비용보험'으로 항공료 비용을 또 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해서 항공료의 비용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 때는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 때는 개인이 알아서 귀국하게 됩니다. 스리랑카나 한국 정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한해에도 수만 명이 한국에 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제조업 가구공장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가구공장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글 웹으로 주소의 사진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2박 3일 교육받고 처음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공장에는 가구를 만들기 위한 기계와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밥과 물만 조금 먹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장에는 이미 스리랑카 2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스리랑카 3명이 새로 일하면서 5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10년이 넘었고, 사장님과 둘

이 남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장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함께 웃음!!!). 공장에서 일이 없을 때는 오후 4시에 끝날 때도 있지만, 사장님이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월급 2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장에서 마련해 준 공단 내 주택을 빌려 생활했는데, 공단이 개발된다고 하면서 공장 옆에 있는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사장님이 TV와 에어컨도 직접 설치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기숙사비와 공공요금(전기세 등)도 내주십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장님과 친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등록으로 일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5~6년 전에 담석이 발견되어,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등록 상태로 건강보험이 있어 50만 원이 들었는데, 최근 4개월 전에 다시 생겨 시술받았는데, 미등록이라 건강보험이 없어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미등록이 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이제는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하는데 일하는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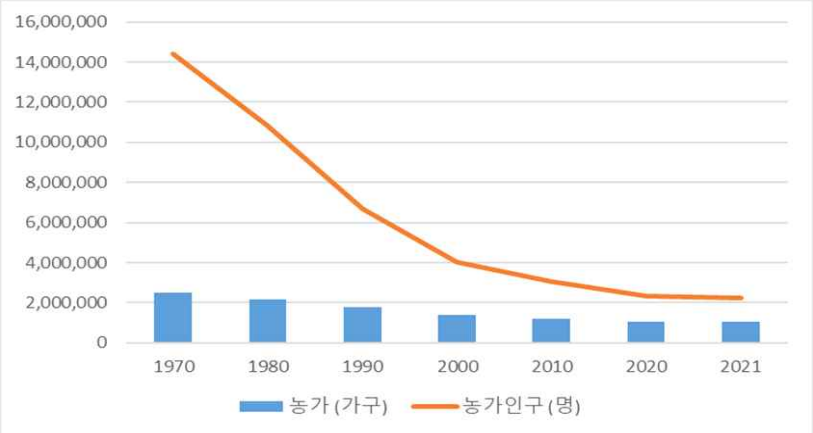
한국에 오기 2년 전에 결혼해서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등록으로 있을 때는 스리랑카에 여섯 번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가면 돌아올 수도 없고 마지막이 됩니다. 그동안 공장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야근 없이 거의 8시간만 일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송금해서 보낸 돈으로 스리랑카에 집을 크게 짓는 바람에 돈이 많이 들었고, 슈퍼마켓을 사느라 그동안 벌었던 돈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위한 돈을 마련해 놓지 못했고, 자녀 학비를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면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슈퍼마켓을 확대해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계절노동자

한국 사회는 산업발전에 힘입어 도시화(탈농촌) 현상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농가 수는 1970년 248만 3,000가구에서 2022년 102만 1,000가구로 급속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인구 역시 1970년에 1,024만 명에서 2022년에 216만 6,000명으로 807만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1년 농촌의 65세 고령인구는 비율은 46.8%를 차지하여 198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18%)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농가에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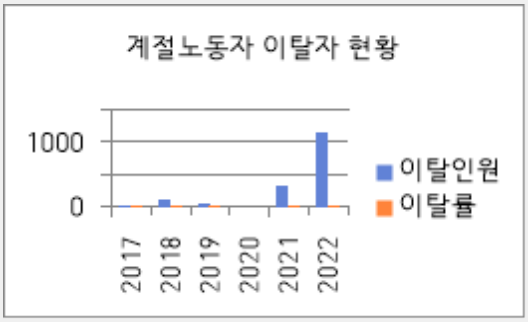
농촌의 이런 현실에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 농어업 인력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촌의 경우에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고용허가제에서 작물재배업 분야에 대해 ‘근무처 추가제도’(2009년 7월 1일)를 시행하여 원 사업장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2~4개월 추가 근무처를 두어 다른 농가의 일손을 돕도록 하였지만, 대부분의 작물재배업 농번기와 시기와 장소가 겹치고, 신청조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절노동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 단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절노동자 제도는 운용과 관리 기능 등의 부실로 최악의 외국인력 제도였던 산업연수생제도 버금가는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계절노동자의 특성상 체류 기간(계절노동자 2019년에 E-8을 신설 5개월, 2023년 8개월로 확대)이 짧아 상대적으로 사업장 이탈의 온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계절노동자 1,850명 중에 미등록 체류자는 316명으로 17.1%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12,027명 중 1,151명으로 9.6%로 나타났습니다(2017년 첫 시행과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2021년 이후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탈 인원의 수가 10%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1,000명대를 넘어 우려가 됩니다. 2023년 상반기에도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 6,788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에서 이탈에 의한 인력 손실은 허탈감과 함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구분	참여인원	이탈인원	이탈률
2017	1085	18	1.7
2018	2824	100	3.5
2019	3497	57	1.6
2020	223	0	0
2021	1850	316	17.1
2022	12,027	1,151	9.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속하게 계절노동자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계절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제10조 4에 있는 '별표 1의2'에 자격만 부여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주체, 취업 기간 및 형태, 기본적인 규정 등과 세부적 사항을 담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계절노동자의 필요한 인력을 배정받은 지자체는 운영의 관리·감독 및 행정 시스템과 함께 전문성도 미비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는 국내외 중개업자들이 개입하여 임금 착취, 과다한 수수료 등을 챙기는 횡포가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실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짧은 근로계약 기간에는 해소할 수 없어 계약이 종료되어도 귀국하지 않거나 이탈하게 됩니다. 또한 농어업의 장시간 노동, 급여, 휴게·휴무, 노동(주거)환경, 미가입 건강보험 등의 이중적 고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계절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에서도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탈을 방지 목적으로 이탈보증금과 강제 적립, 연좌제와 같은 친인척 연대 책임과 같은 탈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성(선발과 도입 과정, 체류 지원 등)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듯 법무부에서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방안'(2022.11.16.)을 내놓았습니다. 방안으로는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식별지표 마련(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3단계 진다), 귀국 보증금제도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노동자의 유치 전담 기관을 지정·운영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계절노동자 전담 기관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무부가 시행했지만, 지자체(전담 기관)에 떠넘겨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손길이 없는 농촌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간투르 (몽골)

영화처럼 악몽이 되어 버린 현실
미등록 이주노동을 원한 적이 결코 없지만....
악몽(사기)과 같은 일이 벌어질 줄 몰랐지만, 자녀를 위해 멈출 수 없다

원래 저희 부부는 미등록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영화처럼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온 계기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 2022년 12월 7일에 관광비자(C-3, 90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몽골과 다르게 살기 좋은 나라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 수는 없겠지만, 자유롭게 오고 갈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형이 4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계신 분인데 여자분이셨고, 그분과 통화상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통화한 사람은 몽골 사람으로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체류허가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출입국에도 아는 분이 계셔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달라고 했고, 변경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서류와 2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2023년 1월 말에 보냈습니다. 그 여자분 이름이 아닌 그 여자분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체류 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계속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여자분 말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아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주었는데, 체류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돈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만 계속 3일 뒤, 5일 뒤로 하고 있어 자기도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자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계속 부탁했습니다. 같은 나라 몽골 여자분이고 해서 차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려 주다가 저희도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친형 역시 몽골 여자분을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사기를 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형이 저에게 대신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 여자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니, 제가 여자에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분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금은 형이 일하고 계시는 진접읍에 있는 물류 보관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체류 연장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생활하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하면 260만 원을 받고, 10~11시까지 일하면 3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집은 빌라 5층에 있고, 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주었고, 월세 40만 원, 관리비로 9만 원 내고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최근에 출산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5층을 오르내리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를 안고 다니느라고 또 힘이 듭니다. 저도 올겨울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넘은 길어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출산한 지 3개월 된 아들과 12세 딸, 10세 딸, 4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직장을 옮겨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 다녀야 하는데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한국말을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로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학교도 보내려고 서울에 있는 몽골 학교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졸업생이 생겨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기자로 등록은 해 놓았는데, 3년~4년이 넘어야 하고 그것도 보장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이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교육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몽골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29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은 복지기관에서 지원받았지만, 190만 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당장 네 명의 자녀들이 병원 가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본의 아니게 갑자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질 줄 몰랐지만, 4명의 자녀를 위해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코마라 (스리랑카)

단속이 두려워 밖에 잘 안 나가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한국행 후회하지 않아요
허리가 아프지만,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것을 멈출 수 없음

저(1994년생)는 스리랑카에 있을 때 19살에 군대에 자원입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있었던 한국 군인유도대회에 참석한 후 스리랑카로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온 2명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15세 때부터 유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했더니, 스리랑카로 가지 말고 공장에서 일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의 집 형제가 8명(누나 2명, 형 1명,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이 되다 보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2017년 4월에 출입국의 단속으로 같이 온 2명의 친구는 단속되어 스리랑카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2명의 친구는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3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인의 신분이었고, 스리랑카 대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스리랑카에 가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가족의 생계가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가난이 가져다준 벌이라면 받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공장은 친구들이 단속이 된 공장이지만 계속 일하면서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가구를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이주노동자 23명 있습니다. 등록(스리랑카 2명, 방글라데시 8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스리랑카 2명, 태국 11명) 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스리랑카 4명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같이 있어 좋지만 기숙사는 3층에 있고 화장실이 1층에 있어 사용이 불편합니다. 4년 전에는 저와 스리랑카 1명이 기숙사를 썼는데, 세네갈에서 온 미등록이주노동자와 1년 동안 한 기숙에서 함께 기숙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세네갈 친구들과 잘 안되는 한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가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서로 문화는 달랐지만 피부색이 같아서 그랬는지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함께 웃음!!!).

쉬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나 노래하며 지냅니다. 2017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이 단속되어 간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저의 또래들이 없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일도 없습니다. 같이 있는 형들과 놀러 오는 형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해 주고 좋은 형들입니다. 형들이 휴가 때 강원도로 가면 저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많이들 돌봐주십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기숙사에서 노래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공장마다 노래방 시설을 해놓습니다. 때로 밤에 늦게까지 노래하면 민원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기숙사에 노래방 시설을 하고 싶지만, 기숙사가 좁기도 하고 민원으로 단속될지 몰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으로 2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7년 동안 일해 스리랑카에 집도 샀고, 조금만 한 오토바이 수리하는 가게도 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16살에 만난 14년 동안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에는 빨리 오라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저도 1년 저부터는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MRI 검사를 받았는데, 디스크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군인으로 생활할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무거운 나무 자재들을 옮기면서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에 병원에 가서 10만 원씩 주고 주사를 맞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더 무리하게 되면 수술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인 저는 오늘도 무거운 나무 자재를 옮겨야 합니다. 저도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까요!

산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인력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초기부터 고용허가제의 업종별 사업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단순・비숙련 위주로 외국인력이 수요・공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허가제의 업종별 사업장 규모의 현황을 보면 2022년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 33.0%이고, 11인 이상~30인 이하 사업장이 37.6%로 영세한 사업장이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하 2019년~2021년을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영세사업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키면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노동권 침해 등으로 국제사회 내에서 국가 이미지 손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다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또한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 상승에도 악영향을 가져다줍니다. 외국인력과 내국인이 경쟁하면서 임금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내국인의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고, 이주노동자 역시 취약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 산업도 국제사회의 경쟁력에서 도태되어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 산업구조는 몸통이 없는 재벌기업과 하청(외주화)기업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저임금 구조의 산업구조(산업환경)를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외국인력 제도에서 노동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일몰제(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설정)를 두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업종별 사업장 규모의 현황

구분	2021					2022					
	10인 이하	11인 이상~30인 이하	31인 이상~50인 이하	51인 이상~100인 이하	101인 이상~300인 이하	10인 이하	11인 이상~30인 이하	31인 이상~50인 이하	51인 이상~100인 이하	101인 이상~300인 이하	합계
총계	52,975	59,731	21,958	15,237	9,119	**66,970 (33.0%)**	**76,208 (37.6%)**	**29,471 (14.5%)**	**19,461 (9.6%)**	**10,566 (5.2)**	202,676
제조업	34,150	53,859	19,888	13,447	8,420	40,421 (24.7%)	68,705 (42.0%)	26,971 (16.5%)	17,630 (10.7%)	9,973 6.0%)	163,700
건설업	630	1,571	1,285	1,494	590	734	1,759	1,426	1,460	469	5,848
농축산업	12,518	4,171	717	265	107	17,143 (71.0%)	5,574 (23.1%)	966	335	120	24,138
서비스업	34	95	68	31	2	37	101	105	36	4	283
어업	5,643	35	0	0	0	8,635 (99.2%)	69 (0.8)	3	0	0	8,707

구분	2019					2020				
	10인 이하	11인 이상~30인 이하	31인 이상~50인 이하	51인 이상~100인 이하	101인 이상~300인 이하	10인 이하	11인 이상~30인 이하	31인 이상~50인 이하	51인 이상~100인 이하	101인 이상~300인 이하
총계	76,470	78,778	30,586	21,932	14,588	61,223	65,613	25,027	17,053	11,668
제조업	49,607	70,933	27,879	19,037	13,239	39,269	58,527	23,190	15,110	10,291
건설업	698	2,002	1,674	2,522	1,235	600	1,887	980	1,634	1,281
농축산업	17,513	5,647	900	341	104	14,519	5,046	755	277	92
서비스업	57	126	133	32	10	41	97	102	32	4
어업	8,595	70	0	0	0	6,794	56	0	0	0

고용노동부

BJ (필리핀)

고향에 두고 온 간호사의 꿈
말솜씨를 살려 판매 일을 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없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준비를 하며

저는(1971년 10월 1일생) 1996년 12월에 여행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파주시에서 꽃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7년 IMF로 1년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삼촌과 사촌들이 있는 마석가구공단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IMF로 인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한 번만 밥을 먹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아르바이트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처 평내 지역의 토마토농장에서도 아르바이트했는데 2만 원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은 평내동에서 옷 세탁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마석가구공단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25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대 전에는 임금체불도 많았습니다. 이후 이주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 간에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런 다툼이 커져서 국가 간에 힘겨루기도 있었습니다. 공중전화할 때 다툼이 많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함께 웃음!!!).

그동안 가구 무늬목 공장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일해 왔는데, 1년 전부터는 페이스북(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필리핀 물건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사능, 월산리, 마석가구공단 내에 창고들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상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하면서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재미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코메디언 소질이 있어서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면 인센티브 (incentive)로 한 달에 많이 벌면 400만 원 수준이고, 평균 3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서울에 있고, 저는 판매원입니다.

익살스러운 저의 말솜씨에 필리핀 친구가 소개해 주어 시작했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돌아다니면서 상품들을 정리해야 하고, 새로 들어온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상품의

설명서를 숙지하면서 소개말의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품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는 몸이 힘들었지만, 이 일 하면서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가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품을 주문받으면 택배로 보내 주는데, 외상을 하고 입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손해를 보내 됩니다. 상품을 받고 필리핀으로 그냥 가 버리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쉬운 일은 없고, 다 힘이 듭니다.

필리핀에서 있을 때는 1993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1996년에 한국에 올 때 둘째 형이랑 같이 왔는데 2002년에 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10명인데 그중 3명이 죽었고, 7형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2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50세를 넘어 필리핀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옛날 사진들을 자주 보고, 필리핀 노래도 많이 듣게 됩니다.

전태일 열사와 이주노동자

혹자들은 흔히 88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주민이 유입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1987년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과 더불어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노조의 설립, 임금 상승,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최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1987년 12월 말 기준 노동조합 수 4,103개(1986년 2,675개), 조합원 수 1,267,457명(1986년 1,035,890)으로 증가했고, 1987년에 일어난 노동쟁의 3,749건 중 3,341건이 7・8・9월에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으로 국내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대폭적인 임금 상승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에 맞물려 이 시점에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암묵적인 방치 속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D업종의 저임금 구조의 산업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있던 그 자리에 이주노동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처절한 절규가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외침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 ☞ 1994년 : 산재 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요구하며 농성
- ☞ 1995년 : 산업연수생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폭행과 욕설, 임금체불, 여권과 통장 압수 등 노동권 탄압에 저항하여 농성
- ☞ 2003년 11월 15일~2004년 11월 28일 : 강제 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농성 투쟁

노동자 대투쟁으로 국내 노동자의 연대와 사회적 계급의 상승을 가져다주었는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 자본의 거대한 음모에 갈라치기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과 다국적 기업으로 진화하고, 노동은 유연화 등으로 노동자를 옥죄는 사이에 노동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등으로 계급이 분열되었습니다. 그 가장 하부에 기간제·비정규직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조차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노동자에게는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모습이 이주노동자에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노동,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투쟁의 깃발 아래 모든 노동자가 대동단결 연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 해방의 그날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설문 조사

- 마석가구공단 거주자를 중심으로-

Ⅰ.기본사항

· 국적·성별·연령·학력·종교

전체		166	100.0
국적	네팔	16	9.6
	방글라데시	68	41.0
	베트남	3	1.8
	태국	17	10.2
	필리핀	62	37.4
성별	남성	118	79.2
	여성	31	20.8
연령	20-39세	62	40.0
	40-49세	54	34.8
	50세 이상	39	25.2
학력	고졸미만	26	17.9
	고졸	55	37.9
	대졸이상	64	44.1
종교	카톨릭	26	19.7
	기독교	11	8.3
	이슬람교	66	50.0
	불교	17	12.9
	힌두교	7	5.3
	없음	3	2.3
	기독교&불교	1	0.8
	기독교&기타	1	0.8

마석가구단지에는 대략 800 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국적은 방글라데시, 필리핀 순으로 많으며 성별에 있어서도 남성이 대다수이며 종교적 성향(보수적)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령에 있어서는 40대 미만이 40%, 5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마석가구단지에는 장기체류 미등록 체류자가 단연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 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	본국	110 (78%)	가족수 평균	5.0 (최소: 1, 최대: 15)
	한국	31 (22%)		2.0 (최소: 1, 최대: 6)

현행 외고법 상에서는 가족을 동반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체류의 경우는 가족을 구성하여 체류를 하고 있다. 마석가구단지 초기에는 남성(父)이 먼저 입국하여 어느 정도 안정기(대략 2~3년 이후)에 접어들면 여성(母)이 입국하여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양육비 및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어 5~6년 후에는

여성과 자녀는 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된다. 필리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있어서는 공단 내에서 가족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자녀가 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녀만 본국으로 보내고 부모는 계속해서 체류를 하며 이주노동을 한다. 미취학 아동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지개보육실을 통해 10명 있고, 그밖에도 사설이 운영하는 보육실을 다니거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10여 명이 있다. 또한, 학교장 재량 허가에 따라 의무교육에 초,중,고에 진학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현재는 마석초등학교에 12명이 재학 중에 있다.

1.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는 무엇이었고 입국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전체	143	100.0
①E-9(비전문취업)	41	28.7
②H-2(방문취업)	7	4.9
③E-1~E-7(전문인력)	7	4.9
④ D-2, D-4-1, D-4-7(유학생)	4	2.8
⑤F-4(재외동포)	0	0.0
⑥F-5(영주), F-5-2(국민의 배우자)	0	0.0
⑦F-6(결혼이민,구F-2-1)	3	2.1
⑧ F-2(거주)(F-2-1은 제외)	0	0.0
⑨F-1(방문동거),F-3(동반)	7	4.9
⑩ C-3(단기체류)	53	37.1
⑪ 기타	21	14.7

초기 입국 비자에 있어 단기비자(C-3) 37.1%와 기타 14.7%(산업연수생 등)을 포함하여 51.8%가 미등록 상태에 놓여 있다. 참고적으로 국내 미등록 체류 비자를 보더라도 단기비자(C-3)가 미등록 체류의 가장 큰 통로이며, 합법적인 이주노동에서도 고용허가제와 유학생이 미등록 체류로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91	100.0
1992~2000 (25년 이상)	7	7.7
2001~2005 (20년 이상)	16	17.6
2006~2010 (15년 이상)	11	12.1
2011~2015 (10년 이상)	26	28.6
2016~2020 (5년 이상)	31	34.0

미등록 체류 기간에 있어 10년 이상 26%가 가장 많은 측면이 있다. 이를 기점으로 미등록 체류 5년 이상 34%와 장기 미등록 체류 37.4%가 나타나듯이 10년 미등록 체류를 기점으로 본국으로의 귀국과 장기 체류로 전환되어지는 분수령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최장 9년 8개월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10년 체류가 적정선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주노동을 결심하기 전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	152	100.0
①낯선 환경과 문화	76	50.0
②본국에 있는 가족 걱정	42	27.6
③자신의 안전(건강, 산업재해 등)	17	11.2
④차별과 혐오	4	2.6
⑤기타 ( )	1	0.7
1 & 2	4	2.6
1 & 2 & 3	1	0.7
1 & 2 & 3 & 4	3	2.0
1 & 3	1	0.7
1 & 4	1	0.7
2 & 3	1	0.7
3 & 4	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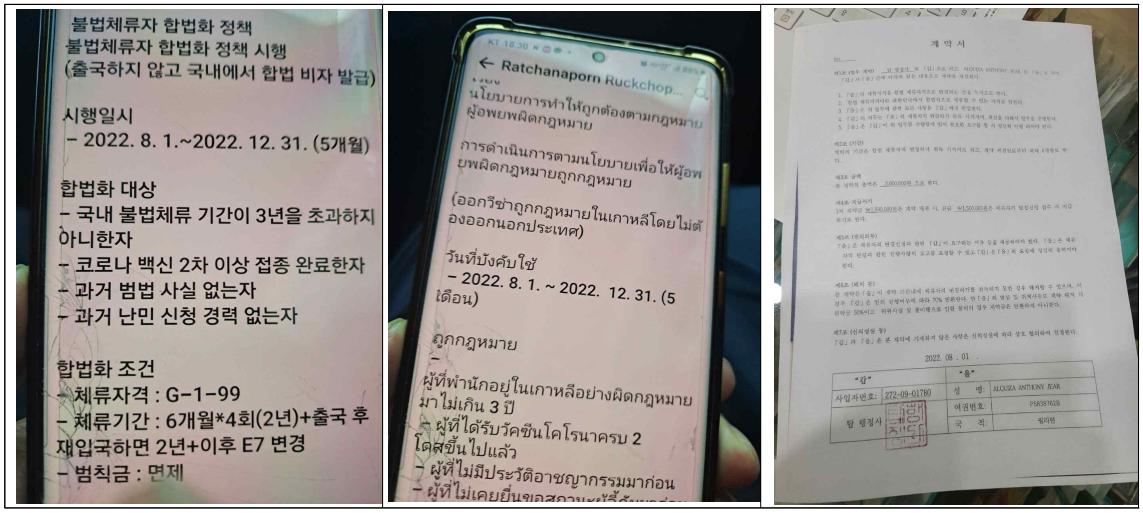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타국에 가면서 겪게 되는 고충은 국경뿐만이 아니라 50%의 낯선 환경에 따른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 충격으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된 이주노동은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3. 본국에 있을 때 이주노동과 관련한 정보를 얻은 곳은 어디입니까?

전체	155	100.0
①친구	95	61.3
②가족	21	13.6
③브로커	11	7.1
④공식구인업체	5	3.2
⑤공공기관	16	10.3
⑥기타	3	1.9
1 & 2	2	1.3
1 & 3	1	0.7
1 & 5	1	0.7

이주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재화 획득과 선진 문화에 따른 성취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주노동의 결정에 있어 친구, 가족의 유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정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 가족과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SNS 등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정보는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등록합법화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기도 한다. (아래는 합법화 조치가 있다는 가짜 정보)

4. 한국을 이주노동 대상국가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



전체	151	161.6
①아는 사람의 추천	22	14.6
②높은 보수	100	66.2
③입국 시 저렴한 비용	15	9.9
④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	50	33.1
⑤쉬운 입국절차(방법)	13	8.6
⑥한국 국가 이미지	19	12.6
⑦기술 습득	22	14.6
⑧기타	3	2.0

한국을 이주노동 국가로 선택한 이유는 높은 보수로 66.2%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을 유입하는 아시아지역의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1994년 산업연수생제도 이후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송출비용이 축소된 측면도 반영이 되고 있고, 미흡하나마 범죄피해 및 노동권 침해에 대한 나름의 보완 장치가 마련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다른 국가에서 이주노동경험이 있었다면 어느 국가입니까?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있다	17	12.5
없다	119	87.5

이주노동은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였고, 경제적 차이로 인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한번 이주노동을 경험한 이주노동자는 본국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선택으로 재이주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본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불

안정으로 인해 재정착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이주노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있어 이주노동을 장려하거나 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최초 입국 시 비자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144	100.0
①처음부터 이주노동을 목적으로 입국	40	27.8
②좋지 못한 노동환경(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내 괴롭힘 등)	21	14.6
③일하던 사업장의 문제(사업장 변경 불승인, 회사의 폐업, 행정 미숙 등)	11	7.6
④바뀐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14	9.7
⑤고용노동부 노동행정 문제(구직알선 등)	1	0.7
⑥체류비자 만료전 미출국선택	45	31.3
⑦기타	4	2.8
1 & 2	1	0.7
1 & 4	1	0.7
1 & 4 & 6	1	0.7
2 & 3	3	2.1
2 & 5	1	0.7
4 & 6	1	0.7

미등록 이주노동을 목적으로 27.8%와 체류비자 만료 전 미등록 이주노동 31.3%를 미루어보면 미등록 체류의 유인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과도한 행정 절차 및 사업장의 불가피한 상황(사업장변경 불승인, 회사의 폐업, 행정 미숙 등)으로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은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에서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재화 획득에 대한 욕구가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Ⅱ.생활환경

1.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전체	157	130.6
① 방송매체(TV,라디오등)	47	29.9
② 인터넷 매체(블로그, 카페, SNS등)	73	46.5
③ 인쇄매체(신문, 잡지, 병원, 매거진 등)	6	3.8
④ 지인추천(친구, 이웃 등)	72	45.9
⑤ 기타	7	4.5

이주노동자의 정보 획득은 인터넷 매체(블로그, 카페, SNS등) 46.5%, 지인추천(친구,

이웃 등) 45.9%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만 해도 정보 기기가 발달되지 못해 인쇄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본국의 정보(정치, 경제, 사회 등)도 알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인터넷 매체로 인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 소외감도 해소될 수 있었다.

2. 평소 생필품이나 식료품은 주로 어디서 구매합니까?

전체	159	138.4
① 마석 가구공단 내 슈퍼	110	69.2
② 대형마트	66	41.5
③ 인터넷 쇼핑(택배 배송)	19	11.9
④ 편의점	19	11.9
⑤ 지인,이웃에게 구매	6	3.8

마석가구공단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마트가 늘어나면서 이주노동자 국가의 식료품들도 들어오게 되었다. 마트에는 각종 채소 및 고기, 식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초기에는 13개 정도의 마트가 형성되었었고, 음식점도 4개가 있었다. 마석가구공단 내에 마트를 이용하는 것(69.2%)은 편의성도 있지만, 교통수단의 열악성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 주로 마석시내의 상가와 장터 날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호평지역에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점차적으로 호평지역 상점과 E마트를 이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물품 구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3. 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전체	158	163.9
① 버스	69	43.7
② 기차 또는 지하철	47	29.7
③ 택시	57	36.1
④ 오토바이	21	13.3
⑤ 자가용(개인차)	2	1.3
⑥ 도보	63	39.9

이주노동자의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 43.7%, 도보 39.9%, 택시 36.1%, 기차 및 지하철 29.7%, 오토바이 1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스·기차·지하철은 우선적으로 저렴하여 이용이 많고, 체류기간이 제법 오랜 된 이주노동자가 이용을 하게 된다. 도보는 공단 내 이동이 대부분 짧고, 마석 시내 주변도 4Km이내 범주이기 때문에 도보를 이동한다. 반면에 택시의 이용은 목적지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이동할 경우 이용을 하게 된다. 한편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오토바이이다. 협소한 공단 내에 빠른 이동과 용이성을 지니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선호한다.

4.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주로 어떤 여가생활을 하며 보냅니까?(복수응답 가능)

전체	156	165.4
① 운동	42	26.9
② 모임 및 사교활동	39	25.0
③ 영상매체 시청(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TV 등)	100	64.1
④ 여행(주거지역 외)	35	22.4
⑤ 쇼핑	29	18.6
⑥ 기타	13	8.3

마석가구공단은 양돈·사축을 개조하여 공장으로 전환하다보니 도로 및 주택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단 내에는 문화 공간 내지 휴게공간이 전무하다. 그나마 녹촌 분교의 운동장을 활용하였지만, 몇 년 전에 폐교가 되었다.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주거시설 내에서만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대체로 외부로 나가야만 한다. 64.1%가 대부분 주거시설 내에서 영상매체에 의존하고, 센터에 있는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22.4%는 여행이라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게 된다. 25.0%도 외부나 공단 내 친구들과 함께 자국 음식을 만들고 환담을 나눈다. 18.5%의 이주노동자는 필요한 생필품과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낼 물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5.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 가구, 재활용품)의 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전체	159	100.0
① 규격봉투(음식물, 쓰레기봉투) 또는 폐기물 스티커 활용	139	87.4
②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다.	14	8.8
③ 조치 없이 그냥 버린다.	2	1.3
1 & 2	4	2.5

마석가구공단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수월하지 않다.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협소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위치도 정해지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방치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홍보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하여 87.4%로 고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최근(6개월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방문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전체	132	114.4
① 단순 외래 진료(감기 등)	64	48.5
② 심장질환(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 및 심혈관질환)	3	2.3
③ 소화기계통 질환(위, 장, 간 등)	13	9.8
④ 내분비 및 대사질환(당뇨, 갑상선 등)	10	7.6
⑤ 호흡기계통 질환(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	7	5.3
⑥ 정형외과 질환(척추, 관절염, 고관절, 골절 등 근골격계)	25	18.9
⑦ 정신 및 행동장애	3	2.3
⑧ 백내장, 눈 질환	4	3.0
⑨ 기타	22	16.7

마석가구공단은 가구를 제작하면서 많은 분진과 화학 염료의 도색 작업들을 하다 보니 호흡기 계통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강도의 노동을 요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및 근골격계질환도 많다.

6-1. 의료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전체	148	146.6
① 진료비가 비싸서	86	58.1
② 일을하고있어서	19	12.8
③ 언어소통이 안 되서	84	56.8
④ 거리가 멀어서	4	2.7
⑤ 병원에 대한 정보부족	21	14.2
⑥ 기타	3	2.0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진료비와 언어소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료비는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보험수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 간단한 외래진료에 있어서도 3~4배의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수술을 요할 경우 1,000만원이 넘은 의료비는 감당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의학적인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생활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확한 진료를 받기 쉽지 않다. 또한, 증상에 따라 가야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쉽지 않다.

7. 민간의료공제회를 알고 있습니까?

전체	150	100.0
알고 있다. (7-1문항 이동)	45	30.0
모른다.	105	70.0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

터 이주노동자 공제회가 구성하여 진행되어 왔다. 센터에서도 공제회에 가입하여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사전적인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7-1 알고 있다면, 가입 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103	100.0
가입 하고 있다.	29	28.2
가입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15	14.6
가입 해 본적 없다.	59	57.3

7-2 가입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58	100.0
①공제회비가비싸다.	10	17.2
② 병원에 잘 가지 않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25	43.1
③병원에서공제카드를잘모른다.	8	13.8
④의료공제카드사용방법을모른다.	8	13.8
⑤센터직원의불친절한안내	1	1.7
1 & 2	1	1.7
1 & 3	3	5.2
1 & 3 & 4	1	1.7
1 & 5	1	1.7

8. 본국귀환을 위한 준비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전체	138	100.0
매우 못하고 있다	7	5.1
못하고 있다.	27	19.6
보통이다	55	39.9
잘하고 있다.	27	19.6
매우 잘하고 있다.	22	15.9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정주화를 허용하지 않고, 단기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국으로 귀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특히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단속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인해 언제나 출국에 대비해야 한다. 마석가구공단의 경우 보통 이외에 '잘하고 있다'가 35.5%를 차지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는 24.7%를 나타내고 있다. 체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이주노동의 악영향을 주어 유·출입의 양국가간에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귀국 시에도 재정착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단기순환을 고수 한 이주노동자의 귀환재정착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며, 유출·입을 하는 상호 국가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9. 본국귀환을 위해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준비가 있다면?

B9_1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① 저축	82	10
② 기술습득	58	7
③ 투자(부동산 및 금융상품)	21	17
④ 창업	21	9
⑤ 내 집 마련	54	10
⑥ 계획 없음	24	11
⑦ 기타	1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저축, 기술습득, 미래설계, 투자(부동산 및 금융상품) 등이 필요하다. 마석가구공단의 이주노동자는 저축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송금은 대체적으로 생활비용(가족의 생계비, 학자금 등), 주택과 가게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정작 이주노동자 본인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귀환 시에 별다른 사회·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이주를 꿈꾸게 된다.

Ⅲ.주거환경

1.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전체	143	100.0
①컨테이너	26	18.2
②조립식판넬	47	32.9
③기숙사	10	7.0
④주택	45	31.5
⑤ 아파트	15	10.5

마석가구공단 내 숙소의 형태는 32.9%의 조립식 판넬 형태로 중앙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7평 규모의 방과 화장실이 있는 형태이다. 31.5%의 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도 기존의 한센인들이 거주하다가 한센인들이 외부로 나가고 이주노동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마석가구공단의 조립식 판넬 형태는 취약하고, 공단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까?

전체	134	100.0
① 임대차계약서미작성	68	50.8
② 임대차계약서 작성 (작성하였다면 2-1문항 이동)	57	42.5
③ 무료 숙소 제공이라 계약서가 없다.	9	6.7

마석가구공단 내의 건물 자체가 허가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의 효용성에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암묵적으로 주택을 제공함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미작성이 50.8%를 차지하고 있다.

2-1. 작성하였다면 본인도 계약서 전달 받았습니까?

전체	110	100.0
①못받았다.	54	49.1
②받았다.	56	50.9

임대차계약서가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49.1%를 찾아하고 있음.

3. 살고 있는 집에는 방과 화장실 몇 개 가 있습니까?

방	141	1.5	1
개인 화장실	114	1.2	1
공동 화장실	35	1.1	1
거실	23	1.0	1

주거(집)의 형태에서 보았듯이 조립식 판넬과 70년대 형성된 주택의 경우 1차적으로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의 발생과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조립식 판넬의 경우 문이나 창문을 개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소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환풍시설이 없고, 주변 공장의 화학물질의 냄새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노후 건축물이라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냉난방 비용도 더 많이 나온다. 주거시설은 조립식 판넬의 경우 나열형으로 중앙 복도를 중심으로 칸칸이(닭장)으로 되어 있고, 각 방에는 5평 규모 이내로 창문 1개와 거실이 없이 한쪽 구석에 싱크대가 놓여 있고,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다. 때로는 화장실이 방에 없고, 외부에 놓여 있다. 거실이 있는 경우는 오래된 주택으로 거실을 중심으로 3~4개의 방이 있다.

4.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체	152	100.0
① 없다	70	46.1
② 있다.	82	54.0

함께 동거하는 경우 54%는 기숙사 비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58.9%는 몇 명이 같이 생활을 하거나 29.9%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선택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기숙사가 협소함으로 2인이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1인 생활을 하게 된다. 위 동네의 경우에는 다세대가 거주할 수 있어서 같은 국가의 친구들이 모여 생활을 한다. 타국에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본국의 음식을 조리하며 타향의 향수를 나눈다.

4-1. 함께 사는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107	100.0
①친구,지인	63	58.9
②가족	32	29.9
③친척	5	4.7
④ 기타	7	6.5

5. 살고 있는 집의 지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	평균	최솟값	최댓값
① 보증금	96	841,563	100,000	6,000,000
② 월세	133	249,331	100,000	788,000
③ 전기/수도/가스세 외	86	111,721	10,000	700,000
④ 케이블tv/인터넷	77	28,001	10,000	200,000

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841.563원이고, 월세는 249,331원, 전기/수도/가스비는 111,721원, 케이블tv/인터넷은 28,001원으로 보증금을 제외한 주거비는 평균 총 389,053원이다. 합법 이주노동자 중 기숙사 제공을 받지 못한 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동환경 문항 7.에서 이주노동자의 평균 급여 2,007,519원으로 나타나는데, 주거비는 19.4%를 차지한다. 작은 방의 규모에 비해 월세가 최대 778,000원으로 이주노동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을 위해 LPG에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200,000원~300,000원에 든다. 이로 인해 전기장판을 이용하기도 한다.

6. 월세/전기/수도/가스세/케이블tv/인터넷 등 영수증을 전달 받으시나요?

전체	139	100.0
①못받았다.	39	28.1
②받았다.	100	71.9

7.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1~10점 체크 해주세요)

매우 불만족	1	0.7
블만족	4	2.7
보통	56	37.3
만족	58	38.7
매우 만족	31	20.7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을 제외하고 59.4%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택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국의 주거환경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의 급여에서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고, 공단 내에 딱히 주거시설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조립식 판넬 내지 오래된 주택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8. (매우) 불만족 하신다면 그 이유는? (3가지 선택)

전체	82	200.0
① 높은 월세 비용	46	56.1
② 높은 전기,수도세	43	52.4
③ 임대인, 관리인의 갑질	5	6.1
④ 노후된 시설(도배, 장판, 화장실, 싱크대 등)	45	54.9
⑤ 안전의 위험성(화재, 누수, 동파, 낡은건물등)	17	20.7
⑥ 사생활 노출(심한소음, 잠금장치취약, 외부인잦은출입 등)	5	6.1
⑦ 다른 국가 이주민과 같은 거주 공간 함께 있어서(문화, 언어, 종교가 다름)	3	3.7

월세(56.1%), 전기와 수도세(52.4%) 등 주거비가 높은 것에 불만은 이주노동자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거시설은 열악한데 비해 월세는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 및 수도는 계량기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전체 세대에서 N분의 1로 나누다보니 상호간에 신뢰보다는 불신감이 크다. 시설의 노후화로 안정성이 위협(화재, 누수, 동파 등) 받지만 임대인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 간혹, 공단 내 기숙사와 공장에서 화재가 빈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Ⅳ.노동환경

※한국에서 현재 근무했던 경험만을 가지고 작성.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에 근로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

1.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109	100.0
있다	89	81.7
없다	20	18.4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81.7%, 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18.4%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 조사를 할 당시,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사업장에 일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분주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백화점, 모텔, 음식점 등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노동자들이 투입되어 일을 했다.

2. 일하는 사업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전체	143	100.0
① 제조업(생산직,사무직)	120	83.9
② 요식업(식당,카페등요식업종사자)	2	1.4
③ 돌봄보육 (어린이집 교사, 하우스키퍼 등)	4	2.8
④ 배달 (택배기사, 배달원, 물류센터)		
⑤ 프리랜서 강사 (문화센터, 학원, 학습지 강사 등)		
⑥ 문화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⑦ 기타	17	11.9

마석가구공단 특성상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장이 8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로 신발 및 플라스틱 사출, 섬유, 유리 사업장이 있다. 마석가구공단의 이주노동자는 공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숙 기능을 요하는 작업을 하지만, 가구를 만들기 위한 공정에 따라 숙련 기능을 요한다. 때로는 이주노동자 중 숙련 이주노동자가 공장장 역할을 하며 같은 나라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을 한다. 사업주는 외부 일을 하고, 공장의 열쇠까지 이주노동자 공장장에게 맡기기도 한다.

3.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전체	148	100.0
① 정규직 ☞ 월급제○, 근무기간 제한×	97	65.5
②계약직☞월급제○,근무기간제한○	15	10.1
③ 일용직	33	22.3
④ 간접고용 ☞ 파견, 용역		
⑤ 기타	3	2.0

고용형태에 있어 정규직(월급제)는 65.5%이고, 계약직(월급제)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 마석가구공단에 있어 정규직(월급제)를 보장받는 이주노동자는 장기 미등록체류자로 상당한 숙련기능을 갖추고 있고, 성실한 면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된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알바 형태로 사업장의 수주 받은 주문량이 많을 경우 필요에 따라 고용이 된다. 일용직 22.3%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초기 경험자이거나 유동성(사업장 선택의 자유로 사업장 내 갈등, 임금지급의 지연 등)이 많아 발생한다. 또한, 정규직(월급제)보다 알바 일 경우 숙련도에 따라 급여가 높고, 탄력성 있게 휴일을

조정할 수 있어 숙련 이주노동자는 이를 선호한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월급제)보다 숙련 이주노동자는 인테리어 쪽에서 일을 하면서 축약된 노동(주·야간 추가 수당 등)으로 많은 급여를 받기도 한다.

4.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149	100.0
① 6개월 미만	15	10.1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2	8.1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15	10.1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22	14.8
⑤ 3년 이상 ~ 5년 미만	31	20.8
⑥ 5년 이상 ~ 7년 미만	13	8.7
⑦ 7년 이상 ~ 10년 미만	19	12.8
⑧ 10년 이상	22	14.8

근무기간에 있어서는 2년 미만은 28.3%으로 초기 및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이고, 2년 이상~5년 미만이 45.7%는 사업장에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5년 이상 ~ 10년 미만자는 21.5%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이며, 10년 이상 역시 14.8%로 마석가구공단은 적어도 숙련 기능 인력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장기 미등록 체류와 함께 고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기재해주십시오.(사무실 직원 포함)

	N	평균	최솟값	최댓값
한국인	130	7.2	1	100
외국인	128	4.0	1	25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한국인이 평균 7.2명이며, 이주노동자는 4.0명이다. 최댓값에서는 한국인이 100명, 이주노동자는 25명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공단 내에 한국인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는 사무실의 사무직을 포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모두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 평균에 따라 동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는 젊은 층이 없다는 점이다. 대략적으로 공단 내 한국인의 연령은 높은 축이다.

6. 평균 1주 동안 실제 총 근로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함)

전체	148	100.0
① 40시간이하	28	18.9
② 48시간미만	53	35.8
③ 52시간미만	43	29.1
④ 60시간미만	17	11.5
⑤ 60시간 이상	7	4.7

주 40시간 이하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불과 18.9%에 달하고, 52시간미만은 64.9%이며, 60시간미만 ~ 60시간 이상이 16.2%를 차지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류기간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단기에 재화 마련을 위해 장시간을 노동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육체적 무리로 인해 질환이 수반되게 된다.

7.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총액은 얼마입니까? (세금 및 각종 수수료 공제 전)

N	평균	최솟값	최댓값
133	2,007,519	1,000,000	4,000,000

이주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7,519로 나타나고, 최대 4,000,000원이다. 4,000,000원의 경우는 인테리어를 통한 추가수당이 포함되어 받게 되는 임금이고, 평균 임금은 남성 이주노동자에 해당이 되며, 최솟값으로 나타나는 1,000,000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의 숙련과 강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20~40% 적게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이주노동자가 동일하게 일을 하는데, 여성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8. 월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령합니까?

전체	152	100.0
①통장으로 지급	71	46.7
②현금으로 지급	65	42.8
③통장과 현금 따로 지급	15	9.9
④ 기타	1	0.7

월급의 수령 방법에 있어 46.7%는 통장으로 수령하고, 통장 외에 방법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53.4%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통장 외 방법으로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 방법이 별도로 없어 분쟁의 소지가 발생된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근로 세금과 관련 해 이를 악용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9.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3순위 번호 기입 해주세요)

전체	126	190.5
① 의사소통의 어려움	71	56.3
② 경력부족	43	34.1
③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27	21.4
④ 낮은 임금	49	38.9
⑤ 외국인에 대한 차별	25	19.8
⑥ 어려움 없었음	18	14.3
⑦ 취업을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4	3.2
⑧ 기타	3	2.4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에 겪는 어려움은 우선적으로 56.3%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에 있어 이해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어 낮은 임금이 책정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작업 직능에 접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욕설 등)과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면 변화 없이 반복이 된다. 이주노동자 역시 이러한 사업장을 기피하게 된다.

10. 사업장(일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1순위~5순위 번호 기입 해주세요)

전체	114	273.7
①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	12	10.5
② 임금 삭감, 반납, 지급지연	25	21.9
③ 임금체불	42	36.8
④ 퇴직금 체불	44	38.6
⑤ 강제 휴가 사용	31	27.2
⑥ 강제 근로	21	18.4
⑦ 폭행, 폭언, 욕설	14	12.3
⑧ 인종차별	17	14.9
⑨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0	0.0
⑩ 과도한 숙식비공제	7	6.1
⑪ 종교 활동의 제한	6	5.3
⑫ 권고사직, 계약해지, 해고 등	4	3.5
⑬ 질병, 부상, 산업재해 등	9	7.9
⑭ 한국인 직원과의 갈등	15	13.2
⑮ 여권 압류	2	1.8
⑯ 강제출국에 대한 협박등	17	14.9
⑰ 사업장변경에 대한 거부	14	12.3
⑱ 경험한적없음	31	27.2
⑲ 기타	1	0.9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임금체불은 상시화 되어있다. 퇴직금을 정립하거나 이를 주려고 하는 사업장도 없다. 간혹, 귀국 시에 항공료를 지급해 주지만 이도 흔하지 않다. 임금체불 해소에도 사업장 내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하며 이주노동자는 지급을 지연한다. 열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내국인과의 갈등이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폭행, 폭언, 욕설이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강도 높은 노동은 이주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역시 강제 휴가 사용, 강제 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과도한 숙식비 공제 및 사업장변경에 따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11.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1순위~5순위 번호 기입 해주세요)

전체	123	291.1
① 낮은 임금	81	65.9
② 임금, 퇴직금 체불 또는 지급지연	30	24.4
③ 회사의 경영악화	41	33.3
④ 질병, 부상, 산업재해 등	17	13.8
⑤ 열악한 근로환경	35	28.5
⑥ 높은 업무강도	26	21.1
⑦ 업무의 높은 위험성	39	31.7
⑧ 권고사직, 계약해지, 해고 등	13	10.6
⑨ 동료와의 갈등	25	20.3
⑩ 좋은 조건의 이직기회	27	22.0
⑪ 친구 등 아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서	20	16.3
⑫ 기타	4	3.3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고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측면이 있다. 사업장의 조건과 여건이 좋지 않아도 높은 임금을 선호하여 이직을 결정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직을 고려하는 순위는 임금과 관련되어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업무강도, 업무의 위험성, 동료와의 갈등, 좋은 조건의 이직 기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귀하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고 경험여부에 대해 체크해주세요. (√로 구분)

전체	73	100.0
① 산업재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	12	16.4
② 산재는 아니지만 경미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	7	9.6
③ 산업재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다.	52	71.2
1 & 3	1	1.4
2 & 3	1	1.4

3D 업종의 특성상 작업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언어숙지 및 미숙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장시간·고강도 노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겪는 산재는 작업 중에 기계에 끼임(절단)이 가장 많고 깔림, 낙상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13. 산업 재해를 경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전체	110	100.0
① 안전교육 미실시	40	36.4
② 안전장치 미설치	8	7.3
③ 본인 또는 동료의 실수	18	16.4
④ 의사소통의 어려움	12	10.9
⑤ 부당한 업무지시	6	5.5
⑥ 안전장비 미지급(안전화 & 안전모 등)	7	6.4
⑦ 기타	5	4.6
1 & 3 & 5 & 6	1	0.9
1 & 2 & 3 & 4 & 5	1	0.9
1 & 3 & 4	2	1.8
1 & 3 & 6	1	0.9
1 & 4	4	3.6
2 & 3	1	0.9
2 & 5	1	0.9
3 & 4	1	0.9
3 & 5	1	0.9
3 & 6	1	0.9

산업안전교육은 의무적이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을뿐더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도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물며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화, 안전모, 산업 방진마스크 조차 지급해 주지 않는다.

14.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상병이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전체	131	100.0
① 산재처리	17	13.0
② 사업장과 합의처리	21	16.0
③ 개인처리	50	38.2
④ 산업재해 사고경험 없음.	43	32.8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13.%)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는 이를 회피하고 공상처리(16.0%)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는 초기 산재에 따른 병원비 정도 지급을 하고, 산재 후 보상 및 재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특히나 업무상 부상(산재 포함)과 질병에 있어서도 개인의 부주의로 탓하여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

15.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체	117	100.0
①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 실시	18	15.4
② 직무교육이나 아침조회 시 같이 실시	16	13.7
③ 교육자료 배포나 서명으로 대처	7	6.0
④ 안전교육 미실시	73	62.4
1 & 2	1	0.9
1 & 2 & 3	1	0.9
2 & 3	1	0.9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마석가구공단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비인가 사업장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은 희소하다.

16. 사업장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교육이 필요
▪ 구급상자가 필요하다.
▪ 단결하여 함께 일하기를 바람.
▪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을 통한 직원의 안전 확보
▪ 안전한 환경 보장과 적절한 치료
▪ 월급을 다른 사람하고 차등하여 주지 않게 해주세요. 퇴직금도 1년에 한번씩 지급하면 좋겠어요.
▪ 의료보험 지원
▪ 일하기 전에 간단한 브리핑 또는 오리엔테이션 제공
▪ 일할 때 사용하는 물품을 사주지 않고, 본인이 물건을 구입하여 일할 때 사용하고 있다.
▪ 임금 인상을 해주시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달라
▪ 작업환경과 안전 개선
▪ 적절한 안전장비
▪ 좋은 방법으로 설명 해 주세요
▪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 하고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여 주세요.
▪ 협력, 화합
▪ 화합과 서로에 대한 배려
▪ 회사에서 안전한 신발 지원 했으면 함.

Ⅴ.마석가구공단 관련

1. 마석가구공단에서 거주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N	평균	최솟값	최댓값
145	7.0	0.42	28

마석가구공단에서 거주는 평균 7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최댓값에서는 28년까지 나타난다. 마석가구공단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요인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고 동일업종(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이동을 하더라도 쉽게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과 주거가 동일 내지 근거리에 있고 같은 나라 사람과의 연대, 친교, 정보교류(일자리 등)가 용이하다. 공단 내에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가 있어 이주노동자의 고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등)과 다양한 서비스(한국어 교실, 무료진료, 미등록아동보육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착에 대한 안정감을 준다.

2. 마석가구공단에서 생활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전체	142	100.0
①친구소개	69	48.6
②친척 또는 가족의 소개	29	20.4
③브로커를 통해서	3	2.1
④같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24	16.9
⑤기타	4	2.8
1 & 2	1	0.7
1 & 2 & 3 & 4	1	0.7
1 & 4	8	5.6
1 & 5	1	0.7
2 & 4	2	1.4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친구의 소개로 마석가구공단에 오는 경우가 48.6%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 소개로 오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다가 본국에 있을 때 지연이나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소개로 오는 경우가 많다. 친척 또는 가족의 소개 20.4%는 마석가구공단에서 초기 정착을 하고, 이후에 소개를 하여 온 경우로 공단 내에는 친척, 가족으로 혈연관계와 학연(선후배) 등 나름 강한 연대감을 이루고 있다.

3. 마석가구공단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면 이전에 있었던 곳은 어디이며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전체	102	100.0
① 서울시	16	15.7
② 경기도	57	55.9
③ 강원도	5	4.8
④ 경상북도	2	2.0
⑤ 경상남도	3	2.9
⑥ 부산시	4	3.9
⑦ 인천시	11	10.8
⑧ 전라북도	2	2.0
⑨ 전라남도	2	2.0

수도권 지역에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71.6%)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마석가구공단에 오기 전에 하던 일들은 자동차부품, 도금, 원단 공장 등 주로 제조업에 속하고 건설, 축산에도 노동을 하였다. 하지만, 공단 내에서는 가구업종에 국한되어 있다.

4. 전에 생활하던 곳과 마석가구공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로 구분)

전체	빈도	백분율
	44	100.0
①주거환경		
좋음	29	65.9
나쁨	15	34.1
②생활환경		
좋음	39	84.8
나쁨	7	15.2
③노동환경		
좋음	28	71.8
나쁨	11	28.2
④의료/보건환경		
좋음	29	85.3
나쁨	5	14.7
⑤여가생활 환경		
좋음	25	89.3
나쁨	3	10.7
⑥이주민지원환경		
좋음	31	79.5
나쁨	8	20.5
⑦차별		
좋음	11	61.1
나쁨	7	38.9

전에 있던 곳과 마석가구공단 차이점에 있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가생활 환경으로 89.3%와 의료/보건 환경 85.3%, 생활환경 84.8%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국가 간 이주노동자들의 친교활동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것을 반영하고,

의료/보건 역시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한 무료진료, 의료공제회 등 지역 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 좋지 않은 점은 차별 38.9%, 주거환경 34.1%, 노동환경 28.2% 순으로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주거와 노동환경 역시 이주노동자 실생활에 있어 이주노동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5. 마석가구공단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생활에서 느낀 위협)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143	100.0
①화재	21	14.7
②단속	63	44.1
③범죄	1	0.7
④차별(지역주민,직장동료등)	1	0.7
⑤주거환경(위생,보건등)	24	16.8
⑥기타	8	5.6
1 & 2	12	8.4
1 & 2 & 3	1	0.7
1 & 2 & 3 & 4 & 5	1	0.7
1 & 2 & 4	1	0.7
1 & 2 & 5	1	0.7
1 & 4	3	2.1
1 & 5	3	2.1
2 & 5	2	1.4
3 & 4	1	0.7

마석가구공단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고 미등록체류가 많다보니 매년 3~4번 출입국의 단속이 있어왔다. 2005년, 2009년에도 대규모 단속 있었다. 법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지만,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부상이 발생했다. 출입국 직원이 공장에 고지 없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숙사에 잠근 장치를 파손하고 단속하거나 야간에 단속이 이루어져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속이 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에서 조사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있다가 강제출국을 당한다. 사전에 출국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정리해야 할 일(주거 보증금 및 급여 등)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마치 범법자처럼 처우되어 그동안의 이주생활 전반에 대한 상실감을 갖게 된다.

6. 마석가구공단을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3개)

전체	154	261.0
①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104	67.5
②일가친척이 함께 있어서	39	25.3

③생활하기 편리해서(주거, 여가, 쇼핑 등)	36	23.4
④근로조건이 좋아서(월급 등)	21	13.6
⑤종교생활이 가능해서	50	32.5
⑥지원센터가 있어서	88	57.1
⑦익숙해져서 다른 곳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33	21.4
⑧다른 곳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4	2.6
⑨취업이 쉬워서	27	17.5
⑩기타		

마석가구공단에 계속해서 체류하는 이유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67.5%)은 상당히 중요하다. 타국에서의 이주생활을 통한 문화적 향수를 공유할 수 있고, 연대감을 고취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각국의 공동체는 문화생활과 일자리 정보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필리핀 태풍과 네팔 지진 피해 등을 발생했을 때도 본국에 모금을 보내기도 하고, 질병과 사망 등 각국 공동체가 모금, 송환 등을 맡아서 한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도 이주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고, 성공회 남양주성생원교회 역시 필리핀공동체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7. 마석가구공단의 재개발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전체	147	99.3
①알고있다	72	48.7
②모른다	75	50.7

마석가구공단은 7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축사건물을 개조하여 공장을 전환을 하였다. 전혀 도시계획 없이 마련되어 건물, 도로, 전기배선 등이 부실하다. 몇 년 전부터 개발과 관련 계획이 끊임없이 화자 되고 있다. 이미 공단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이를 더 재촉하고 있다. 최근에도 모건설회사와 공단내 (가)조합이 구성되어 조만간 개발과 관련한 로드맵이 나올 공산이 크다.

8. 마석가구공단의 개발이 결정되면 이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전체	146	100.0
①본국 귀환	22	15.1
②남양주 내 다른 곳에서 계속 일할 예정	53	36.3
③남양주 외 다른 곳에서 계속 일할 예정	15	10.3
④특별한 계획이 없음	52	35.6
⑤기타	1	0.7
1 & 2 & 3	1	0.7
2 & 3	1	0.7
2 & 4	1	0.7

마석가구공단 개발과 함께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공단 내 이주노동자는 대거 이동을 해야 한다. 만약에 공단이 개발이 되면 36.3%는 남양주 내에, 10.3%는 남양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노동을 떠난다. 개발 시까지는 아직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지만 특별하게 계획이 없는 이주노동자도 35.6%를 차지한다. 15.1%도 이주노동을 종결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오랜 기간 체류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의 적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석가구공단은 답변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식품구입, 일자리, 숙소)환경적인 접근 도움이 되는곳
▪ 2번째 고향
▪ 2번째고향같다
▪ FURNITURE HOME
▪ NONE
▪ VERY HELPFUL AND EASY TO APPROACH
▪ 가구 제작 기술을 배울수 있어서 좋다
▪ 가구공단은 좋은곳이다
▪ 가족 같은곳
▪ 경제적으로 도움되는곳
▪ 고향같은곳
▪ 공단이 좋다
▪ 공장도 많이 있고 일자리도 많아서 좋다
▪ 공장이 많고 일자리도 많아서 좋다
▪ 근무할때 초과근무 혹은 단시간근로가 아닌 8시간으로 적당히 일 할 수 있어서 좋다
▪ 급여가 좋다
▪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곳
▪ 나의 삶이 있는곳
▪ 내 고향
▪ 내고향같은곳
▪ 돈도 벌수 있고 센터도 가까이 있다
▪ 돈을 벌수 있다
▪ 마석공단은 공장이 많아서 좋다
▪ 마석은 내고향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좋다. 편안한것 뿐만 아니라 살기 편하다
▪ 마석이 좋다
▪ 많은 일자리가 있다
▪ 많은 추억이 있는고, 돈을 벌수 있고 그에 따라 가족생계도 유지하게 하는곳
▪ 본인과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좋다.
▪ 사랑
▪ 살기좋은곳
▪ 삶
▪ 삶의 일부
▪ 생활이 편리하다
▪ 없음

▪ 예전에는 일자리가 많았지만, 요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어서 저희 가족 도움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운명같은곳
▪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과다한 업무시간 없음)
▪ 이주민(자국민)이 많아 일하기 좋다
▪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
▪ 일을 구하기 쉽다
▪ 일을 할 수 있게 해준곳
▪ 일자리 있는곳
▪ 일자리가 많다
▪ 일자리가 있고, 잠을 잘 공간이 있는곳
▪ 일자리가 있는곳
▪ 일자리가 있다
▪ 일자리많고,친구들이 있는곳
▪ 일자리와 친구가 많아서 좋다
▪ 좋다
▪ 좋은 인생
▪ 좋은곳
▪ 지금은 가구공단이 좋은곳이며, 더좋은 곳이 되었으면 함
▪ 직장이 있다
▪ 집
▪ 행복한곳

* 남양주시외국인센터에 바라는 점(기타)

▪ HAPPY
▪ HELPING THE MIGRANT WORKER - FOREIGNER
▪ JUST STAY SAFE AND KEEP UP THE GOOD WORK
▪ OPEN ARMS TO MIGRANT WORKERS
▪ VERY HELPFUL & EASY TO APPROACH
▪ VERY HELPFUL AND EASY TO APPROACH
▪ VISA
▪ 가족 초청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강보험 가입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경제적으로 많이 어렸습니다.
▪ 계속 도움을 받고 싶다
▪ 공단 개발이 되기에 천천히 되었으면 함.
▪ 긴급 상황 발생시 유용하고 접근하기 쉽다
▪ 나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 노동자 대우를 개선 해주세요
▪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

▪ 도움 지원
▪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도움을 잘 주었으면 함.
▪ 도움을 많이 준다
▪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고 싶다.
▪ 도움을 요청하기 쉽고, 이주민에게 친절하다
▪ 도움을 주세요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도움이 필요할때 빠른 접근을
▪ 도움지원
▪ 동아리 프로그램 있었으면 함
▪ 따뜻하게 맞이 해주세요
▪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
▪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함.
▪ 많은 도움이 된다.
▪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도와주세요
▪ 많은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세요.
▪ 모든 도움을 받고 싶다
▪ 모든 문제 신속하게 접근하고 조치
▪ 모든 사람들 기꺼이 도움을 줄수 있게
▪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함.
▪ 문제가 생겼을때 도움을 줍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비자 문제 해결
▪ 비자 받을수 있게 그리고 건강보험도 가입을 원합니다
▪ 비자문제, 합법화
▪ 빠른 도움과 행동을 원하며,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주세요
▪ 사업주와 직원이 노사관계가 잘 되도록
▪ 서로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것
▪ 센터가 좋고, 지원을 계속 해주세요
▪ 신뢰가 가며, 한국에서 가족처럼 기댈 수 있어 감사하다.
▪ 아기예방접종지원
▪ 앞으로 계속 기대하겠다
▪ 앞으로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
▪ 어떤 문제에도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함
▪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싶다.
▪ 없다
▪ 없음
▪ 여행 활동 많았으면 좋겠어요
▪ 예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민자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 우리를 도와주는곳
▪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우리와 같은 이민자를 돕기를
▪ 월급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유용하고 접근하기 좋다
▪ 의료지원을 더욱 지원 하였으면 함.
▪ 이민자들 도움을 주세요
▪ 이주민곁에 센터가 계속 있어 주기를 바란다
▪ 이주민들 잘 살수있게
▪ 이주민센터의 의무를 다 해주세요
▪ 이주민에게 더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 이주민에게 많은 혜택제공
▪ 이주민에게 센터가 있어야 한다.
▪ 이주민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세요
▪ 이주민에게 친절하며 지속적인 도움
▪ 이주민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 이주민을 위해 항상 함께 해주었으면 함
▪ 이주아동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바랍니다.
▪ 재개발로 인해 센터가 이주민 도움이 되는 방향 지원
▪ 재난 발생시 도움을 받고, 의료 지원도 받는다.
▪ 적절한 서비스와 직원들의 믿음
▪ 정보, 교육 제공
▪ 좋은 지원 해주세요.
▪ 지금 도움을 주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도와주세요
▪ 지금처럼 도움을 주었으면 함
▪ 지속적인 도움
▪ 지속적인 지원
▪ 지원, 건강,친절,세심,성실하게 도움을 주세요.
▪ 한국에 태어나는 아이들 비자, 보험, 교육 등 보장 해 주세요
▪ 합법체류자로 일하고 싶다.
▪ 항상도움이 되어 주세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SHALOMHOUSE

NAMYANGJU CITY MIGRANT WELFARE CENTER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202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으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2023.11.27)